

하나님의 말씀

신적인 성품을 다시 얻는 일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8498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성품을 알린다.....	7
5727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8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사랑.....		10
5511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10
5196	하나님의 사랑.....	11
6272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귀환.....	12
6470	자연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다.....	13
5215	사랑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	14
이 땅의 과제는 사랑을 행하는 일이다.....		16
4674	신성의 근본은 사랑이다. 잘못된 사랑.....	16
7337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얻는 일.....	17
8584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 된다.....	19
7351	사랑의 사람으로 본질적 변화. 하나님의 임재.....	21
7961	자기 사랑과의 싸움.....	22
4868	이웃 사랑.....	24
7857	이웃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일. 진리.....	24
4128	단지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나는 그 안에 머문다.....	26
하나님의 지혜.....		27
3759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힘을 깨달을 수 있다.....	27
8107	사랑과 지혜와 권세의 하나님.....	28
2569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29
7310	하나님의 지혜는 제한이 없다. 마르지 않는 샘.....	30
3402	하나님의 지혜. 영의 역사.....	31
8700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진리가 나온다.....	32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한다.....		35
3140	지혜는 영적인 지식이다.....	35
7251	사랑이 지혜에 도달하는 열쇠이다.....	36
4498	심장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능력.....	37
6628	세상의 지혜와 거짓 빛. 진리를 구하라.....	38
6474	온전하게 되기 위해 진리가 필요하다.....	39
7558	영의 역사.....	41
7703	영의 은사.....	42

하나님의 뜻.....	44
3609 하나님의 온전함. 그의 의지의 목적.....	44
6214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원칙.....	45
7733 하나님의 뜻. 자유의지. 하나님의 질서.....	46
7017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허용 아래 일어난다.....	47
6842 대적자가 경계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48
4104 하나님의 의지 - 심장의 음성. 내면의 자극.....	50
인간의 자유 의지.....	51
7837 자유의지.....	51
4402 자유의지로 물질을 극복하는 일.....	52
5672 이 땅의 의지의 시험. 예수를 따르는 삶. 연합.....	53
8332 의지의 결정.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양심의 소리.....	54
8233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는 일.....	56
9026 전적인 헌신과 의지에 남김 없이 복종.....	58
하나님의 질서.....	60
2733 법칙.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온전함.....	60
8605 하나님의 질서의 원칙은 사랑이다.....	61
7808 올바른 정도의 삶.....	62
6964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능력이 역사.....	64
3599 하나님의 질서. 인간의 의지의 혼돈과 무질서.....	65
신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일.....	67
7039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복종.....	67
3675 하나님의 질서 안의 삶은 정리된 삶.....	68
6063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삶.....	69
6385 영원한 질서는 사랑이다. 사탄의 역사.....	70
5181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죄. 죄의 고백과 용서.....	71
4991 영원한 질서를 어김. 예언의 성취와 마지막 심판.....	72
5139 영원한 질서에서 벗어나려면 창조물의 해체가 필요하다.....	73
5969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74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자신의 질서를 다시 회복한다.....	76
2803 세계 대전의 끝.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	76
3380 화산의 폭발. 자연의 권세. 하나님의 질서.....	77
5990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한다.....	78

하나님의 진지함.....	80
6084 하늘의 아버지의 진지한 말씀. 의사. 의약품.....	80
4419 혼에 대한 작업을 하라는 진지한 경고.....	81
5180 죽음 후의 삶을 생각하라는 진지한 경고.....	82
6761 세상을 향한 심각한 경고.....	83
7595 파괴를 통해 영적인 입자가 자유롭게 되는 일.....	84
7211 종말에 대한 진지한 경고의 말씀.....	85
7472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 하나님의 진지한 음성.....	87
인간의 진지한 의지.....	89
7559 진지한 진리를 향한 갈망.....	89
6204 올바른 의지가 성품의 변화를 보증한다.....	90
7143 완성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의지.....	91
6833 겉 보양과 외적인 일에 대한 경고.....	93
7359 하늘 나라는 침노당한다. 1.....	94
7303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95
6823 하나님께 귀환하기 위해 진지한 의지가 필요하다.....	96
하나님의 인내.....	99
5311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위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99
6572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	100
사람은 인내해야 한다.....	102
1003 자신을 다스리라는 권면. 온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	102
1910 온유함과 인내. 이웃사람들에게 주는 효과.....	103
7217 나이에 따른 시험. 사랑과 인내.....	103
7622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는 일.....	105
2498 인내하도록 양육하는 일. 저세상에서 하는 일.....	106
하나님의 공의.....	107
7547 하나님은 선하고 긍휼이 여기는 심판자이다.....	107
7482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108
8504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109
4510 공의. 죄를 향한 속죄. 심판.....	110
5097 하나님의 공의. 오래 참음과 긍휼.....	111
6052 마지막 심판. 사랑의 역사와 공의.....	112
사람의 올바른 생각과 행동.....	114

1869 정의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114
3224 정의.....	115
2337 깨어 있고 기도하라.....	115
5432 공의롭게 생각하고 행하는 일. 원수를 향한 사랑.....	116
4131 공의. 같은 권리. 응답하는 사랑.....	117
하나님의 긍휼.....	119
7545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	119
6352 하나님의 긍휼.....	120
4100 하나님의 긍휼은 그의 진노보다 더 크다.....	121
3260 조기 사망. 하나님의 긍휼. 높은 나이.....	122
1892 세상의 고통스러운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이다.....	124
2906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영원히 자신의 피조물에게 향할 것이다.....	124
7041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도움.....	126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128
5943 긍휼.....	128
1032 긍휼. 질병과 연약함.....	129
4697 오류에 빠진 혼을 돕는 일은 가장 큰 긍휼과 사랑의 역사이다.....	130
7132 긍휼로 드리는 중보 기도.....	131
6025 긍휼히 여기는 일. 심장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132
신적인 덕성을 얻는 일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는 길.....	134
8523 이 땅에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조건.....	134
6158 성품의 변화는 단지 내면으로부터.....	135
8064 자기 내면의 성찰.....	136
8608 덕성을 갖추는 일.....	137
7851 남김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귀환하는 것이다.....	139
7627 연합.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축복.....	140
8953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	141
신적인 성품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일.....	144
7759 신적인 능력이 깨어나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	144
5501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	145
7077 모든 신적인 성품들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	146
3920 예수를 따르는 길.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길.....	148

비록 너희가 나와 내 성품에 대해 영원히 영원까지 근원을 탐구할 수는 없지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선명한 개념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잘못 된 생각에 머무를 필요 없다. 내가 너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이를 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로부터 전적으로 온전하게 창조되어 나왔고 다시 그렇게 되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복은 너희가 쉬지 않고 나를 추구하는데 있다.

이 복은 끝이 없다. 왜냐면 나를 추가하는 것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상태에서는 너희에게서 나에게 모든 한계가 사라진다. 너희는 온전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들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면 못할 수록 너희는 나 자신과 내 성품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 대적자가 이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대한 잘못 된 개념을 주는 것이 쉽게 된다.

나를 긍휼이 없이 심판하며 사랑이 없고 영원히 저주하는 그 안에 신적이지 못한 성품을 가지지 못한 존재로 묘사한다. 기록하지 못한 개념으로 즉 내가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 잘못된 것에 대해 영원히 벌을 주고 복수하고자 하는 증독을 가진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나는 사랑 안에서 너희를 돕기 원한다. 너희의 대적자는 너희가 내 사랑을 거절할 수 있게 나를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묘사하려고 한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다시 이런 나에게 대한 잘못 된 개념을 내 대적자의 거짓 역사로 밝혀주고 너희가 내 안에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너희가 너희의 사랑을 줄 만한 온전한 존재로 나를 깨닫게 설명한다. 나는 너희들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왜냐면 너희는 비록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를 거절했을 지라도 내 사랑을 영원히 잃지 않게 될 내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존재는 미워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 그는 항상 단지 자신의 피조물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돕기 위해 애를 쓴다. 그래서 그들과 영원히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나 자신에 대해 선명한 개념을 가지게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내 사랑의 힘이 지혜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너희를 창조했다는 개념을 가지게 나를 나타낸다. 내가 모든 존재를 창조할 때에 정해 두었던 목표를 그리고 이 존재들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구원계획을 너희가 알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너희가 진실로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왜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진리 안에서 전해지면, 비록 아주 적은 정도라도 빛의 깨달음이 너희에게 비추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의 자신을 나에게 의해 생명이 주어진 내 피조물로 깨닫기 시작한다. 진리가 너희 안의 사랑의 불씨에 불을 붙일 것이다. 너희는 항상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전에 자유의지로 나를 떠남으로 너의 온전한 성품이 전적으로 뒤바뀌어서 온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떠났던 나에게 돌아오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나와 또다

시 하나가 되려면, 온전해야만 한다. 그는 자유의지로 전에 거절했던 내 의지를 따라야만 한다.

사랑과 지혜와 능력 자체인 내 속성을 깨달은 자는 자유의지로 내 의지에 다시 복종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내 속성을 알려 준다. 이는 단지 나와 대화할 때 이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 말이 밝은 빛을 선사해줄 것이다. 단지 나만이 순수한 진리를 이 땅에 보내 줄 수 있다.

단지 나만이 빛이다. 나는 이 빛을 너희 심장에 비추려고 한다. 단지 나만이 사랑이다. 이 사랑은 너희가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는 모든 수단과 길을 아는 지혜이다. 만약에 너희 스스로 나에게 어떤 대항도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내 대적자의 손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희의 자유의지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깨닫기를 원하면, 너희의 의지가 먼저 나에게 향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진리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내 대적자가 너희가 나에게 오는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너희에게 준 잘못된 사상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너희에게 높은 곳으로부터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내 말씀을 이 땅에 보내서 너희가 최고로 온전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영원히 나에게 이끌려 나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사상으로 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한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D. No. 5727

1953년 7월 19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말씀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 말씀이다. 너희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실제로 내 온전함에 도달하려는 거만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너희가 실행할 수 없게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너희를 단지 사랑으로 바꾸라는 말씀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사랑은 실제 나 자신이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면, 너희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신적인 어떤 것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은 신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내 원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가 돼야만 한다. 즉 그는 자신 안에 모든 신적인 성품을 가져야만 하고, 이런 일이 그가 온전한 존재임을 입증한다. 너희는 인간으로서 부족하게 형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한때 잘못된 의지와 나로부터 온 사랑의 능력을 거부하는 일로 인해 신적인 성품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스스로 사랑을 버림으로 나를 떠나 타락했을 때, 너희는 내 자녀로 여길 수 없게 되었고, 온전하지 못한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가 더 이상 가장 깊은 곳에서 고통당하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이미 나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지라도, 너희에게 아직 사랑이 없고, 이로써 너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너희의 성품을 바꾸도록, 온전하게 되려는 추구를 하라는 권면을 받게 될 것이

다. 온전하게 되는 일은 단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은 영원한 사랑 자체인 나와 같아 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직 잘못된 사랑 가운데 있고, 자기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이를 바꾸는 일은 실제 아주 어렵고, 잘못된 사랑을 어떠한 자신의 유익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는 일은 실제 아주 어렵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함에 도달하는 일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연약한 사람을 돕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을 통해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성취할 수 있는 일이다. 단지 내 소원을 진지하게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의 의지가 너무 연약할 수 있고, 이런 연약하게 된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진지하게 온전함에 도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돕는다. 왜냐면 내가 아버지를 갈망하는 사람을 이끌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도와 그의 심장을 부드럽게 하고, 도움을 줄 자세를 갖게 하고, 그가 스스로 사랑을 행하는 일을 작은 행복으로 느끼게 한다. 나는 언제나 그의 자유의지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가 사랑을 행하도록 항상 재촉하고,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게 머문다. 그러나 그가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을 이룰수록, 즉 사랑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항상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 때까지 항상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의지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가 사랑을 통해 자신을 나와 긴밀하게 연합을 이루면, 그는 내 사랑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하게 된다.

사람은 그의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왜냐면 그가 전적으로 온전하게 나에 의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이를 내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는 영적인 온전함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뜻을 성취시키고,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킴으로써 실제 온전한 상태에 다시 도달할 수 있다. 내 사랑의 계명은 사람이 한때 자신을 생성되게 한 아버지께 영원히 돌아가기 위해 단지 온전하게 되는 길을 그에게 가르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B.D. No. 5511

1952년 10월 19일

나는 너희 사랑을 얻기 원한다. 왜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전적으로 얻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고, 사랑할 만한 존재로 깨닫고, 너희에게 온전하게 보이고, 존재 자신이 사랑으로 너희에게 향하는 존재를 비로소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나에게 대한 올바른 개념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 안에 너희를 향한 내 큰 사랑을 믿는 믿음이 깨어나게 해주려고 시도한다. 나는 너희가 한때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고 그러므로 내가 영원으로부터 너희의 창조주요 아버지라는 깨달음을 너희에게 주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너희가 특정한 지식이 없이는 스스로 행할 수 없기 때문이고, 너희의 출처와 너희의 목적에 관한 지식이 비로소 너희 의지와 생각을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한다.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면 사랑으로 이루어진 연합이 비로소 축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지속적으로 너희의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제 내가 단지 사랑과 지혜와 권세와 긍휼과 인내와 공의를 의미하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너희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로 이런 성품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록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지만, 너희 자신이 한때 신적인 존재로서 이러한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실제 너희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지식과 깨달음을 받으면,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깨닫는다. 그러나 너희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면,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깨닫고, 너희 스스로 큰 갈망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 온다. 나는 너희를 내 끝이 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위해 사랑을 얻기 원하고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의 어떤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 간다.

나는 그가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분을 생각하도록 인도하고, 내 사랑으로 그의 생각과 의지에 역사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를 나에게 이끌기 원한다. 그러나 나는 그의 자유의지에 간섭하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말하고, 그가 단지 자원하여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씀이 그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다. 내 말씀은 그에게 나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르친다. 그가 나를 아직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는 나를 향한 사랑을 자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웃을 알고, 이웃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나는 그에게 자극해줄 것이다. 그가 내 자극을 따르면, 나를 향한 사랑이 스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아직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나를 자신 안에서 이미 깨닫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은 이웃 사랑의 결과로 선명해지고, 진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제 올바른 생각을 통해 나에게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될 것이고,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나에게 향하게 할 것이고, 그는 깨달음이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또한 사랑이 성숙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그를 나를 위해 얻은 것이다. 내가 자신의 발걸음으로 나에게 다가 오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한번 깨달은 사람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녀들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이 사랑을 얻기 위한 일을 영원히 게을리하지 않는다. 왜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선물해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쉬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기 위해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해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B.D. No. 5196

1951년 8월 25일

말씀으로 표현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나는 너희에게 임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 자신이 나에게 사랑을 드릴 때, 나는 단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넘치게 보답한다. 이로써 너희는 항상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너희가 직접 또는 내 일꾼을 통해 내 말씀을 듣게 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행복하게 여겨야만 한다. 왜냐면 내 사랑은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보호와 도움을 의미하고, 힘과 은혜를 의미하고, 위안과 격려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축복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사랑의 말씀을 받는 자녀는 절대로 다시 어두움의 상태로 가라앉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가기에는 빛이 이미 그 안에서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말씀의 깊이를 파악할 수 없다. 왜냐면 무한 가운데 가장 높고 최고로 온전한 영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낮아져 다가가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깨닫게 하고, 항상 계속하여 피조물의 사랑을 구한다는 것을 너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 자체가 너희에게는 단지 부분적인 개념이고, 사랑은 무한히 깊고 거룩한 불이어서 모든 것을 붙잡고 자신과 연합하기를 원한다. 이런 아주 큰 사랑이 항상 너희에게 향하고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왜냐면 사랑이 응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의 표현은 내 말씀이고, 너희에게 해주는 말이고, 이런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한 너희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내 피조물이고 사랑을 통해 내 자녀가 되어 한다. 너희는 나로부터 피조물로 생성되었고, 너희는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로서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 왜냐면 단지 사랑을 통해 너희가 올바른 생명으로 깨어났고, 그 안에 내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자신을 내 형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 사랑이 너희 안을 지배해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게 되어 한다. 내 사랑은 너희를 끊임없이 이끌고,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깨닫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심장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너희에게 들리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이 너희에게 임재하고, 너희를 현재와 영원 가운데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말씀 안의 내 사랑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귀환.

B.D. No. 6272

1955년 6월 1일

내 사랑이 너희를 창조했다. 나는 내 피조물인 너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하다. 무한한 사랑이 영원히 영원까지 너희를 감싸줄 것이다. 내가 해주는 이 말의 아주 깊은 모든 의미를 이해하는 일이 너희에게 불가능하다. 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절대로 너희를 영원히 되돌아 올 수 없는 타락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내 말을 진리로 영접하고 믿는 수밖에 없다.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의 힘으로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너희는 내 사랑으로 채워지고 서서히 너희가 왜 나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너희는 너희를 얻기 위한 내 사랑이 너희를 뒤따르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왜냐면 단지 응답하는 사랑으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고 너희가 나를 떠난 이래로 내가 너희의 응답하는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다.

끝없는 내 사랑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창조물이 생성되는 일과 지속적으로 창조물의 생명을 유지되는 일과 새로워지게 하는 일과 이 땅의 너희 삶과 내 운명적인 간섭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내 사랑은 또한 모든 불행과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해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내 피조물들이 나로부터 전에 없이 멀어져 그들이 내 사랑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할 때가 되면, 내 사랑이 기존의 땅을 분해시켜 변화시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실로 너희의 귀환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또한 창조할 필요가 없고 또한 나를 떠난 영이 육신을 입게 된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온전하고 너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왜냐면 내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대적할지라도 너희를 타락하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또한 너희가 언젠가는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도달한다. 왜냐면 사랑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원하면,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너희와 함께 역사하기 원하고 복되게 만들기 원하고 같은 진실 된 사랑으로 응답받기 원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너희와 너희의 응답하는 사랑을 얻기 원한다.

너희는 영원히 내 사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자유의지로 응답하면, 내 사랑이 단지 너희를 축복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상상하지 못한 일을 체험하고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되고 내 사랑이 너희에게 행한 일과 행해야만 했던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내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어 영원히 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조 재들의 자유의지가 나와 존재들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다. 이런 자유의지가 또한 다시 나와 연합하는 일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나 내 뜻은 항상 연합하는 일을 지원할 것이다. 왜냐면 연합하는 일이 너희에게 또한 나에게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의 자유의지에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로 너희의 의지와는 반대로 연합을 이루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너희 자신이 단지 불행한 상태로부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불행한 상태는 항상 나로부터 분리를 의미하고 무한하게 축복된 상태는 나와 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운명을 정한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아직 나에게 저항할 지라도 나는 너희가 택한 운명에 너희를 맡겨두지 않는다. 나는 진실로 너희의 구원을 돕기 위해 아직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지 않고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인 자유의지가 내 권세를 묶는다. 나는 너희를 패배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의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랑이 너희를 피할 수 없게 나에게 향하게 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축복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을 얻는 일은 단지 너희가 나 자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깨닫는 법을 배워야 가능하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단지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내 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내 은사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의 생각이 아직 너희를 축복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선물해주기 원하는 것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너희에게 너희의 감각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것을 너희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창조물과 자연을 통해 너희에게 말해야만 한다. 창조물과 자연은 마찬가지로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너희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할 수 있고 또한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할 수 있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 주위에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을 기억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창조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증명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싸고 있고 때때로 너희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들 때문에 너희에게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증명할 수 있다.

자연의 창조물들은 사랑과 지혜와 권세가 충만한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의 창조물들을 통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신성에게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창조물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친다. 왜냐면 그들의 생각이 물질 세계로 향하고 물질 세계 외에는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의지에 강요할 수 없고 단지 그들이 나 자신을 기억하도록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이런 일이 고난과 운명적인 일과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일을 통해 일어나야만 한다. 내 사랑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는 일은 이제 더 심한 수단을 통해 시도해야만 한다.

내 사랑과 지혜의 증거를 창조물에서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권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세로 내 권세에 저항할 수 없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랑의 갈망으로 발달될 수 있는 나에게 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위해 사람들이 단지 나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 나는 단지 존재가 한때 나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자원하여 나에게 향하는 일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나를 믿도록 강요 받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헛되고 그런 믿음은 절대로 내 피조물의 사랑이 절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지 않고 단지 두려워하면서 복종하거나 또는 내 대적자를 향해 다시 타락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열린 눈으로 세상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역사가 관여하지 않는 모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신체의 상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 오는 일이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신체만으로도 너희에게 권세가 있고 지혜로운 존재를 증거할 수 있고 너희는 이런 존재와 연합이 되기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모든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존재하고 너희가 존재하게 만든 아주 온전한 존재를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너희는 자원하여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진실로 너희가 한때 부인하기 원했던 나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환란이 너희에게 다가 오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 가서 너희가 나를 부르기를 기다리고 너희의 연합과 무기력함이 강하고 권세가 있고 너희를 사랑하는 분을 생각하기를 기다린다. 내가 고난을 통해 너희가 나를 찾게 하는 일을 이룬다면, 이런 고난은 축복된 고난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와 영원히 분리되어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너희가 한때 자원하여 버렸던 행복과 축복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빛과 힘을 가진 가운데 나와 함께 내 가까이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너희가 나와 다시 연합하고 이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연합이 된 가운데 머물 때 단지 가능하다.

아멘

사랑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

B.D. No. 5215

1951년 9월 21일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인간 예수 안에서 무한하게 타올라 그의 혼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힘으로까지 커졌다. 이런 상태는 그를 인간의 세상적인 영역을 넘어선 상태였고, 그는 나와 하나가 된 상태였다. 그런 강한 사랑이 단지 십자가의 희생을 드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 그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가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죽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가 자신을 영을 포기하기까지 사랑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희생을 했고,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이 일은 또한 비밀이고, 이 땅이 존재하고 너희 인간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구속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비밀로 머물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 너희 인간이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랑이 영원한 신성의 원래의 입자이고 그러므로

사랑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역사를 성취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겉보기에 모순이 되지만, 이는 진리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랑이 거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사람은 이미 신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이미 죽게 되지 않은 그가 당한 아주 큰 고난이 이를 증명했다. 그의 인류를 향한 사랑은 아주 깊어 인류를 돕기 위해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는 초인간적 고통으로 인간의 몸의 생명력을 빼앗기에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힘이 그의 원수들이 그의 육체를 일으켜 세워 십자가에 못박을 때까지, 그의 고통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의 몸이 살아있게 했다. 그는 내 대적자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일을 허용했고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죽음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자임을 보여주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모든 인류가 그의 죽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인 마지막 때까지 나와 연결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워하는 혼은 더 이상 나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 밖에서 나를 찾았다. 그러므로 예수가 다음 말을 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당신은 저를 버렸나이까?" 권세가 총명한 하나님이 물러났을 뿐 사랑이 그 안에 있었고, 머물렀다. 사랑은 실제 자체가 힘이였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히는 일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십자가에 못박히는 일을 당할 수 있기 위해 사용했다. 왜냐면 예수는 인간으로서 나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의식적으로 죽었고,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나에게 구했고,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나에게 다음 말을 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손에 내 영을 위탁하나이다."

그는 자신과 나 사이의 연결을 유지했다. 왜냐면 그가 사랑을 통해 자신과 하나가 된 존재로부터 자신을 더 이상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였고, 그가 나였다. 우리 둘 사이에 더 이상 분리가 없게 되었다. 왜냐면 나 자신의 원래의 입자인 사랑이 또한 그를 전적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 예수가 그의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내가 힘으로서 역사하지 않고 머물렀지만, 내가 그와 함께 하고 그 안에 거해야만 했다.

그와 나, 우리는 하나이고 그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다. 왜냐면 아버지는 사랑이고, 사랑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죽을 수 없고, 삼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사랑이 또한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고, 예수의 고통을 통해 완전히 영화가 된 육체가 살아나게 했다. 이로써 사랑이 죽음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구세주는 사탄이 이겼고, 빛이 어두움을 물리쳤고, 영원한 빛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아멘

신성의 근본은 사랑이다. 잘못된 사랑.

B.D. No. 4674

1949년 6월 21일

사랑은 가장 숭고한 느낌이고, 가장 숭고한 느낌으로 머문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사랑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다. 왜냐면 사랑이 가장 숭고한 느낌이라고 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실제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이고, 어떤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성품이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큰 힘이다. 이 힘이 모든 것이 생성되게 했다. 왜냐면 사랑은 창조적이고 살아있게 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원초적인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사람 안에서 완전히 확산되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된 것이다.

올바른 사랑은 일으켜 세우고, 생명과 모든 힘의 원천인 영원한 사랑과의 연합을 추구한다. 이를 이해하는 일은 단지 그들 안에서 올바른 사랑을 발전시킨 사람들에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이해할 수 없게 개념으로 머물게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심장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탐욕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런 탐욕은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사랑이고, 사람에게 탐욕스럽게 보이는 것들과 연합하려는 욕망이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사랑은 힘을 주지 못한다. 반면에 올바른 사랑은 사랑 자체 안에 힘이 있다. 이를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이런 사랑의 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올바른 사랑이 발산되는 영의 나라와 연결을 추구하고, 사랑의 힘을 사랑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이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하지만 절대도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사랑의 힘이 영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사랑의 힘은 모든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 누구든지 자신 안의 사랑을 최고로 확장되게 하는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사랑하려는 의지가 단지 적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숭고한 느낌을 알지 못하고, 전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시도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충만하게 받게 하는 영원한 사랑과의 연합이 단지 희귀하게 이뤄진다.

자체가 사랑인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을 닮는 모든 일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부이고, 단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런 의지를 바꾼다면, 즉 이전

에는 그가 이루지 못했던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하는 일을 이룬다면, 그가 원래 소유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잃었던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얻는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자신이 원래 초기에 실제로 누구였는 지를 깨닫고, 자신을 그에 합당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그는 원래의 힘의 원천에 접근한다. 왜냐면 영원한 사랑이 그의 의지를 깨닫고, 그를 자신에게 다시 이끌기 때문이다. 사람은 또한 사랑을 행한다. 왜냐면 힘의 공급이 사랑을 행하는 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을 의미하고, 모든 충만함으로 힘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느낌이다. 왜냐면 이런 느낌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의 심장 안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발산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 물질로 여길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향하는 사랑은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빼앗아 가고,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잘못된 사랑이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삶의 힘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잃게 된다. 왜냐면 그가 얻는 것은 헛된 것이고, 그가 자신의 삶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만들어야 할 헛되지 않은 가치를 가진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1949년 6월 22일) 진정한 사랑은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이다. 사랑은 나눠주고, 받기를 원하지 않는 가운데 더 많이 나눠줄수록 지속적으로 받는다. 올바른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역사하고, 그러므로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돼야만 하고, 이로써 항상 승리할 것이다. 즉 사랑은 다른 어떤 힘이나 권세보다 강하고, 악을 정복하고, 분노를 달래고,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저항할 수 없고, 언젠가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선언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구원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자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얻는 일.

B.D. No. 7337

1959년 4월 16일

너희 안에 영적인 능력이 다시 깨어나야 한다. 이 일은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이 너희 안의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의 영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초기에는 낮은 정도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에게 자신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이 정도를 높일 수 있고 높이게 될 원래 초기에 가졌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람은 원래 초기에 모든 온전함을 가진 영의 존재였다. 그러므로 그는 최고로 완성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존재를 계속하여 충만하게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존재가 이런 지속적인 능력의 제공에 자신을 닫기까지 이런 지속적인 사랑의 힘을 거부하여 자신이 무능력하게 될 때까지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에 어떠한 부족함이나 또는 제한을 느끼지 못했다. 존재는 거만한 영이 되어 자기 자신이 넘치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충만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에게 제한이 없이 흘러간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받는 동안에 그는 단지 넘치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함으로써 존재는 연약해지고 빛이 없게 되었다. 존재는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는 깊은 곳에서 무기력한 가운데 존재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에게 도움을 줄 때까지 깊은 곳에서 무기력한 가운데 머물러야만 했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전에 그를 묶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적자의 추종자였던 이런 존재들이 깊은 곳으로 타락하였을 때 의지는 이미 하나님의 대적자를 통해 묶임을 받았다.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맡겨지게 되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이런 깊은 곳에 머물러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강박해진 영적인 존재들을 대적자로부터 빼앗았다. 그럴지라도 존재가 선명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다시 갖고 이제 자신의 주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대적자에게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해주었다. 존재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질적인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일을 통해 도달한다.

그러나 존재가 자신의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존재는 전적으로 영적인 눈이 먼 상태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존재는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얻어 자신이 한때 생성되어 나온 영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써 이 땅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존재로 다시 변화되기 위해 높은 사랑의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사랑의 역사를 행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으로 잃어버렸던 이런 모든 능력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기 위해 의지가 아주 강하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면 사랑은 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이고 사람의 성품을 다시 사랑으로 바꾸어 준다.

그러면 사람은 다시 한때 그를 꾸며주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영접하거나 또는 그가 한때 자유의지로 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에 다시 도달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을 통해 이 성품을 다시 덧입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를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받기 위해 자유의지로 자신을 연다.

이 땅의 기간은 진실로 사랑으로 다시 변화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을 깨어나게 하면, 그는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길 구하고 찾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합은 그에게 전적인 사랑의 비추임을 보장하고 원래 초기에 가졌던 신적인 성품으로 다시 변화되는 일을 이루게 한다.

아멘

나는 항상 반복해서 같은 것을 말한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네 이웃을 돌보라. 그가 영적 혹은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우라 그에게 자기유익을 돌보지 않는 사랑을 행하라. 그리고 너의 존재목적은 이루라. 너희가 너희 형제인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요구한다. 이는 나로부터 나온 모든 내 피조물에 적용 된다. 아주 자주 너희 이웃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대부분 너희가 도와야 할 영적 어려움이다. 왜냐면 세상 어려움은 지나가지만 영적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 땅에서 저세상에서 항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적 어려움은 대개 사랑없음과 이로 말미암은 혼의 결핍상태에 있다. 이 혼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자라야 한다.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사랑을 주면, 이는 그 안에 사랑을 일깨워 그의 성품이 변하는 일이 시작 된다. 너희가 올바른 사랑의 삶을 먼저 모범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가 같이 행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랑을 주는 일은 가장 큰 도움이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에게 그의 창조주이며 그를 유지시키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줘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리기 원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영적 지식을 전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이 사랑 안에서 일어나면, 너는 그들 자신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영접하면, 이로써 너희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을 불러 일으킨다. 왜냐면 사랑 안에는 능력이 있어 절대로 나타나는 결과가 없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 이웃이 전적으로 내 대적자에 빠져 있으면, 그는 너희들 피할 것이고 사랑의 효과를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의 혼의 성장을 항상 단지 사랑의 행함을 통해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너희의 이웃들이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에도 무관심하게 지나치면서 어려움에 가운데 놔둘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자신들이 사랑이 없는 것이며 너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이 목적은 너희가 사랑으로 변화됨으로 너희의 원초의 가졌던 원래의 성품을 덧입는다.

항상 사랑의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야 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복음이 전해져야만 한다. 너희가 너희에게 강렬한 감정의 자극이 있었든 간에 너희의 이웃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표시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너희는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한다. 이웃사랑에 무관심하고 미지근한 사람은 절대로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왜냐면 볼 수 있는 형제를 주의하지 않고 어떻게 볼 수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종말의 시간에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사랑이며 단지 사랑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나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고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는 전혀 사랑이 없으며 사랑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나로부터 너희를 멀리 떨어지게 해 너희를 변질시키려는 세력 아래 놓여 있다.

너희는 이에 대적해야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이르려고 해야만 한다. 너희는 오직 사랑의 행위로만 나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가 가장 작은 너희 형제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나 자신은 이웃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여긴다. (1963년 8월 11일)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는가? 너희가 내가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자녀로서 내 사랑에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모두를 나는 자녀로 여긴다는 것과 너희는 다 같이 나로부터 나온 피조물이며 서로가 사랑하며 함께 나에게 달려와야 함을 알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견뎌야만 한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게 보호해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형태의 압박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야만 한다. 너희는 그와 함께 결속되어야 하고 형제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만들고 함께 영원하신 너희 아버지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할 때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부터 창조되어 나와서 너희의 원래 성분이 다 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 있다.

너희들 사이의 관계가 변화가 돼, 너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사랑이 결정적이 되면, 너희는 온전함에 가까이 성장을 한다. 너희는 다시 너희가 한때 가졌던 상태인 사랑으로 비추임 받은 항상 서로의 행복을 위해 사역하는 피조물이 된다. 왜냐면 나 자신이 원천인 사랑이 있는 곳 이든 또는 너희는 이 사랑을 다시 반사시키는 사랑이 있는 곳 이든 이에 상관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너희의 사랑을 비출 수 있는 형체가 있어야만 한다. 이 형제가 바로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할 이 땅의 이웃들이다. 만약에 너희가 먼저 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나는 내 사랑을 너희 안에 비추고 너희를 이웃사랑을 하게 자극하면서 너희 안의 사랑의 불씨에 양분을 제공한다. 이 역사는 이웃에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 사랑이 한번 너희를 비추기만 하면, 너희가 쉬지 않고 사랑을 행하게 자극을 받는다. 너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너희 심장을 나에게 열어 내 사랑이 들어갈 수 있게 했고 너희 안을 비추게 허용했다는 증거이다. 이는 너희가 사랑 안에서 나에게 복종한다는 증거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심장을 닫았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일방적으로 살지 않고 너희의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의 신체적인 혼적인 운명에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그를 나에게 인도하려 시도하면, 그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그의 세상적인 어려움에도 도움을 주면, 너희는 항상 성장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가 성장하기 위해 함께 산다. 항상 너희에게 너희가 섬기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너희는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너의 하나님, 창조주인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에게 자녀로서 사랑을 하며 나를 향하게 너희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선을 행한다. 그럴 때 너희의 혼은 성장하게 되며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인 나와 하나가 될 것이며 영원히 복되게 될 것이다.

사랑의 사람으로 본질적 변화. 하나님의 임재.

B.D. No. 7351

1959년 5월 1일

너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너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태초에 너희 존재상태였던 사랑의 사람이 다시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 임재는 곧 사랑의 비추임이다. 이 사랑 비추임은 너희에게 능력과 빛을 제공하고 능력과 빛이 없이는 너희가 복되다고 할 수 없다.

너희가 능력과 빛으로 충만해졌을 때 너희의 전적인 자유의지를 활용해 일해야 한다. 이 자유의지는 나와 반대로 일했으나 이제는 온전히 나에게 헌신한다. 이런 자유와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복되다. 왜냐면 이는 바로 모든 본래 창조된 영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저주에 빠지고 이 땅에서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 그와 분명 함께하게 최선을 다할 때 이 불행한 운명을 복된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이 두 계명에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기 원하고 그리고 너희가 고마운 일을 받게 되면 행복해 지는 것을 통해 사랑의 계명에 합당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안다.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 동료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너희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대로 동료에게 베풀기만 하면 된다. 자선이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내 이웃에게 행해야 한다.

너희가 진지하게 이를 행하기 원할 때 항상 이를 위해 필요한 힘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심사숙고해서 행하지만 곧 마음에서 원하는 바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곳을 돕고 베풀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스스로 체험할 것이다.

사랑이 그 사람 전 존재를 채울 것이고 그는 점점 가까이 나에게 올 것이다. 왜냐면 그의 모든 사랑의 섬김으로 나 자신을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하고 분명하게 내 임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그의 인생 여정의 목표를 이루고 자신의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목표를 성취시킨다. 그는 그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처럼 온전해지려고 한다. 그는 내가 주는 은혜와 지원으로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그가 온전해지지 못한다. 왜냐면 그가 온전하게 되기에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는 내 임재를 확보해야 한다.

그는 나에게 간청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나에게 한번 가까이 와야 한다. 그는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이 간청은 존재가 변화되려는 진실 된 의지를 의미함으로 철회될 수 없게 이뤄질 것이다. 누구든 한번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한 사람은 그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자신을 극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기회를 받는다. 왜냐면 그가 간청한 능력을 나로부터 분명하게 받기 때문이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을 단지 진지하게 여겨라.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러면 진정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고 기회가 주어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사랑으로 일하게 격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연합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합은 단지 너희가 자유의지로 증명해야만 하는 사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진심으로 너희의 선한 의도를 실행할 수 있기 위해 능력을 구하면, 너희는 항상 내 지원을 체험할 것이다.

내 임재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 또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항상 내 임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성취시켜줄 것이다. 나는 너희 곁에 있고 너희 곁에 머물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나로부터 떨어질 원하지 않을 때까지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 나와 연결을 굳게 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까지 그리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이 이뤄지기까지 너희가 너희의 성품을 내 성품과 같아지게 하기까지 이로써 이제 너희의 이 땅의 목적이 성취되고 이제 다시 너희 원래 초기의 사명대로 역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나는 너희를 이끌 것이다.

아멘

자기 사랑과의 싸움.

B.D. No. 7961

1961년 8월 8일

이웃들을 위해 희생을 드릴 자세가 되어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은 자기 사랑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 안에서 강하게 된 이웃 사랑이 그가 확실하게 완성에 이르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사랑에 대항하는 싸움은 어렵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내면으로부터 사랑을 하게 그 안에 잠자고 있는 항상 주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인 영의 불씨에 의해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싸움에는 자신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요구 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의 성품이 이미 사랑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 안의 있는 영이 재촉하는 일을 한다. 그의 성품은 스스로 사랑이 된다. 그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시킨다. 자기 사랑은 항상 적어질 것이다. 베푸려는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랑이 그를 항상 더욱 채워 줄 것이다.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의 원래의 상태인 순수한 사랑에 다시 도달한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아주 강한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친숙하게 해줘야 한다.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추구하면, 그는 의식적으로 자기 사랑에 대항해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려는 의지의 크기 보다는 적게 내적으로 인도를 받는 그는 계획적으로 사랑의 역사를 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실제로 초기에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한 의지가 그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그에게 많은 도움이 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강해지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가 사랑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또 다시 그에게 제공이 될 것이다. 그는 응답하는 사랑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랑은 그에게 내적으로 감동을 주고 그의 사랑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 안에서 사랑을 행하려는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저항하지 않는다.

그는 싸움에 승리한 것이다. 그의 혼은 성장한다. 그러므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정적이다. 이 의지는 항상 또 다시 자신을 나타내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을 통해 증명할 것이다. 사람 안의 영이 이미 일찍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으면, 이런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것을 통해 도와주려고 하고 항상 섬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친절한 성품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심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가 밝게 불타오르는 화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더욱 증가 된 도우려는 자세와 사랑 안에서 기쁨 가운데 섬기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을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함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정해진 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항상 그 의지가 이미 하나님에게 향해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않으면 이런 가르침이 그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 전혀 감동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이웃들의 큰 고난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도우려는 자원하는 일은 실제로 가능하다. 그러면 큰 극복하는 일이 필요하고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닌 자기 사랑에 대항하는 싸움을 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심장이 굳어진 사람들 자신에게 응답하는 사랑을 일깨울 수 있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많은 사랑을 행하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움을 주면, 그들이 행복하게 느끼고 그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을 항상 또 다시 그들에게 행하면, 그들에게 큰 도움을 행할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의 불씨가 모든 사람의 심장 안에서 희미하게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불씨와 대화를 하는 일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불씨는 스스로 내면으로부터 큰 능력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러나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사랑의 삶이 주는 효과를 알아야 하고 이 땅의 삶의 실패에 관해 그들이 단지 사랑을 통해 극복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에 대항해 싸워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자기 사랑은 사랑이 전혀 없는 자의 그러므로 자신이 변화가 될 때까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성품이 다시 사랑이 될 때까지 불행한 자로부터 유전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완성을 방해하는 잘못 방향을 잡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멘

1950년 3월 29일

너희가 나의 가장 작은 형제들에게 행하는 일은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희는 이 행동으로 나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다. 왜냐면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이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너희가 희생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너희의 이웃인가? 그들이 도움을 청한다는 말을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도움을 구하러 너희에게 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너희 이웃이다. 왜냐면 너희 안에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고, 사람들의 고통이 너희가 측은하게 여기게 하면, 너희는 언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고, 타당한지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도울지라도, 만약에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귀찮게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이웃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이웃사랑을 행하면, 이는 이웃사랑으로 여길 수 없다. 이웃을 도우려는 일에 많은 동기들이 있다. 그러나 단지 너희 심장이 인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웃 사랑이 단지 나에게만 유효하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으면, 이웃을 돕는 일이 조직화되고, 마치 기계처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웃 사람의 고통은 줄게 해줄지라도, 그런 일은 이웃사랑의 역사로, 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로 여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베푸는 일은 조용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물질적인 도움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다른 도움도 즉 모든 친절의 시선과 모든 선한 말들이 심장에서 우러나오면, 사랑의 역사로 평가받을 수 있다. 영적인 위험과 혼적인 위험이 세상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곳에서 너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영적인 양육을 통해 내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통해 이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속한 일들이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부드러운 동정심을 느끼는 심장을 요구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이웃의 심장에 사랑을 일깨워 그가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 너희는 두 배로 상급을 얻는다. 그러나 상급 때문에 도우려 하지 말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도우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역사는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이웃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일. 진리.

1961년 3월 24일

오, 너희 모두는 내 삶의 방식을 모범으로 삼고 나를 따르라. 사랑의 삶을 살고 인내를 행하며 이웃들에 대해 온유하게 대하라.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이웃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라.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그로 하여금 너희를 보범으로 삼고 내 뜻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되게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성품을 바꿔야만 한다. 너희는 자기 사랑을 극복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너희의 모든 원하는 일과 생각하는 일이 사랑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이웃의 악의에 찬 말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웃을 재판관에게 송사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인내하며 그의 연약함을 감당해야만 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그가 올바른 길을 가게 그가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도와야만 한다. 모든 의지와 행동에 내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진실로 사랑이 충만했던, 항상 도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던,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항상 너희가 시도하는 일을 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항상 내가 너희를 대신에 행하면, 어떻게 행했을 것인가 생각해야만 한다. 너희 심장이 너희가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게 고귀하지 못한 생각이 더 이상 너희 심장에 거하지 못하게 항상 답변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진리 안에 거해야 하고 이웃들이 오류 가운데 머물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을 도와 그들이 자신의 오류를 깨닫게 해야 한다. 왜냐면 오류는 어떤 축복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류로 깨닫는 것을 너희의 이웃에게 사랑으로 알려주고 그가 이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나 자신에게 올바른 생각과 설명을 구하게 맡겨야 한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만약에 너희가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면, 내가 너희를 오류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나는 항상 내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고 너희 안의 아직 어두운 곳에 빛을 선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심장으로부터 나에게 질문하면, 심장에서 답변을 기대하라.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 안에서 선명한 답변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서 내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 너희가 이제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에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게 하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고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내 뜻이다.

이를 위해 너희 혼자서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생각에 너희가 빠지게 하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구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올바르게 가르쳐 너희가 너희 안에서 선명함을 느끼게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 행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 심장 안에 이런 의지를 답변으로 넣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속하기 원하는 너희 모두는 스스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그를 오류와 잘못 된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원하면, 그에게 영향을 주려고 시도해야 한다. 너희는 항상 단지 아버지를 필요로 하다. 내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역사한 것처럼 항상 단지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의 이 땅의 길은 항상 단지 사랑에 의해 정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나를 올바르게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진실로 구속하는 일을 행한다.

아멘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기 원하면, 너희 안에 사랑이 불타올라야만 한다. 누구든 사랑에 머무는 사람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심장에 감동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의 은혜를 얻으려고 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와 항상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만 하고, 너희 이웃의 친구요, 형제여야만 한다. 너희는 그와 기쁨과 고통을 나누고, 이 땅에의 그의 삶이 수월해지도록 노력해야만 하고, 그를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려는 의지를 항상 가져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일의 가장 중요하고, 기쁨이 되는 일은 그의 혼을 구원하고, 유익이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랑이 너희를 인도하면, 다시 말해 너희가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선을 행하라는 재촉을 받으면, 나는 너희와 아주 가깝게 연결된 것이다. 왜냐면 사랑의 감정은 내가 너희를 이미 소유한 것이고, 이는 나의 사랑의 능력이 너희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선을 향하는 의지, 즉 무의식적으로 나를 향한 너희의 의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너희 모두를 내 심장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눈 깜짝할 순간에 너희 안에 사랑을 지퍼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너희 모두를 나를 위해 얻을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인 자유의지가 없는, 단지 정해진 존재를 얻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완전한 존재와 함께 일하고 창조하기 원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선사하기 원한다. 왜냐면 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은 끝없이 깊고, 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르러야 하고, 이를 수 있는, 일정한 정도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너희가 부지런히 사랑의 삶을 살도록 권면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 안에서 최대한 역사할 수 있기 위해 너희와 연합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랑의 능력을 증가시켜, 너희 스스로, 원초에 너희가 정함받은대로, 하나님이 성품에 이르게 한다.

나는 너희와 하나가 되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하나됨을 너희 자유의지로 이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너희는 꾸준히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만약에 감정이 너희 안의 사랑으로부터 타오르지 않은 것이라면, 너희는 너희 감정을 바꾸어야만 한다. 너희들이 선하게 되기 원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선하게 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그런 의지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도록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원하여 나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가 가서,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않고,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희를 소유할 것이다. 왜냐면 나의 사랑은 깊어, 온전한 연합이 이뤄질 때까지, 너희에게 쉴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온전히 연합된 상태가 너희의 본래의 상태이고, 나의 피조물은 나로부터 근원되었고, 나로부터 나온 힘이며,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힘을 깨달을 수 있다.

B.D. No. 3759

1946년 5월 3일

나의 사랑을 통해 너희에게 전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말하는 지혜의 영을 깨달으라. 말씀을 생각하라. 말씀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면, 나의 말의 힘이 이미 너희 안에서 역사한 것이고, 너희는 또한 너희를 축복되게 하기 위해 말씀으로 인도하는 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사랑과 지혜와 힘이 나의 근본 성품이다.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것은 항상 나의 성품을 증거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없고, 나 자신이 말씀이고 너희에게 다가 간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아주 귀한, 원래의 본질이 사랑과 지혜와 힘인 나 자신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너희는 나의 선물을 받음으로, 힘과 지혜로 충만하게 되야만 하고, 너희의 심장은 사랑을 행하려는 충동을 느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은 항상 응답하는 사랑을 촉발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진 진리를 준 나를 인정한다면, 이로써 내 사랑이 너희에게 주는 것을 열린 심장으로 영접한다면, 나 자신이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 안에 거해야만 한다.

너희 자신이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지 너희의 나를 떠난 의지를 통해 너희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의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한다면, 나 자신의 발산인 나의 사랑과 힘을 받기 위해, 너희가 의식적으로 나와 접촉한다면, 즉 너희가 나에게서 나의 말씀의 형태로 너희에게 전해지는 힘과 은혜를 갈망한다면, 이런 의지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온전한 상태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지혜와 힘과 사랑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원래 상태였던 신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더 이상 밖에 있지 않고, 너희의 의지의 변화를 통해 나와 융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나 자신이 위에서 너희에게 제공하는 나의 말씀이 너희를 이런 상태에 처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따라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그 말씀의 기원을 밝고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나와 나의 사랑과 지혜와 힘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사랑과 지혜와 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를 통해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면, 너희의 성품이 나의 성품을 닮는 일이 나의 선물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의 말씀은 나 자신이고, 내가 있는 곳에는 사랑과 빛과 힘이 모든 충만함으로 함께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너희가 나 자신을 사랑과 지혜와 권세의 하나님으로 깨닫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증명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내 인도를 구하는 너희를 이 땅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위험 가운데 처하면, 내 사랑이 너희를 위험 가운데 놔두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도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내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단지 내 창조물에 눈을 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내 지혜를 증명하고 있다. 너희가 눈이 먼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는 단지 진지하게 이에 관해 생각해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주변의 모든 것을 생성시킨, 진실로 지혜 가운데 너희 사람들과 여러 가지 창조물들이 지속되고 유지되게 섬기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를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 어떤 것도 의미와 목적이 없이 생성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 사람들이 창조물 안에 숨겨져 있는 목적을 항상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창조 되었다는 것이 제한이 없는 내 권세를 너희에게 다시 증명한다. 내 권세는 내 사랑과 지혜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오게 하는 이런 생각들이 형체가 되게 하는 권세이다. 너희 사람들은 계속하여 항상 내 사랑과 지혜를 나타내는 내 사랑의 역사가 너희에게 말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너희는 그 속성이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너희는 모든 생각을 할 수 있다. 너희는 항상 내 명을 받아 너희가 사랑을 하게 하려는 빛의 존재로부터 자극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는 생각을 단지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의 온전함을 깨닫는 것은 그의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아는 것은 너희의 이 땅의 삶이 항상 쉽게 되게 보장해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를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깨달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에게 의뢰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온전한 존재로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단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나와 연결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존재와 연결을 시키기 전에 너희는 먼저 이 존재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 최고로 온전한 사랑과 지혜와 권세가 내 성품이다. 이런 존재를 너희는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의 과정에 성공이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이 땅에 거하는 짧은 기간이 너희에게 다시 원래의 성품을 갖게 하는 긴 성장 과정을 최종적으로 끝낼 것이다. 너희는 단지 자유의지 가운데 나와 연결을 통해 이를 이룰 수 있다. 내가 이제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나에게 귀환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축복되지 못한 분리 된 상태를 짧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깨달으면 너희 스스로 자유의지로 나에게 속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드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으로 비추여주

려고 하면, 너희는 나로부터 더 이상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의 삶은 너희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에게 대한 저항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제 너희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 나는 이 지식을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면 내 사랑이 너희는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세상 편에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너희에게 내 큰 지혜를 확인시켜주는 너희의 시작과 너희는 마지막 목표를 알려준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방식을 선택한다. 왜냐면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하기 원한다. 나는 진실로 모든 수단과 길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자유의지 가운데 놔둔다. 자유의지가 모든 돕는 수단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은 이 땅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장 과정에 육신을 입을 초기와 같은 수준으로 머문다.

만약에 그가 퇴보하면, 다시 깊은 곳을 추구하면, 종말이 임하면, 그가 다시 한번 파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내 편에서 질서의 법칙을 지키기 때문이다. 질서의 법칙을 어기면서 축복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B.D. No. 2569

1942년 12월 2일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은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모든 일어나는 일에 질서를 부여한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는 비교할 수 없게 지혜롭고, 가장 작은 방해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생성된 모든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을 의미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고, 따라서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반면에 기존의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단지 지혜가 없고, 파괴하는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는 동안에는, 즉 하나님의 질서에 손을 대지 않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조화를 이룬다.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족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항하는 사람이 부족한 지식을 관철시키는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의 능가할 수 없는 지혜가 만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파괴하는 일과 같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의 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고, 절대로 자신의 의지로 거역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일은 죄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일은 거만한 일이고 단지 파괴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왜냐면 인간이 자신

의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면, 피할 수 없게 파괴를 의미하는 혼란이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능가 당할 수 없는 지혜에 기초한, 기존 질서에 무조건적으로 순복함을 통해, 창조의 힘을 존중한다면, 어떤 것이 단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제한이 없다. 마르지 않는 샘.

B.D. No. 7310

1959년 3월 17일

내 영을 통해 너희에게 제공될 수 있는 지식은 무한하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하여 지혜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주어지는 일도 너희가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할지라도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 나라는 무한하고 내 성품에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나로부터 끊임없이 흘러 나오는 지혜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기에는 아직 너무 제한 가운데 있다. 이런 너희의 지식의 제한이 온전하지 못한 것의 증거이다. 반면에 나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서 제한을 알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내 온전한 존재에서 발산 된 것도 제한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말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너희에게 항상 새로운 지혜를 전해주었을 것이고 너희가 거하고 있는 비추임 받는 영역이 항상 또 다시 더 밝게 빛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나는 너희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추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온전하게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직 너희의 성품의 완성에 이르기에는 아직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끝이 없게 깊다. 이 사랑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너희에게 가능한대로 많은 영적인 내용을 전하고 항상 너희가 기뻐하며 영접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를 갈망하기를 요구하고 너희의 혼을 위한 올바른 양식에 대한 굶주림을 요구한다.

너희의 알려고 하는 갈망이 클수록 너희는 나에게 더 많이 질문할 것이고 그럴수록 나는 기쁘게 자원해 너희에게 답해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어느 정도로 갈망할 지는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끊임없이 기를 수 있는 원천 앞에 앉아 있다. 너희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설명을 갈망해야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 질문에 답변한다는 보장을 너희에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샘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을 것을 항상 너희 자신의 갈망에 합당하게 새로운 지혜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벼운 내용을 제공하면, 이에 대해 만족하라.

왜냐면 내가 무엇이 너희 자신과 너희가 다시 이 내용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도달하게 해주는 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가 갈망하는 정도에 따라 제공한다.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내 음성을 듣는 것으로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어떠한 내용이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안다.

그러나 어떠한 때에는 내 지혜와 사랑의 빛이 아주 특별하게 밝게 빛난다. 왜냐면 내가 사람의 심장에 어떤 갈망이 깨어나는 지를 보기 때문이고 내가 이를 통해 이런 심장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갈망하고 이 갈망으로 만족할 수 없으면, 이는 내 기쁨이다.

왜냐면 내 식탁은 풍성하게 차려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실로 굶주리게 되거나 허약해질 필요 없다. 너희 심장이 갈망하는 모든 영의 양식이 너희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생명의 샘은 무한하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원천이 메마르지 않고 내 큰 사랑과 능가할 수 없는 내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 사랑은 너희에게 많은 지혜를 전할 것이다. 내 은혜의 선물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고 항상 또 다시 새로운 질문이 일어날 것이다. 내 편에서 너희에게 절대로 제한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깊은 지혜를 전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 성장 정도에 합당하게 너희에게 선물해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성장 정도는 항상 높아질 수 있고 만약에 너희 스스로 더 깊은 지혜를 추구하면, 너희에게 항상 더 깊은 지혜가 주어질 수 있다. 너희가 진지하게 설명받기를 갈망하면, 너희는 내가 침묵할까 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내 영이 너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영의 역사

B.D. No. 3402

1945년 1월 12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통해 파악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자신 영이 동시에 역사할 때 단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간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얻기 원한다면, 영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생각을 깨우쳐 주어, 이로써 하나님의 영 자신이 자신의 가장 깊은 지혜를 그에게 전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이 그가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지식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고력은 동시에 양육을 받고, 그는 이제 자신이 받은 지식을, 비록 더 단순한 표현의 형태로 전할지라도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전해준 지식에 합당하게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능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전하는 사상이, 비록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이고 때로는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인간의 심장에 전달될지라도, 인간의 지혜에 의해 능가 당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 단지 받은 지식을 기계적으로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 사람들 앞에서 이 지식을 대변할 수 있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지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로 설명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이 지식을 서서히 알려줘야만 하고, 그가 실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이로써 그가 가장 깊은 지혜에 접근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심장과 이성이 지식을 점검하여, 이제 비로소 지식을 올바른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야 한

다. 이제 비로소 사람이 가장 깊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의 불씨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영의 불씨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전능함을 나타낸다.

이 지식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헤아려 볼 수 없는 지식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전에 우주와 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사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면, 우주와 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사역을 이해하거나 진실되게 설명하도록 양육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 정해준 한계 내에서 움직일 것이고, 사람은 항상 단지 이 땅의 것들을 연구할 수 있고, 자신의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증거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는 모든 신적인 지식과 모든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머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에게 즉 사람의 이성에게 제시할 수 있고, 이로써 이성이 이제 역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각을 통해 받은 것을 점검하고, 사람이 이제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식을 비로소 올바른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은 이성으로 연구할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만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심장과 생각에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므로 또한 단지 자신의 의지를 통해 인간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다. 이런 의지와 온전하게 되려는 의식적인 추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웃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진리가 나온다

B.D. No. 8700

1963년 12월 15일

진리를 갈망하라. 진실로 이런 영적인 구함은 너희에게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순전히 이성의 생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을 영접한 인간의 이성을 기초한 책들 안에서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진리를 탐구해 해명할 수 있다고 믿으면, 너희는 자신을 속인다.

왜냐하면 단지 나 스스로 영원한 진리 자체인 내 안에 순수한 진리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진리를 구하라고 말한다. 나에게서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라. 너희는 진리를 받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서 너희가 구하라는 진리가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이는 영적인 영역에 관한 절대로 증거로 증명할 수 없는 지식이다.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지식이다.

이는 모든 것을 창조한 권세에 관한 그리고 이 권세와 너희 사람들과의 연관 관계에 관한 지식이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권세의 성품과 역사와 사역에 관한 지식이다. 자신의 이성을 통해 이에 관해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에 관한 설명하는 일을 단지 영원한 진리가 행한다.

너희는 설명을 구하기 위해 순수한 진리에게 문의해야만 한다. 너희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고 해주기 원하는 자는 나 자신이다. 왜냐면 나는 최고의 권세이고 내 형상을 가진 피조물인 너희를 이런 지식으로 행복하게 만들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단지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나 자신을 계시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진리를 전해주기를 나에게 구하는 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진지한 갈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또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전하는 단지 그들의 이성이 일한 것으로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은 이성의 생각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영접한다.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적다.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답을 구할 정도로 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단지 나로부터만 순수한 진리가 나올 수 있다. 사람들이 오류 가운데 있으며 어떠한 진리 된 지식이 없이 사는 데에는 너희 사람들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 관한 잘못된 관점에 원인이 있다. 이로써 너희는 너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진리에 대해 무관심 한 것은 인간의 혼의 아주 성숙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 주는 현상이다. 왜냐면 이 혼은 아직 인간에게 빛이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거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대적자 자신도 혼들을 잃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적자가 혼들을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어두운 영으로 있는 동안에는 단지 자신의 권세 아래 묶어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 만이 사람들을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 진리만이 축복이다. 진리는 이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다. 나 자신이 진리이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선자는 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너희 사람들이 이제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면 너희에게 이 땅의 삶의 길에 관한 빛이 없다.

너희는 비록 삶을 영위하지만 진리가 없는 이 길은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길은 단지 낮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 반면에 너희가 진리의 길에 들어선다면 최종적으로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다. 왜냐면 이 길은 밝게 빛나고 너희를 목표인 영원한 진리 자체인 나에게 인도한다.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항상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있다.

단지 심장으로 나로부터 들으려고 하고 나에 의해 진리로 인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 자신을 계시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함이다. 왜냐면 이런 구함은 너희의 귀환하려는 진지한 의도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나 자신을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구함은 확실하게 응답을 받게 되는 영적인 구함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면, 너희는 내 속성 안의 나를 깨닫고 사랑한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요구한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갈망한다. 너희가 순수한 진리를 전달받음으로 너희의 출발점과 너희가 한때 가졌던 나에 대한 위치와 다시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목표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너희의 이 사랑이 깊고도 순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너의 안에 사랑이 불타오를 것이다. 너희는 항상 긴밀하게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너희를 넘치게 축복되게 만드는 지식으로 더 깊이 인도될 수 있다.

너희는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이 나를 섬길 수 있는 큰 귀환역사에 관한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사랑이 너희를 축복되게 할 것이다. 왜냐면 이 사랑이 최종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진리가목표로 인도한다. 너의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드러 나에게 긴밀하게 헌신해야 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모든 것에 관해 설명해줄 수 있고 해주려고 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지혜는 영적인 지식이다.

B.D. No. 3140

1944년 5월 30일

지혜는 진리에 전적으로 합당한 영적인 지식이다. 지혜는 지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지식이고, 사람들을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지혜는 반박하는 어떤 지식에도 견디고, 어떤 것도 지혜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신적인 근원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단지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것을, 그러므로 부족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온전하다는 권리를 가진 지식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지식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고, 논쟁의 대상으로 머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지식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지식이 될 수 없고, 이 지식은 이 지식을 이성을 통해 얻은 사람이 변화됨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연구를 마치면,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지, 진리에 합당한 것인지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 세상 편에서 세상 지식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 지식은 근거가 없는 것 아니고, 사람에게 알고 있다고 믿을 권리가 있다. 그럴지라도 이 지식은 지혜가 아니다.

세상 지식은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인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또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을 절대로 전해주지 않는, 알고 있는 세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해준 진리가 지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지식이 더 이상 갈망할 만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갈망을 항상 높여 주기 때문이다. 지혜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지혜를 버릴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이 지혜를 대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지식이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지식이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 지식의 성공이 다시 단지 세상 재물과 영광과 부유함을 준다는 것을 아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마지막 목표인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되어, 빛의 존재로서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체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혜는 사람을 일깨워 주고,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수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이 지혜는 그가 다시 영적인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고,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알려줄 수 있게 한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모든 존재들을 다시 지혜 자체인 하나님께 인도한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무시하는 동안에는 너희 모두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주 많이 연구하고 생각할지라도 이런 일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의 연구는 항상 실패할 것이다. 즉 진리와 일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시험해볼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생각이 바뀌는 일과 어떻게 바뀌는 지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의 심장 안에 넣어주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대부분 자신의 의지로 인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해보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무한히 행복하게 하는 증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의 심장 안이 갑자기 빛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달음의 빛인 지혜가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심장의 충동과 그들의 이성의 활동을 결합할 수 없고 그들이 느끼는 삶을 날카로운 이성의 사고와 연결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지혜의 열쇠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는 어떤 사람도 진리 안에 머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고 또한 사랑 자체라는 설명은 아주 단순한 설명이다. 불이 자연법칙에 따라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사랑의 불에서 지혜의 빛이 발산되어야 하고 하나는 다른 하나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사랑과 함께 하는 이성은 가장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한다. 이 말이 너희 사람들에게 아주 오만하게 보일지라도 너희가 단지 진리 안에서 사는 일이 너희의 진지한 의지라면, 너희가 스스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비밀에 도달하려는 너희의 모든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즉 세상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내려는 너희의 모든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초기에 주로 자기 사랑을 알았던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바꾸면, 그의 생각이 진리에 합당하거나 또는 그가 사랑이 없는 이성의 사람보다 훨씬 더 진리에 가까운 생각을 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를 믿고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의 너희의 임무를 완수했고 이 땅에서 이미 밝은 깨달음의 빛이 너희의 보상이 될 것이고 너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산 후에 다시 들어가는 저세상의 나라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저세상은 너희가 한때 거했던 너희의 진정한 고향이고 저세상은 너희 자신이 너희 안의 사랑의 빛을 끄는 일을 통해 어둠 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의지로 떠난 고향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너희는 영적인 연관 관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 없음이 너희가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한 요인이었다. 너희가 자기 사랑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너희가 다시 자체가 사랑이고 너희를 다시 되찾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 너희의 내면이 다시 빛이 될 수 있다. 너희의 생각이 선명해지고 너희의 이 땅의 과제와 연관이 있는 연관 관계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려면, 너희는 다시 너희 안의 사랑이 타오

르게 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고 자체가 사랑인 분과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에게 다시 빛과 힘과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너희는 가장 밝은 빛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 축복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원한 사랑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충만하게 채워주기 때문이다.

아멘

심장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능력.

B.D. No. 4498

1948년 11월 28일

깊은 심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심장이 관련되지 않으면, 단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단지 깊은 내면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즉 자주 침묵하기 위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즉 그들의 생각을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염려와 세상 계획으로부터 멀리하고, 자신 안으로 들어가 이 땅의 세상 밖의 나라를 헤아려보려고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이 숨겨진 것들을 들여다보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활동의 영역을 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상한다. 비록 인간이 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동안에는, 인간의 능력이 남김 없는 설명을 받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큰 신비를 알려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이해할 능력도 증가한다. 따라서 실제 이미 이 땅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단지 받는 사람 자신은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이웃 사람은 깊은 하나님의 지혜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 왜냐면 그가 모든 창조물과 영원한 창조주 사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깨달음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면 한 사람의 지식이 다른 사람이 영적인 추구를 하도록 자극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이 살고, 그들의 이 땅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온전히 열심을 다해 노력해야 할 최종 목표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인류 가운데 퍼져 있는 어두움 속으로 빛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사는 실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 그들은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수고를 하지 않거나 수용할 만한 대답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지하게 답변을 갈망하지 않고 또는 그들에게 대답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단지 이성이 말하게 하고, 절대로 심장이 말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느낌이 그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었을 것이다. 그들은 심장의 음성을 물리치고 전적으로 모두 세상으로 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과의 결별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영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둡고 빛이 없이 머물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내면의 음성을 통해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머물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영의 나라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가장 깊은 영적 어두움에 빠진 가운데 영의 나라로 들어간다. 왜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빛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의 지혜와 거짓 빛. 진리를 구하라.

B.D. No. 6628

1956년 8월 26일

세상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씀은 항상 영원히 머물고 나에게서 발산하여 어두움 속으로 비추는 빛은 항상 영원히 머문다. 그러나 인간은 어두움을 통과해야 하므로 거짓 빛과 올바른 빛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올바른 빛은 진정한 깨달음을 준다. 눈을 부시게 하는 빛인 역광은 이성적으로 얻은 모든 지식이다. 역광은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지혜이다. 너희는 이런 역광들을 빛의 광선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빛의 광선은 모든 것을 비추고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보여준다.

이런 올바른 빛은 실제 인간적인 형태로 즉 이성적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너희에게 제공될 수 있다. 그러면 이성이 깨우침을 받은 것이다. 왜냐면 이성이 나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또한 순수한 진리를 대변하는 빛의 전달자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이성적인 모든 지식이 내가 인류에게 직접 제공한 영적인 내용과 일치하지만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런 지식은 세상 지혜로 여겨야만 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같이 이런 지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을 확신시키지 못할 것이고 세상은 세상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고 있다. 자녀들이 긴밀하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내가 없이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올바른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전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를 고백하고 올바른 인도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이 내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믿기 원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너희의 손을 잡으면, 너희가 이에 저항하지 않으면, 사람은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된다.

내 사랑은 너희에게 항상 계속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도록 섬기는 것을 제공한다. 너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한 은혜의 흐름이 헛되이 흐르게 되고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이 헛되게 될 수 있다. 왜냐면 너희 혼이 올바른 양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적합하지 않은 양식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이다. 그런 양식은 혼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또한 혼이 성장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너희 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또는 너희가 스스로 얻은 운명을 짊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너희 자신을 위해 즉 너희의 몸이 죽은 후 너희 혼에게 영광스러운 운명을 마련하도록 너희에게 주어졌다.

진리가 유일하게 혼을 위한 올바른 양식이다. 너희가 사람들을 통해 너희에게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면, 단지 나 자신이 진리를 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방법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이전에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고 내가 순수한 진리에 합당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너희를 인도해주기를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해줄 단지 하나의 길과 하내 수단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려면, 진리가 내 내면에서 나와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단지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나에게 진리를 구해야만 한다. 이런 일이 유일하게 너희가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일을 보장한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이 땅의 자녀의 이런 요청을 듣지 않은 채로 놔두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어떤 방식이든지 나 자신을 계시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를 영으로 진리로 나에게 드리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의해 오류에 머물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순수한 진리가 제공될 것이고 그는 또한 진리를 진리로 느끼고 축복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단지 피조물로 생각하고 그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아직 맺지 않은 동안에는 진리의 빛이 아직 그에게 비추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빛이 사람이 영원한 자신의 창조주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고 이런 빛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버지께 도달하기 위해 가기만 하면 되는 짧은 길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달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서 관계를 이루는 일이 어렵다. 그는 끝없이 먼 길을 가게 되고 목표가 그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에 의해 모든 것을 성취하지만 그러나 피조물은 한때 자신이 스스로 만든 나로부터 분리 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아멘

온전하게 되기 위해 진리가 필요하다.

B.D. No. 6474

1956년 2월 12일

내 영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 너희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이고 전적으로 사랑이고 너희를 내 사랑으로 창조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숨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다른 한편으로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해서 너희가 온전함에도 도달할 수 있게 만든 내가 너희를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로 두기를 원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너희가 인간으로서 너희는 온전함과는 아직 거리가 멀고 또한 진리와 아직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내 뜻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 이런 부족한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를 온전한 존재로 바꾸는 일이 내 목표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 너희가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일을 행해야만 한다.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를 전하는 일이고 진리를 깨닫는 일이고 그런 후에 얻은 깨달음대로 삶을 사는 일이다.

너희가 잘못 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잘못 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온전하게 만들어 줄 옳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먼저 너희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나를 영원한 진리로 깨닫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너희 안에서 타오르게 하는 사랑의 정도를 통해 너희의 깨달음의

정도를 정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정도에 따라 지식의 양이 아주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 너희의 지식이 항상 진리와 일치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의지가 유일하게 너희가 옳게 생각하는지 잘못 생각하는 지를 정하고 너희가 진리를 받는지 또는 잘못 된 지식을 받는 지를 정한다. 그러나 너희가 진리 안에 서기를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갈망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절대로 잘못 된 생각을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너희가 진리를 갈망하면, 너희는 나 자신을 갈망한다. 그러면 내가 항상 그런 갈망을 성취시켜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축복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축복되게 해주기를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고 너희가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잘못 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 대적자가 너희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너희에게 전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희가 이런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오류와 거짓은 어두움이고 깨달음이 없다는 증거이고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결과이고 너희가 내 대적자에게 속한다는 증거이다. 내 대적자는 자신 안의 모든 빛을 어두움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잘못 된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내 대적자의 영역에 거한다.

내가 이제 너희를 빛으로 다시 인도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어두움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빛으로 충만한 지식을 너희에게 줘야만 하고 너희는 전적으로 충만하게 이런 진리를 나로부터 받을 수 있다. 나는 너희가 진리를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항상 너희에게 진리를 줄 것이다. 너희의 의지가 단지 너희가 가진 빛의 정도를 정한다.

너희가 이제 받는 기본적인 진리가 너희가 어떻게 더 많은 지식을 얻는 지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진리는 영원한 질서의 법이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너희가 이제 이런 법칙에 어떤 자세를 취할 지에 따라 너희의 깨달음의 정도가 정해질 것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깨달음의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가시킬 수 있다. 즉 너희가 내 지원을 받아 가장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을 통해 나를 닮기 때문이다. 즉 내 원래의 성품을 닮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항상 더 밝고 빛이 충만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면, 너희가 언젠가 어떤 사명을 성취시켜야 하는 지를 항상 더 밝고 빛이 충만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되는 일이 너희의 의지라면, 너희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 모든 것을 나에게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진리를 제한이 없게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원한 진리는 너희에게서 어떤 것도 주지 않고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가장 높은 빛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한다.

아멘

나는 내 영을 통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길 원한다. 나는 내 일부분인 너희의 영의 불씨가 나와 연결되려고 하길 원하고 영의 불씨가 이제 너희에게 영향력을 얻기를 원하고 영의 불씨가 너희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정하여 이로써 나 자신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 왜냐면 이 영의 불씨는 나와 떨어질 수 없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자신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다. 만약에 너희 스스로 나에게 너희의 의지를 통해 나와 연결되어 있길 원하고 이 의지에 합당하게 행하면, 나는 항상 내면으로부터 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와 연결되길 구하면, 너희는 변할 수 없이 내 뜻대로 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랑 안에서 살 것이다.

이를 통해 너희 안의 영의 불씨가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의 역사를 통해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을 너희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길 갈망하는 내 영의 음성이 너희 안에 내가 임재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면, 나는 항상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영의 역사는 항상 사람의 사랑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나와 연결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 음성을 자신 안에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 영은 사랑이 없는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 만약에 너희가 내 일부분인 너희 안에 있는 영이 역사하게 허용하면, 이 영은 너희가 신적인 피조물이라는 확증을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 연결 된다. 나는 너희에게 이제 영의 음성을 통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 생각을 정리해주고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너희 자신의 의지에 따라 너희가 스스로 사랑의 역사를 통해 영의 역사가 너희 안에 일어나게 허용한 후에 비로소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정할 것이다.

내 영은 너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한다. 이런 약속을 나는 너희에게 해주었다. 왜냐면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초기에는 깨달음이 없고 너희의 영의 상태는 어둡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관해 영원한 내 구원계획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전하기 원하면, 나는 내 영을 통해 이런 일을 해야만 한다.

영은 단지 영에게만 말할 수 있다. 또는 너희는 단지 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안의 내 영이 역사할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이 영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식을 전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인도받을 것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온 영은 단지 순수한 진리만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할 수 있게 만들려고 시도해야 한다. 왜냐면 그럴 때 비로소 너희가 깨달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 안이 빛이 되고 밝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더 이상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원망할 필요 없다. 너희가 내 하나님의 영의 불씨를 너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

왜냐면 나로부터 온 영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영은 너희 심장을 채울 수 있는 모든 어두움을 심장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사랑의 빛의 비추임이다. 나로부터 온 영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 영은 너희 안에 빛을 밝혀 줄 것이다. 이 영은 너희에게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알려줄 것이다. 왜냐면 이 영은 영원한 자신의 아버지의 영인 나와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영은 내 일부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길 갈망하는 모든 것을 안다."그가 너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안의 영의 불씨가 역사하게 허용하면, 너희가 나 자신이 너희 안에서 표현할 수 있게 너희 자신을 만들면, 너희는 생명으로 깨어난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선물해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연결을 의식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에게 저항하는 사람들과 사랑이 없이 사는 사람들과 연결을 이룰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인 나 자신이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아주 날카로운 이성을 가졌을지라도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지라도 깨달음이 없이 남을 것이다. 그는 영이 어두운 가운데 머문다.

왜냐면 나로부터 온 영이 그를 깨우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나로부터 온 영이 역사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 내 일부분인 영의 불씨가 그 안에서 잠자고 있다. 그러나 이 영은 놓여져 있고 생명으로 깨어나지 못했다. 만약에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선물을 활용했으면, 진실로 그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내 은혜의 선물을 그는 거부한다.

영의 불씨와 영원한 아버지 영과의 연결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이뤄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최고의 영적인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빛과 능력은 증가할 것이다. 그는 나 자신이 내 영을 통해 자신 안에서 역사하게 허용할 것이다. 나 자신이 거할 수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영원히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영의 은사.

B.D. No. 7703

1960년 9월 18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을 설명하기 원하면, 너희는 영의 은사를 거론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능력은 자신이 영적인 성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신적인 역사로 깨닫는 능력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내 영이 역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영은 항상 혼의 성숙한 정도와 영의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많은 선물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언제나 특별한 역사이고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역사이고 단순한 인간으로는 행할 수 없는 역사이다. 이를 위해 그는 내 지원을 받아야만 하고 내 힘을 얻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 힘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그에게 병자를 고치는 은사를 주고 예언의 은사를 주고 또는 내가 준 사명을 따라 나에게서 진리를 받아 전하는 은사를 준다. 또는 내가 주는 말을 하는 은사를 준다. 이로써 내가 내 영을 통해 분명하게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 은사를 나에게서 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내가 내 영을 통해 언급한 다양한 은사들을 알려주면, 사람들도 또한 너희가 단지 너희의 창조주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능력들은 영적인 길을 통해 얻은 것이고 그들이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맘대로 줄 수는 없는 능력이고 이런 능력은 또한 학교 교육을 통해 훨씬 더 배울 수 없는 능력이다.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은사를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모든 면에서 영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신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영의 은사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은사는 한편으로 사람이 영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증거이고 그가 어느 정도의 성숙한 정도나 또는 사랑의 정도에 도달했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정도의 성숙함에 도달하면, 내 영이 비로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영의 은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위에서 오는 계시를 계시에 합당하게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역사에 대해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영의 특별한 표현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더 심하게 영적인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모든 특별한 역사들을 사탄과 관련이 있다고 정죄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내 영의 역사를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곳에는 내 자신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인 내 교회라는 특징이 없기 때문이다. 내 영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을 단지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영이 내 임재를 나타내고 사람들이 진지하게 영적인 추구를 하고 이로써 영의 은사를 받거나 증명할 수 있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복음을 선포할 때 영의 은사를 언급하고 사람들에게 다음 내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 그런 일은 항상 축복이 될 것이다: "내가 모든 육체 위에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남종들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 모든 약속은 성취가 되고 이 약속도 성취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이 없는 말에 항상 단지 내 약속으로 대항해야 한다. 사람들은 바로 종말의 때에 내 역사가 특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말씀과 기록으로 선포된 모든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함. 그의 의지의 목적.

B.D. No. 3609

1945년 11월 18일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의 존재가 가장 깊은 지혜를 발산하고, 그의 총명한 힘을 꺾을 수 없고, 그의 의지는 단지 온전한 것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의 영원한 창조의 힘에서 나온 모든 존재는 그의 탁월한 지혜로 섬겨야 하는 목적을 위해 선하고 올바른 것으로 깨달은 존재이고, 온전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절대로 결함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능력도 제한이 있고, 그의 사랑이 무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롭게, 그의 지혜는 의지와 짝을 이루어 그의 힘을 통해 그의 모든 생각이 형체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는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의 지혜가 목적에 전적으로 합당하게 여기는 것만을 원한다. 이 목적은 한때 그의 힘으로부터 온전한 상태로 생성되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온전하지 못하게 된 존재들의 무한한 행복이다. 그의 의지는 절대로 반대 방향으로 역사하지 않고, 비록 그가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그가 실제 존중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정적이지 않은 동안에는, 그의 힘을 통해 이런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또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선하고, 단지 온전한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게 된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큰 저항을 한다. 왜냐하면 존재가 가장 온전한 존재를, 그 자체가 사랑이고 지혜이고 힘인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의지에 그가 무지하게 된 책임이 있다. 원래 온전했던 존재가 자유의지로 모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자신에게서 빼앗았고, 무지한 상태에 빠지게 했고, 단지 자유의지가 이런 무지한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높은 존재의 힘과 권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의 사랑과 지혜에 대해 알지 못하고, 행복한 온전한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지 못한다. 이로써 하나님이 그들 돕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크게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된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온전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때 자유의지로 자신을 떠나 타락한 존재를 도와, 그가 다시 온전하게 되게 하고, 그를 축복되게 하기 위해 그가 자신을 다시 찾도록 돕는 수단이다. 그가 그의 의지와 사랑과 지혜로 행하는 일은, 온전하지 못한 자의 의지가 저항한다면, 비록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필연적으로 목표에 도달한다. 저항이 약해질 때, 비로소 존재가 자신이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최고로 완전한 존재가 영원한 창조주이고, 자신이 이런 가장 높은 존재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이런 작은 깨달음으로 그의 성장이 시작된다.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최고로 온전한 존재를 닮기 시작하고,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시작한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을 지혜롭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를 둔 일임을 깨닫는다. 그가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그는 영원히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빠질 수 없고, 영원히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끊임없이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일을 통해, 자신을 한때 생성되게 한 원래의 힘과 하나로 융합이 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말할 수 없게 축복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원칙.

B.D. No. 6214

1955년 3월 17일

사랑의 원칙을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단지 내 뜻에 합당하다. 이로써 너희는 이제 내 뜻의 정확한 특징을 알게 되었다. 너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나를 향한 사랑과 너희 이웃 사랑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너희는 항상 단지 돕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해야만 하고 너희가 행하는 일에 이기적인 생각과 연결을 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유익은 이기심이고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이다. 단지 혼을 담고 있는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너희 육체를 유지해야 하는 동안에는 가장 작은 정도로 너희 심장 안에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육체가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육체에게 필요한 정도가 너희에게 허용이 된 너희 자신을 향한 사랑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기 사랑의 정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이런 일은 너희의 자유이다. 자기 사랑의 정도를 낮추는 일은 항상 혼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를 너희가 이 땅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둘 때 비로소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몸이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갈망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가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을 부인한 것을 혼이 저세상의 나라에서 다시 부유함으로 되찾게 되고 혼이 이제 이런 부유함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해 혼은 축복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의 삶에서 너희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생각과 의지나 또는 행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재량에 따라 너희의 이 땅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뿌린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행하는 일이 너희 혼이 온전함에 도달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너희는 자유의지로 사랑을 행야만 한다.

심장이 자원하여 사랑을 행하고 사람이 가능한한 자기 사랑에 맞서 싸운다면, 그는 스스로 내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내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장의 충동을 따라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게 될 것이다. 그는 내면으로부터 베풀고 행복하게 해주도록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자신 안에 내 사랑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초기의 사랑이 적은 성품을 변화시켰고 그의 심장이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그의 사랑으로 감싸고 그러므로 그는 또한 그의 이웃에게 사랑을 발산하고 이웃이 또한 그의 모범에 따라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게 만들 수 있다.

사랑은 신적인 것이고 내 원래의 성품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에 의해 붙잡힌 모든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야만 한다. 나 자신에 의해 붙잡

힘을 받은 심장은 그 안에 사랑이 타오르게 하고 이제 나와 연결을 이루고 피할 수 없게 다시 원래의 상태에 가까워지게 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가 한때 나에게 의해 사랑의 발산으로 모든 온전함을 가진 가운데 생성되었을 때 소유했던 모든 속성들과 능력들을 다시 얻기 때문이다.

사랑이 유일하게 이런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 왜냐면 사랑이 존재를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 사랑이 나와 연결을 이루게 해서 빛과 힘을 넘치게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의지는 항상 절대로 너희에게 사랑의 원칙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도록 너희를 유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목표로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의지는 항상 단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내 계명의 성취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이런 내 뜻에 대해 알아야만 하고 그러므로 내 말씀이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전달되어 내 뜻을 알게 한다.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단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가 다시 사랑이 되면, 그가 단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 자유의지. 하나님의 질서.

B.D. No. 7733

1960년 10월 29일

모 든 것 위에 내 뜻이 있다. 왜냐면 내 뜻이 모든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와 모든 것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내 뜻이 하늘과 땅을 영적인 빛의 세계와 어두움의 세계를 다스린다. 왜냐면 모든 것이 의식하는 가운데 또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언젠가 나와 같은 신적인 존재들이 나와 함께 축복 가운데 창조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내 지혜가 영원으로부터 과거에 일어난 일과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 모두를 본다. 내 권세가 영원으로부터 수행한 이 모든 일의 기초는 내 끝없는 사랑이다.

이 이레 나와 같은 존재를 창조하는 일이 포함이 되었다. 왜냐면 이 일은 한편으로 나에게 아주 큰 행복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 존재들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행복을 의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는 존재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런 행복을 막았다. 그러나 내 지혜가 비록 존재의 의지가 잘못 된 방향을 향할 지라도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의 의지 위에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세웠다.

의지가 항상 결정적이다. 내가 창조한 존재의 의지는 자유 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이런 존재들의 의지를 근거로 모든 우주 가운데 역사하면서, 내 의지가 영적인 물질적인 창조물들을 다스리면서 내 의지가 어길 수 없는 내 질서의 법칙에 기초가 되게 하면서 역사한다. 비록 존재가 질서의 법칙에 대항해 반항하고 이를 어길 수 있을지라도 절대로 이 법칙을 무력화시킬 수 없고 존재가 이 법칙을 어기면, 그가 내 뜻을 대적하는 생각하고 행하면, 존재가 스스로 그 결과를 짊어져야만 한다.

내 뜻이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결정자로 남는다. 비록 내 대적자 자신이 이런 내 뜻에 저항하면서 내 뜻을 무력화시키려고 할지라도 항상 단지 자신에게 불리하다. 그는 항상 단지 나와 의 간격을 더 크게 한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무너트릴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스스로 내 뜻을 영접해야만 한다. 비록 내 지혜가 그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려

고 하는 동안 내 사랑이 그를 자유 가운데 놔둘지라도 그 자신이 질서의 법칙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의 분량이 넘어설 때 그 자신이 스스로 무력화 된다. 왜냐면 모든 것이 내 뜻 아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 자신도 나 자신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고 자신을 내 뜻 아래 복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하나의 힘의 원천이 있고 이 원천이 나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원천으로부터 능력을 얻기 때문에 존재는 내 뜻 아래 있어야만 하고 영원히 자신이 내 뜻에 복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나로부터 나온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존재들은 실제로 모든 방향으로 자신의 의지를 펼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단지 그의 의지가 내 의지와 하나가 됐을 때 피조물은 축복될 것이다. 모든 대적하는 의지는 존재에게 많이 불행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 존재는 더 이상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고 내 법칙 밖에 내 뜻의 밖에 축복 밖에 있다.

그러나 나는 영원으로부터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다시 질서의 법칙 안으로 인도하는 일이 큰 영적인 싸움을 의미함을 깨달았다. 내 사랑과 지혜는 이 싸움을 허용한다. 그러나 내 의지는 이 싸움을 질서의 법칙 아래서 수행하게 한다. 다시 말해 나와 그가 이제 얻기 위해 싸움을 하는 존재의 의지에 맞게 공의로운 정도로 내 대적자에게 그의 역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대적자는 이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넘어선다면 내 의지가 그를 묶어 그가 계속 역사할 수 없게 한다. 왜냐면 내 의지가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내가 한때 전적인 자유를 주었고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한 대적자도 내 뜻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 뜻은 항상 내 사랑과 지혜의 의해 인도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과 지혜는 무엇보다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이로써 그들이 내 의지에 복종하게 한다.

이 복종은 최고의 온전함과 최고의 축복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과 지혜는 모든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르게 하는 일에 언젠가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그의 뜻은 내 뜻과 갖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싸움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사랑이 나 자신과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들과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더 이상 나를 대적하는 의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허용 아래 일어난다.

B.D. No. 7017

1958년 1월 15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 아래 놓여있다. 실제 영원한 질서의 법칙인 자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계획들도 하나님이 허용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혼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의지가 뒤로 물러나면, 비로소 일어난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쁜 일이나 괴로운 일들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 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다시 말해 너희 자신이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너희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한 너희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일이다. 너희의 이 땅

의 삶은 실제 고통 없이 지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 너희는 이미 더 이상의 성장이 필요 없을 정도의 높은 성장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아직 영적 성장에 많이 뒤쳐져 있다. 너희는 위험이 없이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성장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 모두는 위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운명을 인도하는지 의심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의심케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가지 목적을 위해 이런 일을 허용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계획은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안다. 이 지식은 끔찍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님의 뜻은 또는 하나님의 허용은 항상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것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를 인정하는 데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믿음이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깨달음의 빛도 더 밝게 비추인다. 왜냐면 사랑이 유일하게 믿음이 강하게 하고 사랑이 빛을 주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각각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 반면에 사랑없음은 사람들의 생각을 혼돈시키고 믿음이 사라지게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는 일에 즉 그의 영원한 질서에 대항하는 일에 자신을 드린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한다. 왜냐면 때가 종말의 때이기 때문이다. 종말의 때는 지옥의 세력들이 풀려나는 때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때이고 그러므로 피할 수 없게 전환이 일어나야만 하는 때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적인 질서는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의지들은 꺾일 것이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 모든 것이 그의 뜻에 복종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유일한 영원한 주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대적자가 경계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B.D. No. 6842

1957년 5월 31일

하나님의 뜻이 실행에 옮겨질 때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그의 뜻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며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나 그의 뜻은 항상 단지 거역하는 의지가 전적으로 질서를 벗어나 아직 전적으로 어두움의 권세자에게 넘어가는 위험에 빠지지 않은 의지가 약한 영적인 존재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역하는 의지를 꺾어야만 하는 때가 되면 나타난다. 빛의 나라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뜻만이 유효하고 모든 영들이 사랑하는 심장으로 이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이 땅의 사람들과 영적인 존재들은 이제 아직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지 또는 자신을 어두움의 권세자의 포로가 되게 할 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항상 결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대해 조용하게 처신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의지에 강요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정한 목표대로 사람이 스스로 자

신의 뜻에 순종하게 만든다. 그의 목표는 모든 존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게 만드는 일이고 이런 목표로 머문다.

존재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이런 일 그에게 충분하지 않고 전적인 자유의지로 복종하는 일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존재가 단지 하나님의 뜻만이 다스리는 빛의 나라에 합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땅은 성장하기 위한 장소로써 무질서한 가운데도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지 어떤 영역에서 살 것인지 어느 정도로 성장할 지를 스스로 정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영원한 질서의 상응하지 않는 일도 허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알고 이런 일을 그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구원에 도움이 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줄을 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지혜롭고 그는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지혜로 목적에 합당하게 알아서 사용한다.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온전하기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곳에서는 그는 자신의 의지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그는 어두움의 존재들이 활약하고 역사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흑암의 세력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준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제한한다. 이런 침범이 항상 한 구원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나고 이제 다시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게 강요하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구원사역을 모르게 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각자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런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적자의 의지가 관철되고 그러면 대적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신의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의지가 대적자는 자유를 빼앗고 그를 묶고 이로써 하나님의 질서가 전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적하는 모든 존재에게 자신의 권세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대적자가 주어진 영역을 넘어 침범하는 일이 드러나게 나타나는 때가 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면 의지가 연약해진 사람들이 저항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만약에 강한 자가 대적자의 권세를 빼앗지 않으면, 대적자가 사람들이 어떤 성장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은 대적자가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대적자를 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돕고 비록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대적자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적자의 활동을 그치게 하는 일에 단지 그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너희 심장의 느낌을 통해 알려준다. 너희가 기도하며 너희 자신을 나에게 맡길 때, 그리고 너희를 짓누르는 것을 또는 생각하는 것들을 나에게 아뢰는 때, 너희는 심장 안에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재촉받는 느낌을 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 목전에서 올바른 것이 된다. 너희가 기도하며 너희를 나에게 의탁할 때,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면 내가 죄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나의 보호를 요청할 때, 나는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면 너희는 침착하게 심장의 음성에 너희를 맡길 수 있다. 다시 말해 너희 심장이 요구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오기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진실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듯이 제공할 것이다.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는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을 줄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 혼에 무엇이 좋은지 나쁘지 판단할 수 없다면,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라, 영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너희 어려움을 나에게 말하라. 나는 너희에게 대답할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 심장 안에 나의 의지를 넣어줘, 너희가 올바른 것을 원할 것이고 또한 실행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심장 안으로 내가 넣어주는 나의 응답을 들을 것이고, 단지 심장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내면의 자극이 항상 너희에게 영향을 미쳐,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력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어둠의 세력은 너희가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빛의 세력은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빛의 세력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빛의 세력에 너희를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연합되길 원하고, 나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조언을 구하라.

나는 나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단지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구원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즉 영적인 추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세상적인 즐거움도 또한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의 조언자가 되길 원한다. 너희는 나에게 결정을 맡기고, 긴밀한 기도 가운데 너희 심장에 질문하라. 그러면 너희는 올바른 인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유의지.

B.D. No. 7837

1961년 2월 28일

너희가 이 땅에서 완성에 도달할지에 대한 질문에 유일하게 너희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너희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지는 세상적인 질문이나 세상적인 계획에 입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혼이 너희 혼 위에 누구를 주인을 결정할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편에 의해서도 어떠한 결정을 하게 강요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항상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절대로 자유의지를 부인할 수 없다.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이 유일하게 결정적이다. 이 생각은 어떤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항상 생각과 말과 모든 종류의 일이 일어나 이를 통해 단지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의지에)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시도를 하나님 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서 행한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스스로 어떠한 영향을 따를지 정한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다. 그러므로 그는 언젠가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했는지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의지의 시험을 위해 인간으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혼은 언젠가 자신의 의지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는 마찬가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이웃에게는 또는 세상의 권세나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자신의 의지의 결정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생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할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지 또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향할지는 가장 자유한 그의 의지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단지 자신의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하나님께 내적인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편에서 그의 운명이 정하여 그가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이제 자유의지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원하는 것을 항상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항상 그들의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행하는 일에 영적인 세력의 역사로 인해 다시 방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원하는 것 자체는 방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비판해야 한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향하게 요구받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항상 또 다시 이런 정보를 그에게 알려 주기 때문이다. 그가 전적으로 아무런 지식이 없

이 이 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야만 하고 이로써 그가 결정하게 재촉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사람 스스로 싸워야 하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단지 긍정적인 세력이나 부정적인 세력이 이런 싸움을 하고 그들 중 한 세력이 승리자가 된다. 그러나 빛과 어두움의 싸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이 싸움은 사람들의 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혼 자신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속하여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상을 받는 일의 연속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자에게 이 혼을 얻기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부정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이제 결정해야만 한다. 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 이 크기가 육체의 죽음 후의 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운명은 넘치게 축복 될 수 있고 그러나 넘치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혼이 이 번의 이 땅의 삶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혼은 실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구속받는 일이 지연되게 한다. 그러나 의지는 언젠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하여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유의지로 물질을 극복하는 일.

B.D. No. 4402

1948년 8월 10일

너희가 물질에 의해 지배되도록 허용하는 일은, 너희가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유일하게 너희의 자유의지이다. 내 뜻에 의해 너희가 물질을 빼앗길지라도, 이일이 너희가 물질로부터 해방되는 일을 의미하지 않고, 이일이 단지 너희가 물질로부터 해방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심장의 모든 욕망을 버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물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나 물질을 향한 생각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잃어버린 물질에 대해 전적으로 태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물질을 극복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열심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너희의 실제적인 삶의 목적을 잊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세상 일을 이루고 너희의 이 땅의 일을 활용하는 일이 너희에게 금지되어 있지 않고, 너희는 일해야 하고 물질로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로써 물질과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가 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일을 추구하는 일로 인해 영적인 추구를 뒤로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아직 물질에 묶여 있고, 물질이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가 영원한 시간 동안 물질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물질이 또한 영원에까지 너희를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이 죽은 후에도 모든 감각으로 물질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저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게 될 것

이다. 왜냐면 너희가 끊임없이 물질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너희가 이제 겉보기의 재물에 지배를 받고, 이는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욕망이 성취되는 일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스스로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버릴 때까지 고통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아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전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영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세상 재물을 베푸는 대로, 즉 너희 심장이 세상 재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대로, 너희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저세상에 들어가는 일을 축복된 상태로 만드는 영적인 재물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나는 너희가 자발적으로 주기 원하지 않는 것을 너희에게서 빼앗으면서 너희를 돕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물질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일은 항상 너희의 자유의지이고, 너희는 항상 물질을 남용하고 다시 물질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물질을 다시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도움은 헛되게 되고, 물질이 너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일이 영의 나라에서 너희에게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축복받기 원하면, 너희는 언젠가 물질을 극복해야만 한다. 단지 극복하는 일에 끝없이 긴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왜냐면 영의 나라에는 이 땅에서 같은 그런 도움이 수단이 없고, 극복하기 위해 너희가 영의 나라에서 단지 희귀하게 모을 수 있는 특별하게 강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심장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너희에게 도움을 주어지지 않는다면, 너희가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가 높이 성장할 수 없게 된다.

아멘

이 땅의 의지의 시험. 예수를 따르는 삶. 연합.

B.D. No. 5672

1953년 5월 10일

너희는 나와 연결을 이룬 가운데 너희의 축복을 찾는다. 너희는 한때 자유의지로 나로부터 분리되었고, 이로써 불행하게 되었다. 너희는 나와 연합의 상태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 와야만 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찾은 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헛된 방향을 추구하는 일은 헛바퀴를 돌리는 일과 같고, 너희 혼이 온전함에 도달하는 길을 멈추는 일이고, 나와 의 연합과 다른 목적을 따를수록 나에게 돌아와야만 하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된다.

내가 유일하게 너희의 목적이 되기 원한다.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너희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린 축복을 너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하는 일이 내 모든 염려이다. 나는 너희를 항상 인도할 것이고, 너희의 운명을 인도해서 너희가 내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도록 재촉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너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한도에서 재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여서 그의 결과로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지라도, 그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의지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너희가 유일하게 올바른 목표를 떠나게

하기 위해 쫓아야 할 다른 목표를 항상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힘들게 돌고 돌아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인간으로 사는 이 땅의 너희 시간은 빠르게 지날 것이다. 너희가 나와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 너희에게 허용되고, 너희가 이런 짧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 시간은 너희에게 잃어 버린 시간이 된다.

너희가 나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예수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너희에게 제시되었고, 너희가 안전하게 나에게 오기 위해 단지 예수를 따르는 길은 가면 된다. 그러나 너희는 의식적으로 이 길을 가야만 하고, 너희 손을 나를 향해 펼쳐, 내가 너희를 붙잡을 수 있게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면의 기도와 생각으로 나와 함께 항상 연결되어야만 하고, 사랑의 삶을 통해 나로부터 힘을 받아야만 하고, 이런 일은 너희가 이미 나와 연결을 이룬 것을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살 때 너희는 이 땅의 목표와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너희는 단지 이런 방식으로 너희의 의지를 의식적으로 나에게 향하게 하고, 나는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너희의 의지를 시험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너희의 의지는 한때 나를 떠나 내 대적자를 향했고, 너희는 이제 대적자를 떠나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고, 나와 직접 연결을 이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이해하느냐? 내가 유일하게 너희 심장을 채우기를 원하고, 너희가 너희 심장을 유일하게 나를 위해 준비하고, 내가 너희의 주님이요 왕이 되기 원하고, 내가 네 옆에 생각으로 사랑하는 이방신들을 두는 일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느냐? 왜냐면 이방신들은 너희가 나와 완전히 연합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의 나누어 지지 않은 사랑과 나누어 지지 않은 심장과 나누어 지지 않은 의지를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때 너희는 나와 내 대적자 사이에서 결단해야 했고, 너희는 내 대적자를 맹목적인 사랑으로 쫓아, 나를 떠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떠나 단지 나를 쫓아야 하고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모든 시험에 합격하고, 너희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권리를 다시 얻게 된다.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난 일은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쉽게 만들기 원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나를 볼 수 있게 했고 이로써 너희가 이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너희가 나를 인정하게 했다. 내가 너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사랑을 드릴 수 있고, 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너희가 단지 나와 온전하게 연합이 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너희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아멘

의지의 결정.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양심의 소리.

B.D. No. 8332

1962년 11월 19일

자신을 의식하는 단계는 너희가 완성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너희가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또 다시 잘못 사용하면,

너희는 다시 완성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연장시킬 수 있다. 자신을 의식하는 단계 가운데 이 땅에 과정을 사는 너희는 이성이 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너희는 생각을 통해 그들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의지를 향하게 그리고 생각하게 너의 혼을 지배하기 원하는 영적인 세력과 연결을 이룬다. 너의 혼을 위해 부정적인 세력과 긍정적인 세력이 싸우기 때문에 두 가지 세력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너희에게 전하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의 생각에 역사하려고 하고 너희 의지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에 대한 책임이 너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 너희가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내면으로부터 올바른 생각과 의지를 갖게 양심의 소리를 통해 계속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경고자와 권면자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로 하여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깨닫게 하고 항상 선한 쪽으로 너희가 향하게 하려고 한다. 아주 작은 선을 향한 방향이 선한 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결과를 주어 너희의 생각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 편에서 그의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깨닫게 하고 비록 초기에는 단지 작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전한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 일은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너희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에게 영의 나라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세력의 영향에 너희가 복종하는 일은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이 너희를 얻기 위해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 역사할 것이다. 너희 스스로 다시 말해 너희의 의지가 이제 누구에게 너희가 속할지 정한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의지의 결정을 통해 영원을 위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자아는 언젠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자아는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인 인간으로써 실제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혼이 원래 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신적인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혼은 하나님께 귀환을 완성시킬 수 있다. 왜냐면 혼에게 모든 방면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귀환하기 원하는지는 혼이 스스로 정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 혼은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면 대적하는 영이 마찬가지로 혼의 의지를 얻기 위해 싸울지라도 대적하는 영은 혼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의해 사람은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졌다. 사랑이 그가 올바르게 의지의 결정하는 일을 보장한다.

그가 이를 아는 일이 영의 나라의 선한 세력이 계속하여 돕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삶의 나타나는 효과를 그에게 증명하는 지식을 전하게 한다. 그리고 단지 사람의 의지가 결정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 편이나 또는 대적자 편에서 강요할 수 없다는 지식을 전한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단계는 육체의 죽음 후에 들어 갈, 영의 나라에서 혼의 운명을 위해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을 결정하면, 혼은 하나님께 향하거나 또는 대적자에게 속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그의 대적자로부터 제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너희가 이쪽을 택할지 또는 저쪽을 택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생각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올바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런 내면의 음성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는 곧 하나님 자신과 연결되고 그에게 의식적으로 인도함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확실하게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긍정적인 세력이 능가할 것이고 혼을 방해하는 모든 역사를 물리칠 것이다.

자신을 의식하는 사람은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야만 하고 이 존재와 자신을 생각을 통해 사랑을 행함을 통해 연결시키려고 해야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모든 영원까지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는 그의 목표에 도달하는 일이 보장될 것이다.

아멘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는 일.

B.D. No. 8233

1962년 8월 4일

너희가 이 땅의 너희의 순례자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너희의 혼의 성장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나는 너희에게 제공한다. 왜냐하면 단지 나만이 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혼의 완성을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되는 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너희의 자유의지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의 자유의지가 내 은혜를 영접할지 거절을 할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주 의심을 한다. 왜냐하면 사람 스스로 이 땅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의지의 자유를 부인한다.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스스로 정하고 어느 편에서도 가장 깊은 내면에서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정할 수 없음을 너희의 자유가 영향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해줘야만 한다. 이런 너희가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

이런 원하는 것이 이제 진지하게 나에게 향해 있으면, 너희의 혼의 성숙에 이루는데 있으면, 너희는 이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은혜의 선물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올바르게 활용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완성은 보장이 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는 실제 어떠한 삶의 형편이 너희에게 가장 큰 성공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내 의지가 결정을 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잘못 된 길을 가려고 하면, 너희에게 도움을 줘야만 함을 인식하는 가운데 너희의 의지의 방향에 합당하게 너희의 이 땅의 삶에 개입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전적으로 내 의지 아래 두면, 너희가 나 자신을 너희를 생성시킨 권세로 인정하고 너희가 이 권세 아래 전적으로 굴복하려는 자세가 되었으면, 너희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나에게 드리면,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의지와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으면, 너희를 높은 곳으로 아주 확실하게 인도하는 수단이 있다. 그러면 너희의 삶의 운명은 평안하게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은혜의 선물을 영접하고 이 은혜의 선물이 너희에게 단지 축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온 양식과 생명수를 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올바른 양식과 올바른 음료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올바른 혼의 양식을 나로부터 받지 못하는 동안에는 병들고 연약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의 의지가 이에 저항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비추어 주는 것을 다시 허용하면, 너희 안에 빛이 켜지게 될 것이고 너희의 깨달음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영적인 부족함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적인 지식을 모으게 될 것이고 너희의 혼은 강하고 건강할 것이다. 왜냐면 올바른 의사가 너희에게 올바른 약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장해야만 하게 되고 이 땅의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받게 되고 이제 내 말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내 말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의지대로 사랑의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전적으로 나에게 헌신하면, 너희는 전적으로 내 의지를 수용하게 되고 내 말이 너희에게 내 의지를 알려 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시 내 질서의 법칙에 복종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의 원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성품의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원래 초기에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되고 내 자녀로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목적은 진실로 단지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드리는데 너희가 내적으로 나를 인정하는데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너희의 의지를 자신을 위해 얻기를 원하는 내 대적자로부터 멀어지는데 있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결정할지는 단지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속하기를 원하는 주인을 선택해야만 한다. 나는 항상 단지 삶의 형편을 통해 또는 운명적인 사건을 통해 너희를 생성되게 나오게 한 분에게 향하게 하는 길을 선

택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진실로 항상 또 다시 너희를 도와서 너희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 빛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희의 의지에 역사하게 그럴지라도 너희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시도할 것이다. 단지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만이 영원 가운데 영원한 삶을 너희에게 보장한다.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단지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드리는데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해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를 생명으로 불러일으킨 너희 위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으면, 너희는 너희들로 하여금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나로부터 떨어져 있게 한 너희의 내적인 저항을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미 너희에게 내 사랑의 힘을 비추어 줄 수 있게 되고 너희는 이제 나를 아버지로 깨닫게 되고 자녀처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영원히 내 곁에 머물기 위해 이제 축복된 가운데 살기 위해 나와 연합을 이루려는 자극을 내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아멘

전적인 헌신과 의지에 남김 없이 복종

B.D. No. 9026

1965년 8월 5일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에게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모든 능력으로 너의 모든 혼으로 나에게 헌신하려는 결정을 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권한을 가지고 내가 모든 너희 발걸음을 인도해 이 발걸음이 거절할 수 없이 나에게 향하게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의지를 자유의지로 전적으로 나에게 드려 복종하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인 의지의 시험에 합격한 것을 너희는 알게 된다.

전적으로 내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너희의 모든 책임을 면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는 내 의지 안에서 살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선하게 의롭게 행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자유의지로 지키게 될 것이다. 대적자가 너희를 더 이상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내 의지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인생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할 위험이 없어지게 된다.

너희 자신을 단지 전적으로 내 손 아래 두어라. 너희는 너의 헌신으로 전적으로 내 것이 되었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에게 세상의 물질은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물질을 단지 내 의지에 따라 사용할 것이다. 너희는 물질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동시에 자신이 위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이 간단한 길을 너희 모두는 가야 한다. 이 길은 나에게 헌신하는 길이고 내가 항상 너희들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길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에게 전적인 믿음 안에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헌신할 때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를 향한 길을 가게 된다. 이로서 너희는

나 자신을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묶임으로부터 구속자로 깨닫게 된다. (1965년 8월 5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대적자의 권세 아래 빠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너희에 대한 대적자의 능력은 너희가 나에게 전적인 헌신하는 순간에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너희의 결정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그로부터 돌아서서 의식적으로 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너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적자가 너희를 더 이상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너희의 나에게 대한 전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사랑이 영원히 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면, 너희의 무거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너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헌신한 예수 안에서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을 알면, 너희가 이제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너희는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사랑의 비추임을 다시 영접한 것이다.

사랑의 비추임이 없이는 행복이 없다. 너의 운명은 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너희가 최고로 온전한 상태로 나로부터 창조되었지만 이것은 내 역사였다. 반면에 나 스스로 창조할 수 없고 단지 너희에게 모든 능력을 주어서 너의 자신이 스스로 동인이 되어 될 수 있는 내 자녀로 성장해 나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 일을 쉽게 만들어 주기 원한다. 나는 단지 너희의 전적인 나에게 대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너의 모든 길을 평판하게 해서 너희가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고 너희가 항상 단지 내가 너희 심장에 주는 느낌대로 생각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생각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전적인 자유의지로 행하지만 이 의지는 나에게 전적으로 분명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올바른 것 이외에는 원하거나 행하지 않게 된다. 너희는 나로부터 두 번째로 출발되어 나왔다. 너희가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최초의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너의 의지가 도움을 준 것이다. 너희와 내 행복은 계속하여 증가될 것이다. 왜냐면 내 나라는 너희에게 영광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영광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한 것은 어떤 사람도 이를 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도 들은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법칙.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온전함.

B.D. No. 2733

1943년 5월 11일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확실한 법칙성을 증거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되고, 사라지는 일은 그의 여러 단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람들은 모든 과정을 알게 되고, 그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성장과 변화과정을 알게 된다. 이런 법칙성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일을 쉽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이런 결론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지식을 쌓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자연의 법칙을 알게 되고, 자연이 그렇다는 것을 연구할 뿐이고, 그러나 왜 자연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지를 연구하지 못한다. 그들이 자연적인 결과를 목적으로 또는 원인의 목표로 여기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법칙성의 원인뿐만 아니라 목적을 단지 영적으로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모든 자연적인 것들의 영적인 성장이 법칙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인 생명도 확실한 법칙 안에서 성장이 이뤄진다. 다시 말해 영의 나라에서는 단지 의지가 결정적이다. 이런 의지에 합당하게 모든 우주 가운데, 이 땅의 나라와 영의 나라 가운데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의지가 능가할 수 없는 지혜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지는 또한 지속적으로 역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이런 의지가 항상 바뀔 수 없다. 왜냐하면 항상 바뀌는 일은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일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확실한 법칙 아래 있고, 이는 순전히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 이뤄진다. 이로써 영의 나라는 온전함 자체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 이런 질서에 순복하고, 하나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만들기 때문이다.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인도해야 할 이 땅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형체가 된 것이다. 영적인 존재들은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비록 인간이 이런 피조물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파괴하는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런 자연의 법칙을 어길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자연의 법칙을 어기거나 무력화시킬 능력이 없다.

마찬가지로 영의 나라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의 저항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 질서 밖으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운데 머물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존재는 절대로 온전하게 되지 못할 것이고, 이로써 축복과 전적인 조화를 의미하는 영의 나라에 속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러한 영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존재가 스스로 자신을 분리시키지만, 그러나 마침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기까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어떠한 법칙에 따라 계속 성장하도록 강요를 받지 않는다.

이 땅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만 하는 가장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 자연의 법칙은 엄격하다. 자연의 법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곳에서 대부분 죽음과 해체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어떤 일도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창조물 안에, 다시 말해 그의 법칙을 통해 나타나는 존중해야만 하는 한 의지가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법칙은 하나님의 가장 기쁜 지혜와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왜냐면 이런 법칙은 어떤 의미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한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의 원칙은 사랑이다.

B.D. No. 8605

1963년 9월 3일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원래 초기에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질서 밖에 서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부족하고 스스로 최고로 온전하신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 나온다. 이 법칙에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부족하게 될 것이고 잘못되어 정 반대가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은 온전한 상태를 벗어나고 그러므로 불행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계속 존재한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영원한 법칙을 거슬리는 것인가? 단지 사랑없음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질서의 원칙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존재가 사랑을 포기하면, 그의 성품은 반대가 된다. 그러면 한때 신적인 존재와는 반대가 되는 모든 성품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거했던 모든 성품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존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의 대적해 모든 선하지 못한 성품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 반대가 된 자와 비슷하다.

하나님의 근본 요소는 사랑이다. 모든 존재들이 그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은 강요를 하지 않고 모든 창조된 존재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존재들은 스스로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어길 수 있었고 반대되는 생각과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거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일은 이루어졌다. 그들은 사랑이 없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원래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을 때와는 달리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불행하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한때 온전했던 것처럼 온전했던 존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일이 그리고 전적으로 변화 된 생각과 의지가 자유의지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사는 일이 요구 된다.

그러면 존재는 다시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와 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과 그와 하나가 되는 일 만이 바로 축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은 불행이다. 왜냐면 사랑만이 행복과 축복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존재들은 불행한 상태에서 산다. 왜냐면 존재들이 하나님의 질서의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자유하다. 사랑을 한 존재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마지막 시험을 목적으로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며 자신 안에 신적인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랑의 불씨가 사람들 자신이 전적으로 만약에 그가 이를 원하면, 다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존재들은 자유의지로 온전한 상태가 돼야만 한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만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가장 최고의 법으로 남고 모든 영원에까지 남을 것이다. 축복은 단지 사랑을 통해 보장을 받는다. 왜냐면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고 영원한 질서를 벗어난 영원한 시간 동안 자신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 머물고 그러므로 모든 불행이 그로부터 나오는 내 대적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피조물들 온전함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단지 사랑이 이를 수 있는 귀환을 전제로 한다. 항상 또 다시 한때 질서를 벗어났던 존재인 사람들에게 사랑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 그가 자유의지로 자신의 내면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는 안전하게 최고로 높은 축복에 도달한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다시 사랑의 흐름의 영역에 거한다.

그는 계속하여 사랑의 힘을 제공받게 되고 축복된 가운데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이런 축복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이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흐름을 거부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두운 가운데 무능력한 가운데 그러므로 불행한 가운데 산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고 이 상태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어길 수 없고 어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최고로 온전하고 모든 존재가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 그와 하나가 되기 위해 온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올바른 정도의 삶.

B.D. No. 7808

1961년 1월 26일

나도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묶여 있다. 내 성품은 온전하다. 그러므로 모든 특성들이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내 안에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다. 이를 벗어나

는 일은 그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과 같고 온전함을 줄어들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일은 내 성품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이런 내 최고로 온전한 성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나 스스로 절대로 영원한 질서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원칙은 올바른 정도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사랑으로 자신을 합당하게 만들지 않은 내 피조물들을 축복해줄 수 없다. 그러면 올바른 정도를 넘어서고 내가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내 온전함으로 인해 불가능한 일이다. 내 사랑은 실제로 아주 커서 모든 내 피조물들을 제한이 없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원한다. 그러나 내 온전한 성품이 내 사랑에 제한을 가한다. 사랑이 나타나는 효과를 줄인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불행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왜냐면 모든 것이 법칙에 따라 역사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내 질서의 법칙은 영원히 똑같이 남을 것이다. 내 법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는 내 최고의 온전한 성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일어나는 또는 너희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에 깨닫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을 최고의 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으로 여겨야만 한다.

왜냐면 모든 일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내 편에서 어떠한 잘못도 할 수 없다. 내 허용도 만약에 너희가 영원한 질서를 어긴 것을 다시 해결하게 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언젠가 깨달으면, 단지 내 사랑과 지혜를 증거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상태는 내가 너희를 돕기를 원하는 내 사랑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존중한다. 내 최고로 온전한 성품을 증거해주기 위해 사랑의 정도가 알맞아와 만한다. 왜냐면 나도 질서의 법칙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또는 이 법칙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내 온전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모든 연관 관계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는 놀라운 해결책이 주어지는 반면에 너희는 자주 단지 순전히 인간적으로 판단한다. 너희가 언젠가 영의 세계로 들어 가면, 너희는 한동안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었던,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넘치는 감사함으로 돌아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한 가지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 단지 사랑에 근거할 수밖에 없음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사랑으로 원죄를 용서해줄 수 없고 내 공의에 합당하게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올바른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성품이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내 존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사랑이 특별하게 역사하려고 할 때 이 성품들을 맘대로 배제시킬 수 없다. 이 사랑도 자신 안에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 법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인간 예수가 공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큰 죄를 해결하면서 법을 지켰다.

나는 이런 대신 행한 속죄를 영접했다. 왜냐면 내 끝없는 사랑이 이제 법을 어기지 않고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사랑이었다. 왜냐면 빛의 존재가 인간 안에서 이 땅의 과정을 가서 영원한 사랑이 거할 거처를 위해 자신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 속죄를 행했다. 이로써 법을 만족시켰고 영원한 질서를 지켰다. 나는 내 온전함의 어떤 요소도 버리지 않았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속을 받은 혼들은 언젠가 영의 나라에서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내 피조물들을 향해 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이 사랑이 절대로 신적인 질서의 법칙을 여기면서 행하지 않을 것을 깨달을 것이다. 왜냐면 여기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능력이 역사.

B.D. No. 6964

1957년 11월 9일

내 능력으로부터 너희는 생성되어 나왔다.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다. 너희는 비록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귀환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나온 능력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기간 동안에 귀환이 일어날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왜냐면 이 일은 얼마 동안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생성된 존재의 자유의지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일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면 이제 다시 역사하는 능력은 나를 추구한다. 너희 자신은 나로부터 나온,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발산된 능력으로써 동시에 어떠한 죽은 자로 굳어져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고 일할 능력이 없게 된 존재이다.

그러나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라 이 능력은 언젠가 다시 역사하게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나로부터 한때 생성되어 나온 존재들에게 전적으로 자유롭게 역사하게 허락한 반면에 나는 이런 굳어진 능력인 너희 자신을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변형시켰다. 즉 창조물 안에서 능력이 마음대로 역사할 수 없고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다시 복종해야만 하게 변형시켰다.

그러므로 이제 창조의 작품 안에 묶임을 받은 능력은 다시 일해야만 한다. 비록 초기에는 단지 아주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그들의 역사가 증가되게 했다. 이로써 그들의 나에게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능력이 단지 내 뜻대로 일하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한때 창조된 존재가 자신의 의지대로 역사하기 원했다.

그러나 이런 존재의 의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제한이 없이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기 위해 다시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다시 내 의지가 뒤로 물러서게 했다. 이 단계는 한때 분해가 되었던 능력들이 창조물의 과정을 거침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어 나에게 의해 한때 생성된 존재로써 자유의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이제 자유의지가 어떤 방향을 향할지 증명해야 한다.

나로부터 한때 올라 나온 능력의 순환이 이제 거의 종료되었다. 존재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나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 만약에 존재가 내 영

원한 질서를 벗어나 다시 내적으로 나에게 저항하는 상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나로부터 나온 능력이 다시 효과를 내지못하게 하면, 존재는 자신의 능력이 다시 역사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왜냐면 내 신적인 발산은 단지 질서의 법칙 안에서 나와 연합이 된 가운데 내 영원한 원천으로부터 계속하여 제공받음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일은 능력의 역사를 줄게 하고 능력이 나에게 돌아오는 일을 지연시킨다. 그러나 이런 모든 능력이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다. 단지 얼마나 오랫동안 능력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한때 발산 된 존재들이 나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불행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격리를 존재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만약에 존재가 인간으로 다시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존재가 내 사랑과 은혜로 깊고도 깊은 곳을 극복하면, 이런 격리를 해결한 것이다.

왜냐면 나는 강제로 존재들을 나에게 데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나로부터 가장 먼 거리를 극복하게 그들을 돕는다. 그러면 존재는 전적인 자유의지로 다시 자신의 출처를 향해 추구해야만 한다. 인간으로서 존재는 그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하나가 되려고 해야 한다. 한때 발생 된 능력은 힘의 원천으로 다시 돌아 가야만 한다. 연합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면 존재는 영원히 더 이상 중단되지 않을 제한이 없는 축복에 도달한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 인간의 의지의 혼돈과 무질서.

B.D. No. 3599

1945년 11월 11일

구원의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모든 영적인 존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거쳐야만 하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하는 일이 하나님의 법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이전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무질서나 혼돈이나 파괴가 일어날 수 없고, 모든 존재가 법칙에 따라 성장한다. 창조물의 생성과 사라지는 일이 법칙에 따라 이뤄지고, 또한 존재가 자유의지로 행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일은 항상 무질서와 혼돈과 퇴보를 의미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이 땅의 생명체의 생성과 사라지는 일이 법칙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 성장이 중단된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이 자주 성장을 중단시키거나 퇴보하게 한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의지가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 왜냐면 자유롭지 못한 인간 의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는 부족한 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땅에 혼란과 파괴가 일어난다면, 항상 인간의 의지가 역사한 것이고, 그런 혼란과 파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런 혼란과 파괴를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파괴는 이전 단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의 파괴가 자연 재해의 결과인 경우, 즉 인간이 불러일으킨 일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

이 없이 일어난 결과라면, 이런 파괴는 다르다. 그러면 영적으로 파괴를 파괴로 여기지 않고, 창조물의 변형과 갱신으로 간주하고, 다시 영적인 존재의 위로 성장하는 일을 섬긴다. 사람들의 눈 앞에 그런 일은 실제 파괴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또한 사람들의 의지에 이유가 있다. 즉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상태가, 그들의 의지를 바꾸기 위해, 그런 과정을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항상 자신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명백하게 이 질서를 뒤집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의지의 연약함을 증명해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우위를 뚜렷이 들어낸다. 하나님의 겉보기의 파괴역사의 목적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단지 하나님의 법이 이루는 일이, 인간이 순종하는 일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는 법을 배우고, 모든 위반은 위로 성장하는 일을 막는다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 사는 삶이 성공하지 못한 채로 머문다.

단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일이 위로 성장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필연적으로 성취시켜야만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의 법에 전적으로 모두 순종해야만 한다. 즉 자유의지로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높은 곳으로 성장하고, 그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형체를 떠나, 자유롭고 힘이 충만한 영의 존재로써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왜냐면 존재가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모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이제 영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축복 가운데 역사하는 일을 의미한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복종.

B.D. No. 7039

1958년 2월 10일

너희는 축복된 생명을 위해 창조되었고 축복을 체험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죽음의 상태에 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 밖에 거한다. 너희가 스스로 이 법을 어기고 너희를 내 법 밖에 두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상태가 되게 동의한 것이 아니다.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써 나 자신이 항상 단지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모든 신적인 것은 이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의해 창조된 존재들이 밖에 거하는 것을 영원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질서 다시 세우기 위해 영원한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 질서를 세우려고 한다. 존재의 자유의지가 이런 질서의 영역에 속하고 이 때문에 존재가 비로소 내 질서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 질서를 서서히 다시 세우기 위해 먼저 한때 타락해 나에게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의 자유의지를 빼앗았다. 다시 말해 존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존재는 자유롭게 되지 못했다. 왜냐면 존재가 제일 먼저 나를 대적했고 존재를 잉태한 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의 의지를 묶었다.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에게 다시 그의 의지의 자유를 얻게 돕기 원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어느 정도 다시 성장하게 되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때까지 나도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우선 내 뜻에 따라 타락한 존재의 영적인 입자들이 따라야만 하는 과정에 처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질서를 세웠다. 존재는 자유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질서를 벗어난 존재는 이로써 스스로 자신을 존재가 없게 했다. 존재는 단지 굳어진 영적인 입자였다. 때문에 내가 질서의 법칙을 다시 세우는 계획을 존재에게 최고의 완성에 이를 수 있게 돕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이 입자를 사용했다. 이 계획은 한때 타락했던 모든 존재에게 다시 축복된 생명을 보장하는 계획이다. 하나님의 질서 밖에 거하는 것은 실제 내 질서를 첫 번째로 벗어난, 나를 대적하는 영의 소유이다. 그러나 존재는 내 일부분이고 내 일부분으로 남는다. 왜냐면 존재를 생성되게 한 원래의 능력은 나로부터 나왔고 거부할 수 없게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만 하고 이런 일이 신적인 기본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귀환은 다시 법칙을 따르는 길을 통해 일어나야 한다. 비록 초기에 굳어진 영적인 입자들이 다시 서서히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 내 도움을 줘야만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자신을 의식하게 된 존재가 내 질서의 법칙 아래 거할지 또는 자신을 격리시키면서 내 신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새롭게 죽음의 상태를 추구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왜냐면 존재가 이런 마지막 결정을 스스로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존재는 이 결정을 위해 언제든지 실제 내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내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나 축복된 생명은 단지 내 신적인 질서 안에서 가능하다. 왜냐면 축복된 생명은 존재가 원래 초기에 가졌던 온전함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온전함은 자신이 신적인 온전한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제 생명에 도달하기 원하면, 너희는 이 법칙에 복종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를 전적으로 모두 내 의지 아래 뒤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질서의 법칙 안으로 들어선다. 너희는 죽음의 상태를 벗어난다. 너희는 살아 있고 이 생명을 이제 영원히 더 이상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 안의 삶은 정리된 삶.

B.D. No. 3675

1946년 2월 3일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면, 즉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의 이 땅의 삶이 또한 질서 있는 삶이 된다. 그러므로 삶의 형편의 개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고 할 때 비로소 이뤄진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게 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이런 수단은 이 땅의 고난과 환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들 자신이 이 땅의 고난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로써 그들의 삶의 과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을 통해, 그들 자신이 세상 고난의 창시자이다.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삶의 형편의 명백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상태는 견딜 수 없게 머물 것이다. 왜냐면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자세를 통해 크거나 적게 이런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장 큰 무질서와 가장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 이런 형편을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비참함을 심하고 민감하게 느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살기 때문이다. 또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힘을 사용한다면,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헌신하고, 그의 뜻을 수행하고, 따라서 자원하여 종들이 그에 대해 아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육체의 안락함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과 비참함에 처한 사람은 그들과 같은 운명을 바라지 말아야 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혼을 위해 올바른 유익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또한 고난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동시에 그의 혼이 성장하게 된다.

다가오는 때에 겉으로 보기에 개선이 이뤄지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즉 사탄의 종들이 있는 곳에, 항상 번영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고난을 순복하며 짊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위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보상이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인류가 아직 당할지라도, 개개인의 이 땅의 삶은 견딜만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삶이 비로소 이 땅의 질서 있는 삶이 이뤄지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추구하는 사람들을 어려움과 비참함에 놔두지 않고,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들의 혼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추구

하고, 그러므로 항상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돌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 추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삶.

B.D. No. 6063

1954년 9월 23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때 단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영적인 존재가 창조물 안에 묶여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존재는 단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의무의 법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성숙하게 되고 인간의 단계에서는 영적인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함을 받지 않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일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고 인간의 의지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율법을 반하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고 이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사는 일은 전혀 사랑이 없이 이 땅에서 사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면 인간의 혼인 영적인 존재가 지금까지 도달한 영적인 성숙의 정도가 위험하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이제 깊은 곳으로 빠질 수 있다. 즉 영적인 존재가 끝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수행해야만 했던 섬기는 일을 통해 성장해 빠져나온 깊은 곳으로 빠질 수 있다. 인간의 단계에서 자유의지로 실패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저항하면 끝 없이 긴 성장의 길을 다시 가야만 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인간은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보다 유리하다. 왜냐면 인간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 기간에 대한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면 그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가 이루는 성장 정도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짧은 이 땅의 삶의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왜냐면 이전의 성장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는 일을 위한 전제 조건에 도달한 일이 영적인 존재 자신의 공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제 이런 은혜의 선물을 합법적으로 얻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은 그가 자유의지로 이제 자신이 묶임을 받은 의지로 해야만 했던 같은 일을 행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그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거하는 기간은 단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그에게 아주 많은 은혜가 제공되어 그가 실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의지의 자유를 보장받아야만 하고 그는 이 땅에서 강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정함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그의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의 댓가가 빛과 힘을 가진 전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을 포기하고 이로써 그가 한때 자발적으로 떠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에게 모든 도움을 줄 것이고 그가 의지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런 은혜를 활용하고 올바른 길을 택하고 사랑의 길을 택하고 이로써 그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는 그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이 이 땅

의 삶에서 축복된 영원한 삶이나 또는 묶임을 받는 상태가 되는 자신의 운명을 정한다. 묶임을 받는 상태는 영적인 존재에게 아주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상태는 빛과 힘과 자유를 가진 가운데 창조되었고 단지 빛과 힘과 자유 가운데 축복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의 원래의 성품과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이다.

아멘

영원한 질서는 사랑이다. 사탄의 역사.

B.D. No. 6385

1955년 10월 25일

단지 사랑의 원칙에 합당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생각하는 일과 행하는 일을 사랑이 정하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내면에 간직하는 일은 항상 단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한 일이고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삶은 또한 비록 그의 주변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김으로써 전혀 사랑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의 주변이 무질서에 빠질 수 있을지라도 다시 말해 사랑이 전혀 없는 삶을 살지라도 사람 자신은 항상 이 땅의 삶을 질서 있게 사는 결과를 가져온다.

영원한 질서를 어기고 사랑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삶은 혼란 된 상태가 나타나야만 하고 절대로 평안이나 조화가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그런 곳은 사랑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실제 세상적으로 정리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을지라도 이는 실제 잠시 동안 이런 사람들의 심장의 무질서를 속일 수 있게 될 것이고 내면의 평온이나 평안은 절대로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대적자가 더 많이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항상 새롭게 사랑 없음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는 이웃에게 항상 더 심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할 것이다. 그는 아마 가면 아래 자신을 숨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진실 된 얼굴을 항상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서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대적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는 모든 것을 가리는 법을 알고 그는 영원한 질서를 어긴 특징을 감추는 법을 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영원한 질서를 어긴 어떤 일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는다. 반면에 그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랑 없음과 차가운 심장을 통해 자신들을 그에게 속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로부터 모든 방식으로 제공을 받는다. 그러나 제공받는 것은 항상 세상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은 또한 이로써 만족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주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적인 성취를 구하고 사랑이 없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 이런 성취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질서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이 땅의 상태는 현재의 상태와 다른 상태가 될 수 없다.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이 땅의 상태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자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이 땅의 상태는 현재의 상태와 다른 상태가 될 수 없다.

이 땅의 혼란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것이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랑의 원칙이 자신을 지배하게 만들고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결을 이룰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항상 단지 법을 어기는 삶의 방식의 결과로써 법칙에 따라 일들이 일어나면,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일이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 때가 오게 된다면, 그들을 보호하고 강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증명될 것이다. 왜냐면 항상 사랑의 질서 안에서 살고 이 사랑을 행하고 항상 영원한 사람과 연결된 사람은 사탄의 권세와 사람들의 사탄적인 역사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자신의 주변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의 내면에는 능력과 빛과 강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를 기다린다. 왜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삶이 그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대적자의 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평안의 영역에 거한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모든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이제 아직 하나님과 영원한 질서에 저항을 하고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죄. 죄의 고백과 용서.

B.D. No. 5181

1951년 7월 31일

하나님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어기는 일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힘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일은 능력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능력을 잃게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대를 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일은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불의를 깨닫는 상태에서 행하는 일이 죄이고, 인간이 죄를 지으려면 옳고 그름을 알고 그가 잘못으로 인정한 일을 자유로 행해야만 한다.

이런 정의가 중요하다. 왜냐면 죄의 용서를 위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단지 느낄 수 있는 깊은 회개를 요구하고,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죄는 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용서받기 원하면, 죄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죄의 고백은 깊은 회개와 결합이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 일은 단지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인간이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사람이 죄로 정한 범죄는 실제 인간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에는 속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절대로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일은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할 수 없다. 반대로 사랑의 계명과 모순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근본 법칙이고, 이런 근본법칙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항상 이런 근본법칙을 표준으로 삼으라.

사람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죄는 속죄를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죄를 죄로 깨닫고 혐오해야만 하고, 사람이 또한 무엇이 죄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어겼는 지, 언제 어겼는 지, 자신이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 지, 언제 지었는 지를 알아야만 하고, 그는 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야만 하고, 그에게 그의 피로 인해 용서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영원한 질서를 어김. 예언의 성취와 마지막 심판.

B.D. No. 4991

1950년 10월 31일

중 말은 마지막 심판과 함께 피할 수 없게 다가 온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부터 내 지혜로 사람들의 의지와 그의 의지에 합당하게 전혀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깨닫기 때문이다. 내 영원한 법은 지속적으로 위로 성장을 요구하고, 이 땅에서 그리고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법에 따라 일어난다.

내 영원한 법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스스로 옛 질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고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영원한 질서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물질적인 창조물들도 다른 형체 안에서 다시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분해가 된다. 마찬가지로 나의 질서를 떠난 사람들도 다시 나의 영원한 질서에 합당한 상태로 바뀌게 된다. 즉 인간 안의 영적인 입자들이 자신의 성장상태에 알맞는 외적인 형체를 덧입고, 그는 인간의 상태를 잃고 그가 이미 오래전에 극복했던 외적 형체 안으로 다시 묶임을 받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목적 잘못 깨닫고 전적으로 자신들의 세상 삶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영원한 원래의 법칙인 사랑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의심할 수 없게 확실하다. 단지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 장소의 역할을 해야 할 땅이 그의 목적을 전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땅은 옛 형태로 더 이상 계속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땅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나에게 의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창조물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너희들도 살고 있는 이 땅이 우주 가운데 전적으로 불법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땅은 단지 퇴보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그러면 지구의 거주자들은 대적자의 손에서 놀아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땅에서 단지 대적자의 뜻은 관심을 받고 내 뜻은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전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돌이킨다면, 그들은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나에게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한 도움을 청할 것이다. 나는 진실로 이 땅을 파괴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나의 아주 큰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내가 종말이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하지 안 했을 것이다. 왜냐면 선한 의지와 진지한 나를 추구하는 일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원 전부터 내가 예견한 일들도 취소가 되었을 것이고, 나는 단지 목표에 도달하도록 너희들 돕기 위해 항상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이런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영원한 계획은 실행돼야만 한다. 내가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대로 성취되어져야만 한다. 종말을 미리 본 선견자와 선지자들은 또한 사람들이 어디를 향할지를 미리 보았고, 나의 아주 큰 인내가 이 땅을 아직 이런 운명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왜냐면 사람들의 심장을 알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의지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작아 질 것이다. 그러면 오래가지 않아 분명하게 두 가지 무리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에게 속한 무리는 아주 적게 되고 이로써 종말을 감지할 수 있다. 왜냐면 단지 마귀가 세상에서 살게 되면, 세상이 전적으로 질서의 법에 벗어난 것이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질서의 법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볼 수 있는 세상의 창조물들에게 단지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지막 성장과정을 잘못 사용하고 또 다시 영원한 질서의 근본 법에 대항하고 사랑에 대항한 사람들도 멸망을 받아야만 한다.

예언된 일이 취소되지 않고 이뤄질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의지를 바꾸어 개선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아래를 향해 추구하고, 나를 택한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시도한다. 나는 이를 막는다. 왜냐면 내가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생성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다시 영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법이고 법으로 남는 질서 속에 살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사랑 안에서 살고 진실로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영원한 질서에서 벗어나려면 창조물의 해체가 필요하다.

B.D. No. 5139

1951년 5월 29일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질서를 도입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영원한 질서의 법에서 멀리 벗어났고, 삶의 방식에 작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인 사랑의 법을 자원하여 복종해야만 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는 정도 이 법을 준수하는 지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너희의 답변은 적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도 계속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영원한 질서를 벗어나 피할 수 없게 깊은 곳으로 인도한 잘못된 길로 들어선 하나님과 반대의 상태가 된 피조물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영원한 내 질서 안에서 사는 존재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더 분명하게 영원한 질서를 위반할수록 너희의 존재가 더 많이 위험하게 된다. 너희가 세상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너희에게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너희가 서있는 땅이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이 땅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아주 곧 흔들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견고한 땅 위에 서야 한다. 너희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성취하면서 입법자인 나를 닮게 된다. 나는 사랑으로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했고 그러므로 사랑이 최고의 질서이다.

너희가 내 사랑의 법을 성취시키기 원한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이미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게 될지를 아느냐? 조화롭고 평화로운 생각과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일과 이웃과의 행복하게 함께 하는 삶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축복되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 사랑에 기반을 둔 영원한 질서의 법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반대는 너희의 법을 어기는 자세이고 이런 자세가 피할 수 없게 멸망으로 인도한다. 왜냐면 사랑은 건설하고, 사랑없음은 무너트리기 때문이다. 사랑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일을 보장하고, 사랑없음은 일시적인 상태가 되게 하고, 이런 상태가 영적인 존재가 영원히 살기 원한다면, 영적인 존재가 성취시켜야만 하는 영원한 질서를 따르는 변화를 증명할 때까지 일시적인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므로 영원한 질서를 벗어나는 일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와야만 한다. 왜냐면 영원한 질서를 벗어나는 일이 또한 나를 완전히 떠나는 일을 의미하고, 이로써 피할 수 없게 영적인 입자들이 굳어지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은 절대로 무력하게 만들 수 없고, 굳어진 영적인 입자들을 새로운 창조물 안으로 다시 파문하기 위해 이 땅의 창조물이 해체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완전한 변화가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야만 하거나 또는 영원한 질서의 회복을 위해 창조물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고 이로써 영원한 질서가 회복돼야 한다. 너희가 너희의 목표대로 나와의 연합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영원한 질서대로 살아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B.D. No. 5969

1954년 6월 5일

너희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흘러 내려온다. 너희가 그와 연결되기 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의 결심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즉시 그의 은혜가 너희를 사로잡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분께 더 가까이 나아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의 은혜는 그가 그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보증이다. 너희의 인간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너희에게 쉽게 될 것이다. 은혜는 영적 상승에 모든 도움이 되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한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한다. 그러나 너희를 그에게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5. 6.)

너희는 그의 도움, 그의 은혜 없이 이 질서에 들어가기에는 정말 너무 약하다. 왜냐면 너희의 욕망은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본질은 너희가 하나님의 질서 밖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것과 같으므로 너희도 그와 멀리 떨어져 있다. 끝 없는 행복을 주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너희는 그에게 다시 가까이 와야 한다. 너희는 처음에 있었던 그대로 다시되어야 한다. 너희는 모든 약함과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므로 그는 항상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지원할 것이다. 그는 절대로 너희를 너희의 장치에 맡기지 않고 너희에게 은혜로 샤워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 여부와 방법은 항상 너희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그의 이 땅의 삶의 과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질서에 다시 들어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그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로 무력한 상태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를 붙잡아 끌어 올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힘이 그를 채우고 이제 그에게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아멘

세계 대전의 끝.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

B.D. No. 2803

1943년 7월 8일

□ | 움과 시기가 사람을 채우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 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면 미움과 시기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처럼, 모든 질서를 파괴해야만 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미움과 시기는 절대로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없고, 항상 파괴적인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나 그런 파괴적인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일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무질서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런 상태를 끝낼 것이다. 그럴지라도 이런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깨달은 일이다.

인류 자신이 전 세계에 고통과 끝없는 비참함을 가져오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다른 방식으로 끝나야만 한다. 그러나 이 땅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인류에게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옛 질서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의 추구하는 이웃사람의 재산을 위해 가장 끔찍한 무기로 싸우는 이웃사람의 재산을 포기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만 한다. 왜냐면 세상의 재물을 대한 집착이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끝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대전은 인간에게 세상적인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규모의 엄청난 세상적인 손해를 끼친다. 왜냐면 모든 승리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재물과 인간의 생명의 손실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는 이런 손실에 대해 무감각하고, 인간의 의지가 초래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의지 자체가 개입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자신들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자신들을 조종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느낀다면,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을 비로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이 처한 영적인 어두움이 그들의 사랑이 없는 행동의 원인이고, 그들의 사랑이 없는 행동이 다시 어두움의 원인이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깨달음이 그들에게 번개처럼 떠올라야만 하고, 그들이 잘못된 목표를 쫓고,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깨달음이 그들에게 번개처럼 떠올라야만 한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더 높은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아직 멀리 떨어진 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그들에게 이런 번개 같은 깨달음을 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생각해보는 일을 통해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들이 모든 일이 인간이 예견할 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일을 볼 때, 생각을 하도록 자극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의지가 불러 일으킨 일은 영적인 혼란이고, 또한 세상적인 혼란이고,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점점 더 커져, 최종적인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

은 성취하기 위해 추구하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인류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파괴가 진행되는 과정을 멈추게 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인류가 하나님의 대적자의 뜻에 복종하고, 생각과 행동이 점점 더 사랑이 없게 되는 때가 왔다. 하나님의 개입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비록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될 것이지만, 사람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되돌리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경에 예고된 것처럼,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없는, 최종적으로 멸망 받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진다.

아멘

화산의 폭발. 자연의 권세. 하나님의 질서.

B.D. No. 3380

1944년 12월 27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 발생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한 일의 결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영원 전부터 결정된 사건이 준비되고 있다. 이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왜냐면 인간의 의지를 통해 자유롭게 된 세력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인간의 행동에 의해 공격을 당하는 세력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동의를 받는 어떤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주 가운데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이나 허용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 영적인 존재의 성장이 방해받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준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힘들이 그들의 중단된 성장과정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역사하여 굳은 물질을 파괴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의지에 의한 파괴와 파멸의 결과로 이 땅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아직 상상할 수 없는 권세로 일어나는 분출이 쉬지 않고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일은 인류와 또한 이 땅의 창조물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하나님의 법은 자신이 창조한 것을 유지하거나 적절하게 성장하게 하는 일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창조된 것이 해체되거나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포로 떨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나온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낮은 성숙한 정도에 도달하여 어두움의 세력에 굴복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들은 이웃을 향한 맹목적인 증오로 창조물을 파괴하고, 심지어 아직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분노한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불법적으로 형체로부터 해방되는 일을 자유롭게 된 것으로 깨닫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자유로 격동하며 분노한다. 인간의 의지가 아직 성장의 시작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의 나라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영적인 존재가 복수를 한다. 이런 일은 큰 영적인 혼란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단지 희귀

하게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정도로 허락하는 일이다. 단지 짧은 시간 동안 권세들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다.

하나님은 해방된 영적인 존재를 다시 묶어 더 이상의 격동과 격노를 막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남은 인류가 다르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영적인 존재에게 자유를 허용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를 깨닫고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이 하나님의 멸망의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의 회복을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경고이자 가르침이다. 이는 비록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류 가운데 가장 깊은 악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한다.

B.D. No. 5990

1954년 7월 1일

세상을 정화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마지막 날이 오면 사람들을 분리하기 원한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다시 일어나고, 그러므로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영의 온전함을 다시 섬기기를 바란다. 언젠가는 평화가 다스리기 원한다. 그 낙원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열릴 것이다. 나는 사탄이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속박에 빠뜨 렸고, 오랫동안 무력한 그의 추종자들도 추방함으로써 그를 모든 권세와 힘을 폭로한다. 오랫동안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고 나에 대해 분노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멈추고 내 힘과 의지에 반대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 평화와 질서의 시간, 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과 하나님의 조화의 시간이다. 창조물에 있는 영적인 경계를 위한 급속한 성장 발달의 시간. 이 시간 동안 나는 분명히 나와 접촉하게 된다. 나는 그들 사이에 머물며 더 큰 행복을 촉발할 것이다. 평화는 사람들의 심장에 거할 것이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들을 억압하고 평화를 앗아 갈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이 생겨나 고 내 사랑과 힘과 영광이 모든 면에서 드러난다. 세상은 새로워 져야 하고, 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죄와 죽음에 의해서만 지배되고 따라서 사탄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영적 상승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영원으로부터 내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영의 학교가 다시 만들어 져야 한다. 이 땅의 자녀들이 성공으로 성장의 길을 마칠 수 있는 곳이다. 인간의 의지는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모든 것을 그릇되게 만들었다. 인간의 의지는 내 법을 영원부터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해를 끼치며, 아직 묶여있는 영적인 해를 끼칩니다. 인간의 성장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필연적인 상태에서 이 영적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전환점, 곧게 펴고 재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일은 인류와 구원받지 못한 영을 축복으로 섬기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깊숙이 버려 질 것이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어야 하고, 속박과 폭력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증오만 표현된 곳에서 사랑이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과 행복은 사탄의 세계 속에서 죄와 억압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때 찾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다.

아멘

하늘의 아버지의 진지한 말씀. 의사. 의약품.

B.D. No. 6084

1954년 10월 20일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은 진실로 너희 혼을 치료하고 이를 통해 너희 혼이 건강하게 될 수 있고 축복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약품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즉 너희가 실제로 이 약품의 치료하는 능력을 알지만 그러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가 내 말을 실제 듣지만 그러나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이로써 내 말의 능력이 너희에게 역사할 수 없게 되면,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너희는 아주 효과 있는 약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약품의 효능을 시험하지 않고 너희 혼의 의사로써 내가 너희에게 조언하지만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이로써 너희가 좋은 의사를 만났지만 너희는 건강하게 될 수 없다.

너희 의지가 내가 너희에게 조언해주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참한 상태에 머물고 너희 혼의 위험은 줄어 들지 않는다. 너희가 혼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혼은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혼의 고통은 세상적인 위험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세상적인 위험으로 너희가 너희 삶의 방식이 올바르지 않고 너희 혼에게 위험하므로 혼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만 한다는 생각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단지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혼이 내 수단을 영접하기 원하지 않으면, 혼은 질병과 비참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고 영의 삶을 기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단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내 말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면 비로소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일하면 너희 자신이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이는 너희의 혼이 건강해지는 일을 의미하고 빛과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의 상태를 의미한다. 나는 너희 모두가 이렇게 되도록 돕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내 말이 심장 안에서 역사하게 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강하게 권면한다.

나는 너희가 혼의 생명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너희가 혼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능력을 즉시 혼에게 제공하도록 너희에게 권면한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성취시키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기에 너무 연약하면, 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권면한다. 너희가 단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도움을 청하고 너희가 심장으로부터 나를 부르고 너희의 연약함을 내 앞에서 인정하면, 나는 너희에게 능력을 준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육체와 혼이 병든 너희를 너희 운명에 맡겨두지 않고 구원해주기 원하는 너희의 의사이고 너희를 돕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멘

풍 부한 보물이 너희에게 제공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이 보물을 지나간다. 그들은 이에 관한 모든 언급을 듣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측면에서 너희에게 삶의 임박한 변화에 대한 지식이 주어진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믿지 않고, 아직 마지막 은혜의 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할 시간은 지나간다. 너희 사람은 이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 너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너희의 귀에 도달하는 내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할 정도로 이 음성이 크게 소리 나게 한다. 그럴지라도 너희의 의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음성을 존중하도록 강요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말을 의미하는 때가 온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원하여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이 살고, 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그들은 어떤 영적인 힘도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그들의 이 땅의 삶은 완전히 무의미하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영원을 위해 활용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그 자체에 목적이 있고, 그러므로 나의 영원한 질서에 위배된다.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종말이 오게 한다. 이로써 이 땅이 다시 생성되게 하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이 계속될 수 있게 한다. 나는 다시 나의 피조물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나의 사랑의 힘을 그들에게 흐르게 할 수 있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임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때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크고, 종말이 생명과 죽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통 받아야만 하거나 또는 축복될 수 있는 혼에게도 생명과 죽음을 가져다 준다. 너희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스스로 준비하라. 너희가 내 일꾼을 통해 듣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너희가 사랑을 행하라는 재촉을 받으면, 저항하지 말라.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일이 유일하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고, 너희 혼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 주변의 고난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하라. 자기 사랑을 뒷전에 두라. 너희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돌리고, 그를 도우라. 그러면 너희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또한 너희의 삶을 더 잘 활용할 것이고, 너희는 죽음을 향한 생각과 혼이 계속하여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스스로 올바른 길로 인도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 안에 책임감이 자라고, 너희가 너희 혼의 구원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 자신을 위해 경고해주기를 원한다. 너희는 너희의 혼을 생각하라. 혼의 행복에 육체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라. 너희가 단지 빛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나를 추구한다면, 내가 육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남아있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너희는 선한 의지로 말할 수 없게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나를 믿고 내 뜻을 성취시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돕기 때문이다.

죽음 후의 삶을 생각하라는 진지한 경고.

B.D. No. 5180

1951년 7월 29일

나는 이 땅의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죽음 후의 너희의 혼과 너희 상태를 생각하라고 부르짖는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의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후에 무엇이 오는지 생각하라는 목적으로 아주 어려운 전환점이 너희에게 다가 오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전환점을 알려주기 원하고, 모든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알려주기 원한다. 너희가 비록 현재에는 믿기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가 현재 아직 진지한 진리를 환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버릴지라도, 때가 되면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는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너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쉽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게 된다면, 끔찍하게 놀라는 때가 오기까지 단지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 너희는 삶을 잘못 활용하고, 쓸모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혼을 생각하여 혼이 저 세상에서 빛과 능력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평정심을 가지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일이 단지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 혼이 어떠한 상태로 영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는 너희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항상 너희에게 너희의 생각이 실제 악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영의 나라에 합당하게 되기에는 너무 세상적인 너희의 생각을 바꾸도록 긴급하게 경고한다.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처럼 나는 나에게 속한 이 땅의 자녀들을 부른다: 너희 혼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의 실제적인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종말이 되기까지 시간이 단지 얼마 없기 때문에 서두르라. 더 늦기 전에 너희를 변화시키라.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떤 운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하라. 혼의 생명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산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만든 상태에서 혼이 계속 산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 가운데 너희 혼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너희 자신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결과를 짊어져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가 삶을 잘못 사용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운명을 맞이해야만 한다. 너희가 믿음과 사랑이 없이 산다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내 계명을 성취시키지 않고, 너희가 단지 세상을 위해 살고 그러나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영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면, 너희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고, 너희는 거부할 수 없이 영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한다. 영의 나라에 아주 서로 다른 영역이 있다. 너희의 성장 정도에 따라 혼에게 최고로 행복한 영역이 있고, 가장 큰 고통을 의미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의 성장 정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는 너희가 너희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너희를 변화시키도록, 너희가 너희 혼의 영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이 땅의 삶을 뒤로 하도록, 높은 곳으로부터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요청한다.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내 부름을 들으라. 스스로 생각해보라. 더 늦기 전에 돌이키라. 왜냐면 내가 항상 또 다시 예고했던 날이 거부할 수 없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활용하고, 너희 혼을 돌보라. 그래서 너희가 앞 두고 있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라.

세상을 향한 심각한 경고.

B.D. No. 6761

1957년 2월 14일

아직 세상과 유대가 너무 강하고 세상을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자신의 이 땅의 과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내 말씀은 항상 의심을 받을 것이다. 내 말씀은 세상을 멀리하도록 요구하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자극을 극복할 것을 요구한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자극은 끝이 없이 많다. 너희가 이제 이런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 혼에게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는 기쁨이 너희에게 단지 남게 되고 영적인 종류의 즐거움을 향한 혼의 갈망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혼은 절대로 부족하게 되지 않고 단지 내 대적자가 아니라 나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가 제공하는 것을 더 잘 받아드리고 사람들의 감각을 사로잡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가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면서 거부한다. 왜냐하면 내 말씀이 그들의 욕망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육체적인 욕망이 자리를 잡고 이를 물리치지 않고 인간의 눈이 단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을 만끽하거나 또는 세상적인 이익이 사람들이 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유혹하면, 나와 모든 연결이 느슨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대적자가 나와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 내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내 말씀에 대해 열린 귀를 너희에게 주는 반면, 아직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듣고 내 말씀에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말씀이 그들이 버리기를 원하지 않은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아직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다. 그러므로 축복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아무리 경고를 받아도 충분히 받을 수 없다.

죽음 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경고를 단지 비웃을 것이고 세상이 그에게 제공하는 기쁨을 얻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죽음 후의 삶을 위해 이 땅의 삶을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그들은 단지 짧은 시간 동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행복과 축복과 빛과 힘과 자유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내 훈계와 경고를 더 많이 들을 수록 그들은 내 말씀을 더 깊게 행복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만 그러나 아직 세상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받아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이 땅에서 내 대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이 내 말씀을 의심한다면, 이런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 대부분이 또한 아직 세상에 묶여 있고 그들은 아직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도 아직 그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내 대적자에 붙잡혀 있고 이로써 내 순수한 말씀이 그들에

게 전해지면, 그들에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 이런 일은 단지 내 이름의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영적인 관심을 아직 세상적인 관심과 너무 많이 연결시키는 사람들과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아직 아주 많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대적자의 나라이다." 라는 말을 해야만 하고 너희가 내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위해 세상을 버려야만 한다는 말을 해야만 한다. 즉 세상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말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 말씀이 너희를 깊이 감동시킬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하늘의 빛처럼 너희를 위해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직 세상의 속이는 빛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 너희는 절대로 자원하여 빛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 말씀은 순수하고 밝은 빛이고 세상을 극복하고 모든 감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장 안을 비춘다.

아멘

파괴를 통해 영적인 입자가 자유롭게 되는 일.

B.D. No. 7595

1960년 5월 6일

나로 하여금 너희를 인도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너희 이웃을 위해 자신들을 돕게 허용하는 혼들을 위해 성공하게 하는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진실로 내 일꾼인 너희를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올바른 장소에 배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아주 서로 다르다. 내 일꾼의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모두가 자신의 능력이 나를 위한 섬기는 일에 필요한 곳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큰 구원의 역사가 이뤄지고 있다. 모든 우주가 여기에 해당 된다. 때문에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가오는 변화를 느끼고 이에 대비한다. 악한 영의 존재들은 더 증가된 힘으로 분노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악한 의지는 더 강해지고 그들이 단지 할 수 있는 곳에서 해를 입히려 시도한다. 그러나 선한 영의 존재들도 쉬지 않고 이런 역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한다.

나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의 나라에서도 내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일을 지원할 것이다. 성숙한 영의 존재들과 성숙하지 못한 영의 존재들이 서로 간에 싸울 것이다. 이 싸움은 이 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통수권자로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편에서 항상 승리하고 이 싸움은 끝날 것이다. 스스로 영적인 추구를 하고 선한 세력에게 자신을 여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느낄 것이다.

왜냐면 이런 흐름은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이 나 자신인 모든 곳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종말은 그의 그림자를 미리 비춘다. 누구도 이 전에는 가능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이 파괴는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왜냐면 혼의 원수가 믿는 대로 영적인 존재들을 자신을 위해 얻기 위해 물질을 파괴해 영적인 존재들 자유롭게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원수는 그 자신이 모든 물질을 파괴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괴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자유롭게 된 존재들이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존재들이 다시 새로운 형체 안으로 묶임을 받는다.

그러나 파괴되는 일은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비참함을 줄 것이다. 이런 일은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의 곁형체가 바뀌어 새 땅에서 가벼운 형태 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도 그들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 한다.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이런 특별한 방식과 특별한 범위로 일어나는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 스스로 창조작품을 파괴하는데 기여한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입자들을 그들의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입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형체를 벗어나야만 함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입자들이 자유로운 동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공격을 받는 것을 느낄 것이고 불안하게 된 원인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다시 이런 영적인 존재를 새로운 형체 안으로 묶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의 영향 아래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런 파괴의 역사는 내 대적자로부터 나온다. 그는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활용할 줄 알고 물질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파괴의 역사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적자는 이 가운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왜냐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물질적인 의미라 할지라도 그들의 건설하려는 욕망 가운데 스스로 다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새로운 형체를 받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나를 섬기기 원하는 너희는 모든 이런 과정들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이웃을 물질적인 길로부터 영적인 길로 인도하려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필요 없다.

이런 일은 너희에게 많은 수고와 일을 요구한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던, 축복된 시작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내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은 너희의 능력에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일을 하길 원하는 것이 이미 너희에게 내 축복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빛의 존재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우주 가운데 구속하는 일을 행하고 항상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종말에 대한 진지한 경고의 말씀.

B.D. No. 7211

1958년 11월 19일

너희가 크게 또는 적게 당하게 될 어려운 운명적인 일들을 대비하라. 왜냐면 종말이 항상 더욱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종말이나 또는 이 땅 전체가 맞이하는 종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모든 사람에게 역사해야 한다. 그들이 종말을 대비하게 단지 진지하게 경고받아야 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너희가 무슨 일을 앞두고 있는지 나 자신으로부터 들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씀을 심장에 담고 순수한 진리로 영접하고 너희 삶을 이에 합당하게 살면, 너희는 잘한 것이다. 이런 경고와 권면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면서 영원 가운데 너

희 혼의 상태를 정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이런 경고와 권면을 약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항상 또 다시 높은 곳으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내 말을 지키라.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가 깨달음을 얻게 돌보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진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이 그의 혼을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말해주는 사랑의 증거로 여겨야 한다. 나는 누가 내 말씀을 받아들일지 안다.

나는 내 말씀을 심장 안에서 역사하게 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그들이 귀가 먹고 소경이 된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다가오게 될 다가와야만 하는 일을 갑작스럽게 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당하지 않게 한다.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이미 오래 전부터 깨달았던 것을 알려주면서 설명해주는 일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앞두고 있는 오래가지 않아 다가올 마지막 종말을 그들에게 예고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사랑과 긍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놓친 것을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을 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전에 모든 계시를 믿을 수 있다는 내가 자연적인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쉽게 이를 의심하려는 경향이 있는 너희 사람들에게 주는 증거를 받는다.

내 계획으로 결정이 된 것은 변경될 수 없게 성취 된다. 그러나 내 계획은 모든 지혜로 생각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방식이나 일어나는 때에 관련해 나에 의해 버려지거나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영접하고 내 말에 합당하게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산 삶을 후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세상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전적으로 무익한 것으로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진지하게 영적인 재물을 얻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 모두가 영적인 재물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에게 주어진 내 말씀의 진리성을 믿으라.

그런 후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부르는 시간이 임하면, 너희가 내 앞에서 합격할 수 있기 위해 어떠한 진지함으로 너희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하는지 생각하라.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름 받는 시간이 언제 너희에게 임하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모두에게 이 시간은 너희가 믿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항상 또 다시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너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주는 것만을 유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라. 너희가 종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항상 더욱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말이 임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아멘

너희 모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가고 말할 수 없이 축복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귀환의 시점은 너희가 스스로 정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하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의 나라의 영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너희 자신을 형성하게 너희를 자극하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빛이 없이는 축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가는 일은 빛과 능력과 자유함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귀환에 걸리는 기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귀환을 다시 끝 없이 길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이를 막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하고 너희에게 너희의 퇴보가 주는 큰 고통과 처량함을 눈앞에 똑똑히 보여준다. 나는 이에 대비해 내 나라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나는 너희가 모든 진지함과 열심으로 내 나라를 추구하게 하기 원한다. 왜냐면 너희는 언젠가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묶인 상태에서 위험과 고통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면, 빛과 자유 함에 도달하는 일이 가능했다. 너희는 무관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마치 끝나지 않는 이 땅의 삶이 주어진 것처럼 너희의 매일을 살지 말라. 너희에게 단지 짧은 시간만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 시간이 너희를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에 충분함을 생각하라.

이 시간은 실제로 너희의 아버지를 향한 유일하게 너희가 축복될 수 있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급히 달려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에 충분함을 생각하라. 이런 짧은 시간을 너희의 혼의 구원을 위해 활용하라. 너희가 곧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

왜냐면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시간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은혜의 시간은 큰 의미가 있다. 왜냐면 이 시간은 너희를 축복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너희의 자유의지가 추구해야만 한다. 너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단지 아주 짧다.

그러나 너희의 혼을 전적으로 영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전적으로 실패해 새롭게 새 땅의 창조물 안으로 묶임을 받으면, 너희의 새로운 싸움은 끝 없이 긴 시간이 걸린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너희 자신을 내 형상에 합당하게 조성하고 형성시키기 위해 살 수 있고 너희가 내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넘치는 은혜임을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로 이를 원해야만 하고 너희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야만 한다. 그는 진실로 목표에 도달하게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정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너희의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을 정한다. 왜냐면 너희 혼자서는 너희 발걸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돕는다. 너희가 단지 그를 부르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 안의 나 자신을 깨닫고 이로써 너희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나 자신과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날마다 너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기 위해 너희의 부름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너희가 즉시로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능력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너희가 짧은 시간 안에 영원히 빛과 자유 가운데 축복되기 위해 너희의 곁형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나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실패하면, 무관심하게 큰 위험 가운데 있는 너희의 혼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세상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영원히 자유가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종말이 임하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기대하지 않게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의지가 정한 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진지하게 언제든지 자신이 삶에서 부름받을 때가 옴을 알고 살아야 한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미 이루고 그의 이 땅의 삶을 위한 능력을 자신의 혼의 형성을 위한 능력을 나로부터 받을 수 있게 살아야 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육신을 입었고 예수는 내 곁형체였다. 나 자신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할 수 있었고 나는 그와 연합이 되고 그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그 안에 있었고 그는 내 안에 있었다. 그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깨닫는다. 그는 그의 죽음 후에 그의 아버지의 집의 나에게 귀환할 것이다.

아멘

진지한 진리를 향한 갈망.

B.D. No. 7559

1960년 3월 26일

순수한 진리를 받기 위해 순수한 진리를 갈망해야만 한다. 진리를 갈망하는 것은 기존의 지식을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고 자신을 전적으로 비우는 것이고 이제 단지 나 자신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순수한 진리를 나에게 구하는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 자신이 단지 진리를 전할 수 있고 진리를 통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내용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수많은 영적인 방향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단지 하나의 진리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 동안에는 모두가 진리에 서있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해야 한다.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전해진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의 근원을 먼저 헤아려 보려고 해야 하고 순수한 진리를 찾을 수 있게 자신의 생각을 일깨워 주길 항상 나 자신에게 구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갈망해야만 한다.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모든 심장으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을 보살피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피조물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길, 그들이 올바른 생각하길, 그들이 나 자신에 대해 내 사역과 역사에 대해 진리에 합당한 개념을 가지게 되길 원한다. 나는 그들이 내 대적자가 사람들이 나를 올바르게 깨닫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 전파한 오류에 갇혀 있길 원하지 않는다.

내 피조물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올바르게 깨닫길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오랫동안 오류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생각을 밝혀 주어 그들이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오류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진리는 항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진리는 심장 안에 빛을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류는 사람들이 가야하는 길을 어둡게 하고 오류는 절대로 높은 곳으로 나에게 인도하지 않는다. 왜냐면 자신에게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게 하려고 재촉하는 이 길은 내 대적자의 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진지하게 그가 가진 지식에 자신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는 스스로 진지하게 순수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그가 이미 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시도

를 했는지 질문해봐야 한다. 그의 생각이 오류 가운데 있으면, 그는 진지하게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길 구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행할 필요 없다.

그러나 이런 의지는 심장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자신이 진리 안에서 거하려는 깊고 거룩한 진지함이 그에게 있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진지함이 없다. 그들은 그들이 전달받은 지식으로 만족하고 이를 굳게 고수한다. 그리고 이에 관해 생각해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모순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에 강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류는 진리보다 더 많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위로부터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있게 자극해주고 스스로 입장을 정할 수 있게 해야 할 순수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말한다. 진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다. 기존의 지식이 위로부터 주어진 지식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영접한 저세상으로 가지고 가게 될 이 지식은 한때 혼에게 영적인 부유함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잘못 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 혼들에 비해 이 혼은 현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영의 나라에서는 혼이 단지 진리에 합당한 이런 재산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지식은 쓸모가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아주 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순수한 진리가 아니면, 그들은 이 지식을 모든 세상 재물처럼 잃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가운데 영의 나라에서 거할 것이다. 그러나 영의 나라에서도 그들에게 제공될,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접하기 위해 그들의 자유의지를 요구하는 순수한 진리를 영접할 때까지 그들에게 축복된 일을 하게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이미 자신의 생각이 선명하게 되는 일이 이 땅에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아주 필요하다. 왜냐면 단지 진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단지 진리를 통해 사람은 축복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더 이상 잃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올바른 의지가 성품의 변화를 보증한다.

B.D. No. 6204

1955년 3월 4일

영적인 완성에 도달하려는 지속적인 추구를 통해 영원한 축복을 얻을 권리를 확보하라. 너희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원하고 이런 의지가 진지하면, 너희는 이미 내 나라에 속하게 될 후보자이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도달하도록 너희를 돕는다. 올바른 의지가 먼저 너희가 계획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얻게 할 것이다. 반면 이런 진지한 의지가 없이는 너희의 성품을 변화시킬 능력이 너희에게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품의 변화는 너희의 의지를 반하여서 절대로 이뤄지지 않고 먼저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 의지는 과거에 한 때 거절했던 나를 이제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너희 말을 통해 단지 너희의 의지를 알릴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 심장 안을 보고 너희 의지가 진지한 것을 볼 때 나는 기쁘다. 그러면 나는 항상 능력을 제공해줄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이제 너희를 완성에 이르게 하는 일을 실행할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할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의 완성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은 단지 사랑을 행한다. 왜냐면 이런 사랑을 행하는 일이 그가 높은 곳을 추구하는 진정한 의지를 갖은 후에 나로부터 받은 능력이 나타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는 자유하다.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영계의 권력도 이 의지를 특정한 방향으로 강요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특정한 의지를 나타내라는 강요받고 그가 또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을지라도 사람의 가장 내적인 의지가 역겹게 느끼거나 기쁘게 느끼는 일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지는 자유롭게 자유롭게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지는 나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의지를 점검해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여 너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이 어떠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것들이 내 뜻과 일치하는지 너희가 두려움이 없이 내 판결을 받기 위해 내 눈앞에 나올 수 있는 지를 점검하라.

너희 의지를 관찰하고 너희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라. 나 자신이 항상 단지 너희의 목표가 되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 안에 온전해지려는 소원을 키워 나가라. 영적인 완성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또한 축복된 삶이 보장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진실로 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하려는 자의 손으로 다시 떨어지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의지를 나에게 드리면, 그는 내 사랑에 의해 붙잡힘을 받고 내 능력으로 무장되고 이 능력이 그가 이제 또한 뜻하는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고 그가 확실하게 완성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주 고요한대로 가서 너희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너희가 내 나라에서 축복되기 원하고 너희가 진정으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추구하면, 너희는 너희의 의지와 생각을 항상 진지하게 비판해야 한다.

아멘

완성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의지.

B.D. No. 7143

1958년 6월 11일

너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그러나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능력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만약에 너희가 이런 목표를 단지 추구하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너희의 온전하지 못한 상태는 능력과 빛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나쁜 상태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너희의 의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바로 능력과 빛을 제공받는 일보다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왜냐면 내가 항상 베풀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너희가 단지 나에게 내 선물을 구하기만을 너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받기 위해 단지 너희의 의지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가 한번 진지하게 너희의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생각하고 동시에 너희가 빛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고 상상하고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상상하고 너희 모두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는 상상을 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스스로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면, 너희는 나에게 도움을 받고 내 지원을 받기위해 너희의 모든 의지를 드러야 하고 즉 나에게 능력을 요구해야 한다.

너희는 진실로 이런 부탁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단지 너희에게 넘치게 부어줄 수 있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주 너희의 연약함과 깨달음이 없음을 충분히 의식하게 하는 너희의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부족한 상태를 벗어나려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무관심한 상태로 머문다. 너희가 너희 이웃이 연약한 상태로부터 빛과 능력의 충만한 상태로 변화되는 일을 확인해볼 수 있으면, 너희는 이런 사람을 정상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너희는 그가 다시 나와 함께 내 뜻 안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는 그의 원래 상태에 거의 가까이 다가 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한때 가졌던 온전함과 의 간격은 아주 크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단지 진지하게 원하는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된 원인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알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의지의 연약함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나와 예수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위를 향해 드릴 수 있는 단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부름은 항상 그에게 항상 연관관계에 대한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된 원인과 목적에 관한 더 많은 빛이 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름에는 사람의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 이 의지가 자유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벗어나게 될지 얼마나 벗어나게 될지가 너희 사람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 너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갈지 너희 스스로 아직 너무 연약해 너희 자신이 도움을 받게 할지는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항상 확실하다. 너희는 너희에게 제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너희는 한번 단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미 그렇게 해보려는 의지가 너희로 하여금 올바르게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단지 이 생각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도움이라도 줄 자세가 되어 있다. 나는 단지 너희의 의지와 반대로 너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한 가지를 할 수 없다.

이제 너희의 의지가 아주 연약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특별히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그렇다. 그러나 바로 이런 종말의 때에 내가 특별하게 충만한 은혜로 인류에게 역사한다. 이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 너희는 종말의 때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항상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했고 이제 나로부터 빛과 능력을 특별한 크기로 받은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모범으로 삼고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왜냐면 너희 모두는 온전하게 되게 정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단지 전적으로 진지하게 온전하게 되는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너희 모두는 이 땅에서 이 목표에 도달했을 수 있다.

아멘

나는 너희의 모든 생각을 알고 너희의 가장 깊은 심장의 동요를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나를 속일 수 없다. 나는 이를 너희가 입술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원한다. 그들은 실제 이웃들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항상 단지 심장을 보고 심장의 느낌이 어떠한 지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태도는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태도는 만약에 사람의 생각과 느끼는 것이 다르면, 단지 가장 깊은 내면의 감정과 동요를 이웃들 앞에서 숨기는데 적절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태도는 단지 거짓과 왜곡을 장려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나는 가장 깊은 심장의 구석까지 본다. 나는 이에 합당하게 사람의 모든 행동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너희가 진실성을 갖도록 양육하기 원하고 너희 안에 책임감이 깨어나게 해주기 원한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실수와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이제 너희 자신에게 모든 진지함으로 작업하기 위해 너희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보고 너희의 생각과 행함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하고 내 앞에서 모든 희롱을 중단하고 너희가 전적으로 벌거벗은 가운데 너희가 실제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실제적인 것을 숨기기 위해 자원하여 걸치는 가장하는 옷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질문한다. 너희 이웃의 판단이 너희에게 내 판단보다 더 중요하느냐? 너희가 세상적으로 행하는 일이 실제 너희를 숨기고 너희를 가장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숨기는 장난을 영적인 영역에서도 행하고 너희는 단지 너희가 나를 최고로 온전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존재로 믿지 않음을 단지 증명한다. 너희는 너희 혼의 구원에 관한 일에 진실되게 머물러야 한다. 그러므로 혼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 비록 선하고 경건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전혀 자신의 혼에 대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혼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이 땅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러나 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은 대적자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유의지로 대적자의 영역에 거한다. 온전하게 되려고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아주 조용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고 이웃이 이를 단지 아주 적게 눈치채고 외적으로 단지 사랑의 삶을 사는 일을 볼 수 있다. 사랑의 역사도 속일 수 있고 진실로는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역사도 내 인정을 받지 못한다. 왜냐면 진정한 사랑은 사람의 심장에서 나오고 외적인 행동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의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내가 진정한 진지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어야 하고 진지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외적인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너희는 영으로 진리로 기도해야 하고 너희는 마찬가지로 영으로 진리로 향해야 한다. 모든 외적인 것은 겉보기이고 속이는 일이고 심장도 이를 안다. 그러므로 그의 심장 안에 자신을 나와 연결시키려는 진지한 갈망이 있는 사

람은 모든 외적인 일을 피한다. 모든 외적인 일은 그가 내적으로 집중하는 일에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실제적인 의미를 잃은 단지의 상징인 전통적인 관습을 멀리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품을 바꾸려는 올바른 진지함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런 진지함이 단지 유일하게 축복된 삶에 도달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잘못 형성 된 혼이 소멸되어 야만 하는 영역에 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이 이 전에 빛을 받을 수 있게 자신을 형성하지 않았으면, 혼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바로 이런 변화를 목적으로 혼은 이 땅에 거한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되는 일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모든 진지함으로 수행해야 한다. 왜냐면 사람에게 단지 짧은 시간 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도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면 나는 진실로 그와 함께 하고 모든 방식으로 그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심장에서부터 나를 부를 것이고 나는 그의 부름을 들어줄 것이다. 왜냐면 그가 영으로 진리로 나를 부르기 때문이다.

아멘

하늘 나라는 침노당한다. 1

B.D. No. 7359

1959년 5월 9일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단지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을 그러나 실제 너희 자신인 너희 혼은 불멸함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이 땅의 짧은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보낼 너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염려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일을 체험하게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 갑작스럽게 이 땅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원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즉 너희 자신을 위한 너희의 이 땅의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 큰 책임을 의식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혼을 위해 너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질문할 것이다. 너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해야만 한다. 너희가 짧은 기간 동안 이에 관해 생각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너희 혼을 위해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

너희는 항상 단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이웃이 위험 속에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너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생각해보라.

너희가 너희 삶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너희 자신에 대해 솔직하면,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많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아직 아주 많이 자기 사랑에 빠져있고 이웃보다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같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 일은 온전함에 도달하려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는 사람의 굳은 의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하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단지 침노하는 자가 하늘 나라를 차지한다. 의지는 강해야만 하고 자신을 관철시켜야만 하고 그러면 사람은 하늘 나라를 위해 힘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 멍에는 부드럽고 내 짊은 가볍다는 약속을 했다.

이 말은 옳은 말이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큰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확실하게 하늘나라를 얻을 것이다. 왜냐면 그에게 사랑의 삶을 통해 굳은 의지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얼마나 강제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너희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사랑을 섬기는 일을 하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아직 무엇이 아직 필요한지를 알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일이 너희에게 어렵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수 있기 위한 힘을 하나님께 구해만 하기 때문이다.

내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초기에 크게 극복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 너희에게 쉽고 더 이상 너희가 짐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짊어지고 어렵게 여기는 멍에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하여 능력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쉽게 빛과 능력과 축복 가운데 실제의 삶을 살기 위해 혼에게 필요한 혼의 성숙함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 자신을 평가해 죽음의 순간이 너희를 놀라게 않고 너희 혼이 가난하고 비참한 가운데 저세상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언제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닥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B.D. No. 7303

1959년 3월 10일

나를 너희 심장 안에 받아 들여라. 다시 말해 나와 연합되길 진지하게 원하라. 누구든지 이런 진지한 소원이 있는 자를 내가 돌봐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한때 나로부터 돌이켰던 것을 되돌려, 그가 나로부터 떠났던 것처럼 다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악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어찌면 그들의 하나님이요 창조주일수도 있다고 여길 지라도 나와 관계성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부분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의 삶을 영위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관심에서 온 것이며 심지어 나를 분명하게 거절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으로 거의 혹은 전혀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무관심한 자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들은 나를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다. 이들이 동료들에게는 부인할 지라도 나와 연합을 진지하게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나에게 대한 갈망의 정도를 잘 안다. 나는 너희 심장 안에 영접되기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대해 많이 생각함으로 이로 인해 나와 나의 내적인 관계성이 형성되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한때 자유롭게 떠난 나와 연합하려는 의지를 갖기 원한다.

바로 이 진지한 의지가 너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진지한 의지가 없이는 결코 아주 적은 존재의 변화도 가져 올 수 없다. 왜냐면 내 대적자에게 너희의 무관심은 대적자가 나와 너희 사이에 끼어 들어 그가 성공적으로 너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너희 심장이 아직 나를 진지하게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동행할 수 없어 나는 내 대적자 들을 쫓아낼 수 없고 그래서 이 대적자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한다. 너희 스스로는 내가 없이는 그에게 저항할 만한 힘이 없다. 왜냐면 그가 너희에게 그 대가로 세상 재물을 약속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계획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와 가까이하기 원하는 진지한 심장의 소원을 가지면, 너희의 이 의지가 나에게 전달되어 나는 대적자를 쫓아 내고 진실로 너희와 가까이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심장에 나를 영접했고 나에게 오는 바른 길에 있다. 너희는 나를 영원히 잃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를 진지하게 원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너희를 소유할 때 너희를 영원히 잃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내면의 깊은 의지가 어디로 너희를 인도하는지 결산해야 한다. 너희 모두는 이 땅에서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세상적인 것에 우선권을 주는지 혹은 내 존재만이 열망할 만한 가치로 여겨, 나 때문에 모든 다른 것들을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너희가 후자에 속하면, 진실로 바른길에 서있고 너희의 진지한 의도는 대가를 받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 임재 가운데 보낼 시간을 너희 심장이 너희 심장 안에 나를 영접할 수 있기를 항상 더욱 더 열망하기 때문에 이런 열망은 항상 충족되기 때문에 잠시도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내 자녀들을 열망하고 그들이 잘못 된 의지로 나로부터 떠난 그 자리에서 다시 나에게 돌아 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은 그들의 의지를 다시 나에게 영원한 아버지에게 향하게 해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께 귀환하기 위해 진지한 의지가 필요하다.

B.D. No. 6823

1957년 5월 6일

이 땅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일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단지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같아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이 육신을 입게 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단지 사람의 의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의지는 이미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의지에 강요하지 않으면서 모든 방식으로 그를 보살필 수 있다.

사람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아직 속해 있는 동안에는 실제 하나님과 빛의 존재가 사람의 의지를 얻기 위해 싸울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의지는 하

나님 편에서 마찬가지로 대적자 편에서 영향을 받고 이로써 사람이 자유롭게 결정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결정을 하면, 그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더 이상 자신의 대적자에게 희생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의지가 진지해야만 한다. 교회의 양육의 결과로서 단지 겉보기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로 충분하지 않다. 단지 교회의 요구이고 동시에 교회의 요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랑의 역사도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기 원하는 일이 가장 깊은 내면에서 추구하는 일이 되어야만 한다. 내적으로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유의지로 헌신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그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깨달은 분에게 향하게 해야만 한다.

이로써 하나님께 귀환은 대중의 역사가 아니고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스스로 귀환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귀환을 이룰 수 있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귀환에 필요한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헛되게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그의 의지와 그의 진지함과 그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확실하게 도움을 받는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능력을 잃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 향함으로 잃은 능력을 다시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외적인 형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단지 말로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보증할 수 없고 교파에 속한 것만으로 의지의 변화를 증명할 수 없고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이런 증명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강요나 계명이 없이 사랑을 행하는 일이다. 비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었지만 그럴지라도 사랑은 자유롭게 행해져야만 한다. 왜냐면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 행하는 일은 가장 내적인 의지가 없이도 행할 수 있고 그러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축복되게 되는 일과 하나님께 귀환하는 일은 모든 각각의 사람들의 자신의 고유의 일이고 이 일은 그가 피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고 어떤 다른 사람도 대신해서 행할 수 없고 행하는 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실로 볼 수 있는 가장 내적인 의지가 결정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지원을 받는다. 이제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은 단지 하나님의 영향이거나 또는 너희를 돌보는 빛의 세계의 영향이다. 이로써 너희의 의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하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너희가 자원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귀환을 너희의 유일한 목표로 보게 한다.

그러나 한번 이런 일이 이뤄지면, 사람의 가장 깊은 내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향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은 것이 된다. 이런 삶은 사람의 혼에게 확실하게 자유를 주고 혼은 자신의 원수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혼은 자신을 끝없이 긴 기간 동안 묶고 있던 사슬을 풀 수 있고 혼은 이제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에 있고 자신에 대한 권세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제 혼을 붙잡고 확실하게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이고 사람의 의지가 한때 창조 된 원래의 영으로 자신을 생성되어 나오게 한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위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B.D. No. 5311

1952년 2월 6일

비록 영적인 존재들이 묶인 상태나 또는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거할지라도 그들의 성장을 위해 끝없는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가 요구되고, 영적인 존재들을 아버지께 인도하는 과정은 끝없이 긴 시간이 요구된다. 왜냐면 가장 작은 존재로써 한때 창조자의 작품 안에 파문을 받은 각각의 입자들 자신이 먼저 다시 만나야만 하고, 이런 자신을 찾아 하나가 되는 일은 의지가 묶임을 받은 가운데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유 의지를 가진 상태인 인간이 되면, 이런 입자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이미 이뤄진 것이고, 영적인 존재들은 자신의 자기 의식을 다시 얻는다. 존재는 이제 자신을 전적으로 정화시켜야 하고, 자신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하고, 실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존재는 다시 분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낮은 곳을 향해 추구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의지를 방해할 수 없다. 단지 사랑을 통해 존재를 얻을 수 있고, 그가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녀들을 다시 얻기 위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잃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자기에게 속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피곤해지지 않고,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 존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들을 최종적으로 얻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 끝없이 긴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 이는 인간으로써 또는 아직 파문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써 끝없이 긴 기간 동안 불행하게 존재로 거하는 영적인 존재 자신에게 해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쉬지 않고 다가가 모든 방식으로 지원한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새로운 창조물을 생성되게 하여, 의무의 단계 아래 성장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인간이 된 영적인 존재에게도 모든 사랑으로 높은 곳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존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가 피할 수 없게 스스로 얼마 동안 영적인 존재가 파문을 받은 상태에 머무를지를 정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그러므로 모든 물질적인 형체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지를 정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존재들을 돌보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으로부터 자신에게 속한 영적인 존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는 제한이 없이 축복을 느낄 수 있기 위해 단지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속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들은 축복을 느낄 수 없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노력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

B.D. No. 6572

1956년 6월 14일

나는 너희 사람들을 향한 끝없는 인내를 가져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를 향한 내 큰 사랑에 내 뜻대로 사는 방식으로 보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내 영원한 질서에 저항하고 내 사랑의 계명을 어긴다. 너희는 내 마음에 들기 위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이 땅에서 전적으로 잘못 살고 있다. 너희는 짧은 이 땅의 삶을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 활용하지 않고 항상 내 대적자의 뜻을 따른다. 내가 공의를 행사하면, 나는 너희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운명을 맞이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 사랑은 끝이 없고 너희를 향한 인내도 끝이 없다. 만약에 내 사랑과 인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저항하는 때를 고려했다면, 너희는 불행하고 영원히 불행하게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행하는 일을 허용했고 너희가 내 일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소멸시키지 않았다.

내 사랑이 너희를 창조했고 내 사랑은 너희를 영원히 소멸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구원시대에 성사시키지 못하는 일을 그러나 언젠가 성사시킬 것이고 성사시키기 위해 결정적으로 너희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왜냐면 나는 내 인내로 항상 또 다시 너희를 위해 너희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아주 타락했고 너희가 아직 모든 생각으로 대적자에게 복종할지라도 나는 분노하지 않고 단지 긍휼히 여긴다. 나는 단지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 자신을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무능력함을 보고 너희를 돕기 위해 다가간다. 나는 단지 너희의 의지와는 반대로 너희를 대적자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강요하지 않고 의지에 역사하는 일을 줄이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의도를 위해 가장 큰 인내와 지구력이 필요하다.

너희는 자주 실제 내 사랑과 인내를 심하게 시험한다. 그러나 나는 사랑 자체이다. 너희가 내 소유이고 대적하는 세력이 너희가 저항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저주할 수 없다. 너희는 실제 깊은 곳으로 타락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너희는 한때 힘과 빛을 즉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다. 이런 죄가 너희의 짐이고 비록 이런 큰 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죄가 너희의 지금까지의 불행의 원인이고 너희가 연약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했고 이 구원은 다시 너희의 자유의지를 요구한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단지 자유롭게 되기 원하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속한 예수그리스도를 부르면, 내 대적자는 너희에 대한 모든 권세를 잃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므로 대적자는 너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이로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가는 일을 막으려는 생각을 쉬지 않고 한다. 너희 사람들은 자원해서 그가 영향을 주는 대로 따르고 너희 자세를 통해 나를 거부한다. 너희가 내 영원한 질서와 반

대로 살고 너희가 인간 예수가 깊은 곳으로부터 너희를 끌어올리기 위해 너희에게 가르쳐 준 사랑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한때 지은 큰 죄에 더하여 더 많은 죄를 짓는다.

너희가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거절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돌이켜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장 큰 사랑과 인내도 불구하고 너희를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영원한 기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악을 악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타락한 자들을 영원한 어두움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나는 저주하지 않고 구원해 주려고 시도하고 나는 불행한 자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 나는 연약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힘을 나눠 주기 원하고 나는 묶임을 받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언제 가능할지는 너희 자신이 정한다.

너희는 사랑을 행하고 나에게 향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지치지 않는 인내로 너희의 사랑을 얻으려고 시도한다. 나는 너희가 언젠가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를 떠나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갈 때까지, 내가 너희를 내 심장으로 끌어들이기 때까지, 너희가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나에게 속하게 되고 영원히 나에게 속해 있기를 원하게 되기까지, 내 사랑으로 너희를 뒤따르는 일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람은 인내해야 한다

자신을 다스리라는 권면. 온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

B.D. No. 1003

1939년 7월 12일

너희를 다스려, 온유하고, 인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종말의 때도 너희에게 시험의 시간으로 주어졌고, 너희가 종말의 기간 동안에 성장해야 하고, 너희 혼에 도움이 되게 너희를 양육하고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성취시키려고 추구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 과제를 성취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너희 혼에 불리한 모든 것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주님 자신이 너희에게 알려 주는 것을 들으라. 이 땅의 나의 자녀인 너희는 서로 간에 사랑으로 대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만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고, 이 땅에 거하기로 선택했다. 너희는 연약함과 실수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제공된 기회를 활용하려는, 항상 너희 자신을 강요하는 가운데 강하게 되어야 하고, 너희의 실수에 대항해 승리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만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어떠한 인내로 너희의 연약함을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간과해야만 하고, 얼마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직 줄어들지 않은 것을 생각하라. 내가 얼마나 인내하지 못할 원인을 가졌는지, 어떻게 내가 아직 최고의 오래 참음과 긍휼로 나의 자녀들을 나의 심장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실수하면,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였는지 생각하라.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죄악 되고, 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내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답하고, 결국에 가서는 나를 말할 수 없게 고통스럽게 만든 인류에 대해, 아주 큰 인내가 필요했음을 생각하라.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내가 굴욕을 느끼게 하고, 모든 고통을 가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느냐?

그렇지라도 나 자신이 이런 가장 쓰라린 불의를 인내하며,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나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들에게 나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 나는 하늘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기를 구하고, 인류를 버리지 않았고, 그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얻어, 그들을 구속해 주려고 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너희도 자신을 다스리는 덕성을 행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를 위해 살아야 하고, 항상 단지 서로 간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하게 되게 해야 하고, 종말의 때를 헛되게 살지 않아야 한다. 너희의 모든 염려와 고통을 나에게 희생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될 것이고, 모든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간에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내적인 평안이 너희 심장 안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잃을 위험에 빠지면,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1941년 5월 10일

사람은 자신을 온유해지고, 인내하도록 양육하기 위해, 사람의 잘못된 의지때문에 모든 위험에 빠진 이웃 사람의 혼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혼을 도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너희 사람들은 혼이 포로가 된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긍휼로 이런 사람을 대하게 될 것이고, 그의 의지가 혼의 사슬을 풀고, 혼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랑과 인내로 그들에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는 것과 과격함은 잘못된 의지를 강하게 하고, 혼은 더욱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선하고 사랑이 충만한 노력이 항상 이웃사람 안에 선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단지 이런 방식으로만 위험 가운데 있는 이웃사람의 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혼은 자신의 사슬을 푸는 일에 도움을 주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한다. 의지가 선한 쪽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항상 혼에게 쉬워지게 때문이다. 반면에 이웃사람이 혼을 사랑이 없게 대한다면, 혼의 곁형체는 더 굳어 진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하는 일은 단지 고집불통과 동시에 사랑 없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혼이 혼의 사슬이 쉽게 느슨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선에 대한 혼의 저항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사슬이 대적자의 권세이지만, 그러나 선한 의지를 통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사랑과 인내를 베푸다면, 의지도 또한 선을 향한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에서 나온 모든 것을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이런 사랑을 사랑으로 깨달아야만 된다. 인내하지 못함과 과격함은 절대로 사랑을 짐작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므로 동시에 이웃사람을 흥분하게 만든다. 이런 일은 혼이 큰 위험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의 성품을 통해, 사랑과 선함과 인내와 온유를 통해, 부드러운 자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혼이 자유롭게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아멘

나이에 따른 시험. 사랑과 인내.

B.D. No. 7217

1958년 11월 29일

나는 아주 자주 너희의 삶의 끝까지 사랑과 인내 가운데 머물라는 권면을 너희에게 해야만 한다. 너희가 마지막으로 높은 곳을 향한 목표에 도달하기 원하면, 시험은 끝날 수 없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이 땅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려는 의지로 이를 통해 너희를 축복되게 만드는 빛의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이 땅의 길에 들어 섰다.

이 땅의 길이 끝나기 전에는 이 땅의 시험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항상 또 다시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의 마지막 과정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 연결이 의미하는 것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비록 너희가 한 동안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떠난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너희가 처해 있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내가 너희에게 더욱 가까이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

랑과 인내를 행해야만 함을 사랑을 행하는 일이 너희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을 가장 어려운 일을 행하게 하거나 극복할 수 있게 함을 항상 생각하라.

인내가 너희를 내적으로 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인내가 너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기 위해 바로 너희 안에서 인내를 흔들리게 하기 원하는 이런 상태 가운데 대적자가 쉽게 역사할 수 있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대적자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대항임을 항상 생각하라. 너희가 인내를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그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록 내가 절대로 너희를 전혀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가까이하는 것을 아주 곧 느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삶이 아주 동일한 가운데 모든 이런 시험이 없이 모든 흔들림 당하는 일이 없이 진행된다면, 너희의 성장이 정지되어 머물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이 땅의 짧은 삶의 기간은 너희가 언젠가 저세상에서 후회하게 될 쓸모없는 기간이 될 것이다. 왜냐면 삶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있는 저항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의지와 노력을 드리면, 영적인 성공은 더욱 높게 인정받는다.

너희는 아직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매일 매일이 은혜임을 생각하라. 왜냐면 너희가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저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매일 매일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힘이 드는 노력이 필요함을 안다. 나는 너희에게 진실로 공정한 보수를 지불할 것이다.

반면에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똑 같이 진행이 되고 너희의 의지를 드러야 하는 일이 없이 너희에게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일 없이 진행된다면, 너희는 특별한 보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임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긴 기간의 삶의 은혜를 선물해준 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너희가 어떠한 부유함을 모을 수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너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나는 항상 너희 가까이에 있다. 이를 항상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가 고난을 통해 시험을 받아 너희를 증명해야 하면, 사랑과 인내가 너희의 내면을 주로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내적으로 거부하면서 모든 인내를 잃으면서 너희 혼의 원수에게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말라.

왜냐면 이는 너희의 평안을 빼앗아 대부분 성공적으로 자신이 역사하려는 대적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평정심 가운데 모든 인내로 너희의 운명에 복종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럴수록 더욱 역사할 수 있다.

만약에 너희가 항상 단지 이런 시험을 이기면, 내 도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나에게 헌신하면, 나는 너희를 진실로 위험과 공격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 사랑이 너희 혼이 성장하기 위해 너희에게 부여하는 고난을 너희가 인내하며 짊어지면, 이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증거이다. 너희는 항상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로 너희가 나를 따르게 요구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나는 확실하게 너희가 십자가를 지게 도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전적으로 버리려고 해서 안 된다. 너희는 항상 만약에 너희가 인내하며 너희 십자가를 지면, 너희 혼으로부터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만약에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구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 힘을 항상 제공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따르는 삶을 살면, 내가 항상 너희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이 오면, 이 땅에서 너희가 너희를 축복되게 하는 빛의 정도에 도달하게 너희를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는 일과 기도와 생각을 통해 계속해서 단지 나와 연결이 된 가운데 거하라. 왜냐면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 가까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작은 십자가를 져야만 할지라도 너희는 확실하게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특별하게 사랑을 행하여 너희 혼이 성장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한 동안에는 염려가 없는 편안한 삶이 너희에게 축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은 아직 사랑을 행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그러므로 너희 혼을 위해 적은 것을 얻는다. 그러므로 너희를 정화시키기 위해 고난이 도움을 줘야만 한다. 어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내가 너희를 위해 짊어 졌는지를 언제든지 생각하라. 너희 스스로 너희의 죄짐 때문에 이런 고난을 짊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고난을 짊어질 힘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 죄를 넘겨받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고난을 짊어지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 십자가는 적게 보일 것이고 너희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빛의 나라의 문을 확실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앞서가고 너희에게 문을 열어 너희가 축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내하며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만 그러나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고난을 견뎌라. 왜냐면 언젠가 혼은 빛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짊어지도록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쉽게 보일 것이다. 너희가 내가 너희 곁에서 갈 수 있게 하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내가 도울 것이고 너희는 짐을 무겁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각으로 나를 부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나는 단지 이런 부름을 기다린다. 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의지와는 반대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를 혼자 두지 않는다.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체도 내 임재의 증거이다. 왜냐면 모든 인류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 내가 이를 통해 너희가 나를 따르도록 조용하게 경고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짓누르는 것에 인내하라. 내 사랑이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 사랑이 때가 되면 너희 십자가를 넘겨받을 것이다.

인내하도록 양육하는 일. 저세상에서 하는 일.

B.D. No. 2498

1942년 10월 6일

인간은 참을성이 있도록 양육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혼들이 저세상에서 구속역사에 참여하기 원하면, 이런 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혼들이 무지한 가운데 고통받는 혼들이 훈계와 지시를 받아들이도록 움직이기를 원할 때, 혼들이 자주 이 땅에서 보다 더 큰 저항을 받는다. 혼들은 단지 가장 큰 인내심을 통해 고통받는 혼들을 자신을 위해 얻을 수 있고, 이제 그런 혼들을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고통받는 혼들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그들이 자원하여 받아드리는 일에 기여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도우려는 혼들은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성숙한 혼들은 자신들을 혼동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고, 지칠 줄 모르는 인내심으로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시도해야만 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그들 편에 서서 돕고, 자신들을 향한 초기의 거부감을 바꾸려고 노력해야만 하고, 모든 실패한 시도를 다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항상 또 다시 이런 혼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알려 주고, 동시에 그들의 혼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제안해야만 한다. 단지 극도의 인내와 큰 사랑이 성공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성공이 도움을 주는 존재를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하고, 영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도록 자극한다. 한번 저세상의 나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이런 행복을 맛본 혼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의 구원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 자신이 가진 빛의 상태가 그들이 빛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이 끊임없이 일하게 한다. 그러나 더 성숙한 혼이 성공하려면, 가장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내를 배워야만 한다. 사람은 온유하고, 평화롭고, 항상 이웃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또한 저세상에서 자신의 과제를 성취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의 과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존재들을 얻어, 영원을 위해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선하고 긍휼이 여기는 심판자이다.

B.D. No. 7547

1960년 3월 13일

너희에게 항상 내 끝 없는 사랑과 긍휼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두려움 없이 나에게 나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나에게 구해야 한다. 나는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갔다. 나는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했다. 나는 이를 이해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큰 사랑으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내 긍휼은 그들을 돕길 원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나에게 다가와 자신을 나에게 의탁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가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도우려는 나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내 사랑을 알아야만 한다.

왜냐면 죄인은 아직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대적자에게 빠져 있다. 그러므로 그가 내 대적자로부터 도망치지 못한 동안에는 그는 죄인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가 내가 그를 도와 주게 나에게 도피하면, 그가 나를 선한 재판관으로 깨닫고 그가 내 권세 앞에 자원해 복종하면, 그는 비로소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죄지은 자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긍휼이 없는 심판자요,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 사랑과 긍휼은 제한이 없다. 너희의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눈과 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 주길 원한다. 너희는 이를 믿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 모두는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내 피조물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내가 사랑할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너희의 죄를 깨달아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죄악되게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해야만 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나와야만 한다. 너희는 예수 안의 나에게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로써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임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내 공의가 너희에게 축복을 내려줄 수 없지만 아주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내 온전한 성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하게 해줄 수 없는 내 공의에 너희가 빠지지 않게 너희 스스로 항상 단지 너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올바른 균형을 이루려고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단지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기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내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죄를 전적으로 용서받는 일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면 내 사랑이 이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죄인을 부른다. 나에게 다가 와 십자가 아래로 나와 너희의 죄짐을 내려 놓으라. 너희는 너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과 긍휼이 너희에게 축복된 운명을 준비해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한때 너희를 생성되어 나오게 한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B.D. No. 7482

1959년 12월 20일

너희는 비록 너희가 스스로 잘못했을지라도 절대로 나를 너희를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긍휼이 없는 재판관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비록 모든 심판에 내 공의가 나타나야만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사랑이 모든 경우에 가볍게 해주게 변호하고 너희를 무자비하게 심판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용서해주는 일 외에는 올바르게 세워주는 일 외에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죄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는 손길로 다가가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불행, 혼의 모든 아픔, 모든 고통과 고난은 혼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혼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지로 심판한 것이다.

혼이 스스로 혼이 처한 현재의 상태를 만든 것이다. 혼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길 원하지 않으면, 내 공의가 혼을 그가 스스로 만든 끔찍한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막는다. 혼은 실제 재판정에 있다. 그러나 혼 스스로 심판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내가 죄인들에게 속죄로써 이런 형벌을 내린 것이 아니고 혼이 이런 벌받는 상태를 자유의지로 추구해 만들었고 내 공의 때문에 내가 그에게 그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운명보다 더 나은 운명을 줄 수 없음을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님을 항상 깨달아야만 한다.

이런 죄를 지은 혼들이 처한 고통을 나는 긍휼히 여기고 내 사랑은 진실로 그들에게 더 나은 운명을 주길 원하다. 그러나 이는 다시 내 사랑과 내 공의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혼이 혼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도움을 구하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혼이 스스로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해야 하고 원해야만 한다.

이 것이 혼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내 긍휼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만약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말하면, 내가 내 긍휼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 끝이 없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벌을 주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사람들이 내 대적자의 영향으로 활개를 치며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면서 사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인류가 거하고 있는 잘못 된 방향을 향한 상태를 그리고 모든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잘못 된 방향을 향한 상태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다시 개입하여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세운다. 그러나 인간으로 실패한 영적인 존재에게 그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만든 운명 외에 다른 운명을 줄 수 없다. 이는 비록 심판이라 할지라도 내 분노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나는 가장 깊은 긍휼로 영적인 존재들을 새롭게 형체 안으로 파문한다.

왜냐면 내 공의가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축복된 운명을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도 축복된 운명을 앞두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도 자유의지로 나에게 의식적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를 붙잡을 수 있고 거부받지 않고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끝이 없을지라도 내 공의도 내 속성에 속해 있어 내 공의가 때가 되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B.D. No. 8504

1963년 5월 21일

나는 선하고 공의한 하나님이다. 내 피조물들에 대한 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나는 모두를 축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전해주기 원한다. 왜냐면 사랑이 이렇게 하게 나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최고로 온전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영원한 내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만 한다. 모든 내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 공의도 내 온전함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내 피조물들에게 증명하기 원하는 내 크고 넘치는 사랑에 제한을 가한다. 나는 죄를 범한 존재를 축복되게 할 수 없다. 왜냐면 이는 내 공의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내 영원한 법칙에 의해 묶임을 받는다. 사랑은 단지 온전한 존재만을 축복할 수 있고 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없게 축복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실제로 죄를 지은 존재들이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게 되게 도우면서 공의가 은혜를 허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한 의지는 존재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의식해야만 하고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갈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들의 의지와 반대로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존재가 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 스스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고 내 공의를 만족시킬 때까지는 내 사랑으로 존재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내 생명으로 부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은 나를 대적했다.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내 공의가 사랑이 이전과 같이 존재들을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게 역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 끝없는 사랑에는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만약에 존재 스스로 전적으로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절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죄이고 이로써 내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어 내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존재들은 영원한 동안 내 사랑의 흐름에 영역에서 쫓겨났어야만 했다.

그렇지라도 존재들이 언젠가 다시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아서 행복하게 될 수 있게 되려면 영원한 신적인 법칙에 따라 속죄는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구속사역을 인간 예수가 나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들의 불행한 상태를 깨닫고 이를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원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했다.

이를 통해 내 공의는 만족 되었다. 내 사랑은 이제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었고 나로부터 한 때 생성되어 나온 존재에게 사랑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에게 나 자신이 영원한 사랑으로써 그들에게 부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존재를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

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한때 나를 떠나간 죄가 범죄한 존재에 대한 내 사랑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 존재 의지와 반대로 그에게 사랑의 힘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그의 저항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온전한 상품의 속한 공의가 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온전함의 근거인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다시 내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전에 그의 죄짐이 해결돼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이 법을 성취시켰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모든 죄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한때 타락한 자들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큰 희생 제사를 드렸다. 나는 이런 희생의 제사를 영접했다. 나는 나를 떠났던 존재들이 그리고 사람들 자신이 짊어진 측량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로 만족했다. 나는 인간이 예수의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속하기를 원해 드린 희생 제사를 받아들였다.

예수 안의 사랑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나 죄사함은 내가 고난받을 능력이 있고 고난을 받을 의지가 있는 타락한 자들의 죄짐에 대한 대가로 측량할 수 없이 고통을 스스로 당한 한 사람의 형체 안에서 단지 완성시킬 수 있는 속죄를 행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공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대가가 지불되었다. 이제 내 사랑이 다시 역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은 자신을 선물하고 피조물들을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피조물들은 다시 죄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와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고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전적으로 내 사랑으로 비추어 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다. 내 사랑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 사랑은 무엇보다 한때 죄를 지었던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죄를 자유의지로 십자가 아래 내려 놓아서 이를 예수에게 전가해서 내 공의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그럴지라도 이 존재들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돕는다. 왜냐면 사랑 자신이 자기를 희생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왜냐면 한때 타락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들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들에게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선물해주길 원하는 축복을 줄 수 있기 위해 그들이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죄짐으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 내가 공의한 하나님으로서 요구해야만 하는 속죄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준비가 되어있는 예수 안의 사랑 자신이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큰 죄에 대한 보상이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왜냐면 내 온전함은 질서의 법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공의가 속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공의. 죄를 향한 속죄. 심판.

B.D. No. 4510

1948년 12월 13일

사 람들이 내 공의에 도전을 한다. 왜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들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성이 없고, 그들은 심장 안에 사랑이 없고, 전적으로 교만하

고, 관능적인 정욕이 가득하고, 이웃을 향한 연민이 없고, 전적으로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하고, 그들의 사랑 없음으로 인해 가장 최악의 행동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런 계명을 준 나 자신에게 죄를 짓는다.

그러나 내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내 사랑을 잃는다. 그는 내가 그를 심판하기까지, 즉 그가 물질 안으로 다시 파문을 받기까지 나로부터 멀어지고 더욱 강박하게 된다. 그러면 내 공의가 만족된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심판한 것이고, 영원한 내 법칙은 단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거이다. 이런 일은 실제 사람이 동시에 이런 일을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즉 피조물들을 향한 내 사랑이 베풀어지고, 절대로 분노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심판이라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다.

공의는 절대로 사랑을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공의는 속죄를 요구한다. 이로써 죄 자체가 힘을 잃게 한다. 왜냐하면 내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단지 공의한 속죄를 통해 이런 고통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 가운데 거한다. 즉 그는 고통이 충만한 묶임을 받은 상태에 거한다. 그는 댓가를 치러야만 하고, 그는 그가 인간으로 자원하여 행하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도록 강요를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섬겨야만 한다.

사람이 자신 안에서 사랑이 깨어나게 하면, 그는 자발적으로 섬긴다. 그러나 죄악과 부도덕은 사랑을 물리치고, 그가 섬겨야 하는 곳에서 다스리려고 시도하고, 그의 생각과 행동은 죄악 된다. 인간의 단계에서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그는 다시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의지의 시험을 치를 수 있기 위해 섬기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나에게 의한 이런 성장과정은 단지 내 공의이고, 그러나 분노에 기초한 일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일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 이로써 그가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을 사람이 항상 자유의지로 스스로 정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오래 참음과 긍휼.

B.D. No. 5097

1951년 3월 31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아주 오래 참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위협한 심판을 실행하기 전에 아직 항상 용서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이로써 내 공의가 이뤄지고, 내가 내 피조물에게 단지 내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오래 참음과 긍휼이 뒤로 물러서면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을 해주기 위해 나는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내 공의가 자유롭게 역사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공적과 행동에 따라 상을 주거나 처벌을 한다. 언젠가 보응의 날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가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떤 사람도 벌을 받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선함이 보상을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내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 공의를 무력화시키지 않고, 이 땅의 마지막 심판도 또한 긍휼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존재가 언젠가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지만, 존재가 완전히 타락하

는 일을 중지시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이 땅에 거한다. 내 공의가 승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의와는 반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악을 좋다고 하거나 또는 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내 오래 참음과 긍휼이 언젠가 일어나야만 하고 일어나게 될 일을 즉시 일어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주 내 공의를 의심한다. 그러나 내 공의는 충족돼야만 한다. 내가 항상 또 다시 보응해야 할 날을 연기하고, 내 공의를 구하며 외치는 사람들이 내 오래 참음과 긍휼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내 사랑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내 사랑은 가장 큰 위협에 처한 영적인 존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자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면 내 사랑이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앞으로 나서고, 내가 예고한대로 올 것이다. 모든 죄는 형벌을 받고 모든 선한 일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내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

아멘

마지막 심판. 사랑의 역사와 공의.

B.D. No. 6052

1954년 9월 15일

내 공의가 유일하게 보응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이런 심판은 훨씬 더 내 사랑이다. 내 사랑이 사람들이 멈출 수 없게 깊숙한 곳으로 떨어지는 일을 보고 이런 일을 멈추기를 원한다. 내가 이 땅이 옛 형태로 머물게 하고 심판을 늦출지라도 이를 통해 사람들의 혼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기간 동안 뚫을 수 없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혼에게 단지 해가 된다. 이 땅에 대한 마지막 심판도 또한 내 사랑의 역사이고 이 역사는 내가 사람들을 전적으로 그들의 운명에 맡겨두기를 원하지 않으면 즉 내가 그들의 운명을 내 대적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으로 여기는 역사이고 이 역사는 너희가 언젠가 잘 이해하게 될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역사이다. 그러나 너희의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로 인해 너희는 이런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내 공의보다 내 사랑이 이 땅의 창조물들의 마지막 심판과 해체되는 일에 실제 더 많은 역할을 한다. 이런 일은 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이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로써 전적인 혼란에 빠져야만 하게 된다. 개개인이 아직 실제 질서를 회복할 수 있고 그가 아직 자신의 과제와 사명을 의식하고 그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마지막 심판의 영향을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그에게는 심판이 단지 사랑의 증거이다. 왜냐면 그가 이 땅이나 영의 나라에서 사는 그를 행복하게 하는 다른 삶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몇몇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도달하도록 내가 항상 또 다시 이 땅과 이 땅의 거주자들이 무엇을 기대해야만 하는 지를 선포한다. 이런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은 또한 내 마지막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사랑의 역사로 평가할 것이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 내 의지와 내 권세를 통해 일어날 모든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내가 단지 유일하게 완전히 경건하지 않은 삶의 결과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개입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해주는 일은 내가 사탄을 묶어 그의 역사를 끝내면서 단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1954년 9월 15일)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너희 사람들에게 실제 잔인한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단지 피할 수 없게 죽음으로 끌려가는 일을 강제적으로 막는 일이고 이로써 혼이 적어도 언젠가 다시 생명에 도달할 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다. 반면에 사탄의 목표는 항상 너희를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이 땅의 종말이 임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 그러면 내 공의는 영적인 존재를 이 땅에서 행한 그의 천신에 상응하는 곁형체로 옮긴다. 나는 내 영원한 질서에 따라 모든 것을 다시 올바르게 하고 모든 영적인 존재에게 그에게 합당한 곁형체를 부여한다. 너희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너희의 과제를 알면, 너희는 역사와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일은 단지 너희의 육체적 생명 이상의 일이고 모든 영원에 관한 일이고 혼의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혼에게 영적 죽음은 가장 끔찍한 일이다. 나는 혼들을 이런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단지 내 사랑에 근거를 둔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

나는 절대로 너희가 다른 삶을 살도록 너희를 움직일 수 없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이 땅으로 직접 주는 내 말씀을 통해 훈계하고 경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나에게 헌신하는 종들의 입술을 통해 내 음성을 듣게 된다. 나는 단지 너희의 잘못 된 삶의 방식의 결과에 너희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사랑의 음성으로 너희를 올바른 길로 유인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이 쓸모가 없게 되면, 너희를 최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의 심판의 손길이 개입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 땅에 질서가 회복되어야만 하고 이로써 이 땅이 다시 영적인 존재의 학교가 되어야 하고 혼이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정의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B.D. No. 1869

1941년 3월 30일

사람 안에 정의감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랑이 없어 보이는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자신이 고귀한 것으로 느끼고, 자신에게 오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허용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신과 자기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도 공의롭게 판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만 모든 결점을 찾고, 자신은 결점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행위를 고귀한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의 판단은 잘못이다. 모든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이로써 자신을 고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자신 안에 한가지 결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가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는 이런 행위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판단하기에 무능하다. 이런 사람은 정의감이 부족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행동은 항상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남의 작은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어떤 높은 수준의 서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고상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책망할 만한, 어떠한 권리가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가 항상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으로 인해 비판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한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감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빠르게 비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상황에 서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결점에 대해 이해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는 진실되어야 한다. 그는 일어난 상황을 상황대로 보아야만 한다.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잣대로 재기 쉽고, 이로서 모든 정의로운 생각과 판단을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로 과대평가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판해 보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일이다. 그러할 때 사람이 자신에 대해 진실하고, 남의 행동방식을 불의하게 판단하며, 자기 자신은 고귀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고, 자신이 그의 재판관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멘

공의로운 삶이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게 한다. 왜냐면 공의로운 사람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정의는 항상 모든 일에서 균형을 구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행동거지가 내 앞에서 흠이 없도록 노력한다. 그는 책임감을 가질 것이고, 항상 내 앞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점검할 것이고,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나의 계명에 기초를 둘 것이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사람은 사랑을 제외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올바른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항상 균형을 잡아, 형평 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왜냐면 불의는 형평성에 대한 감각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불의는 일방적으로 주는 일이나, 또는 일방적으로 판단 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나의 영원한 질서를 어기는 일이다. 왜냐면 나는 모든 일에 정의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랑 자체인 나도 정의가 돼야만 하고, 그러므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정의롭지 못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 위의 불의를 경멸하고, 균형을 이루려는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즉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은 자기사랑이 동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

왜냐면 정의롭지 못한 생각은 사랑을 제외시키고, 불의가 사랑을 일깨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불의는 사람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적인 성장을 막는다. 나는 불의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부여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내가 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일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쓰러지게 하지 않지만, 그에게 나의 사랑의 능력을 줄 수 없다. 왜냐면 불의는 나의 사랑의 발산을 거절하는 자기 사랑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불의한 사람은 나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가 이 능력을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는 실제 이 능력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러나 이 능력을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는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가 어떤 것을 자기를 위해 요구하면서, 이웃사람들에게는 거부한다면, 이는 정의롭지 못한 생각이고, 모든 공의로운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이다. 그러므로 나는 불의한 일에 나의 사랑을 베풀 수 없고, 받기 위한 조건이 공의인 선물을 줄 수 없다. 왜냐면 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이고, 나의 선물은 또 같은 공의와 사랑을 전제로 하여,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주려면, 그가 공의로운 삶을 사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깨어 있고 기도하라.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말하고, 의롭게 행하라.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모든 위험한 절벽을 피해야 한다. 그는 사람을 타락

하게 하려는 그물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항상 대적자는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모든 연약한 순간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영은 실제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한 것을 탐하지 말고, 단지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라. 영적으로 강하게 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라. 즉 세상에 속한 것을 힘들이지 말고 희생하라.

아멘

공의롭게 생각하고 행하는 일. 원수를 향한 사랑.

B.D. No. 5432

1952년 7월 8일

너희는 공의롭게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 이 일에 어떤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간에 사랑해야 할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에는 사랑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에는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너희 자신이 심판해서는 안 되고, 진실로 공의로운 재판관인 나에게 심판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사랑을 느끼는 일은 실제 어렵다. 너희 모두가 단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모두를 창조했음을 생각하면, 그들이 아버지를 떠났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영원히 모든 자신의 자녀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잡힘 받은 것을 알고, 사랑으로 돌봄받는 것을 느끼고, 너희를 항상 보살펴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적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또한 내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 이웃에게 사랑이 없이 행하고, 사랑이 없이 생각하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들 안에 혼이 있고, 이 혼이 또한 자주 가장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쌍하게 여길만 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은 선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랑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런 혼의 위험을 보면, 너희 안에 단지 사랑의 불씨라도 있다면, 가장 깊은 공황로 혼을 돕기를 원할 것이고, 너희가 이런 혼의 위험이 줄어들게 해줄 때까지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혼을 보고, 너희가 이런 혼을 가진 사람에 대해 더 이상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전적으로 눈이 먼 사람처럼 그를 돕고, 그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을 잊게 될 것이다.

이웃이 너희 안에 사랑을 깨어나게 할 수 없다면, 너희는 항상 이웃의 혼을 생각해야 한다. 혼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고, 나는 아론 모든 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혼들을 돕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에 간섭을 할 수 없고, 혼이 스스로 그의 길을 가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혼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주 사람에게 역사하여, 그가 자신 안에 사랑을 깨어나게 할 수 있고, 이로써 그의 큰 영적인 위험을 줄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자유의지에 간섭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권세가 없는 곳에서 너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너희가 아직 죄에 묶여 있는 너희 이웃을 이미 성장한 단계에 도달하도록 돕는다면, 너희는 공의롭게 생각한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내 은혜가 너희를 도왔기 때문이다. 내 은혜는 또한 아직 지하에 있고, 내 대적자가 아직 묶고 있는 존재들을 돕기를 원한다. 너희는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야 하고, 너희는 길을 잃은 자녀들이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너희 자신이 내 사랑과 내 은혜로 찾은 것을 그들이 찾도록 도와야 한다.

아멘

공의. 같은 권리. 응답하는 사랑.

B.D. No. 4131

1947년 9월 29일

공의에 대한 느낌도 법 아래에 있다. 이 느낌이 여러 배로 커지는 일이 가능하다. 그럴지라도 같은 권리에 관한 경우에 제한이 가해야 한다. 왜냐면 항상 주는 일과 받는 일은 먼저 사랑의 법칙 아래 있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베푸는 일은 사랑이 정하는 일이고, 사랑이 베푸는 일의 동기가 되야만 한다. 이로써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깨어나게 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원래의 성분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의 작품이 존재하려면, 사랑이 모든 창조 작품에게 쉬지 않고 흘러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제공된 사랑이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하려면, 그 안에 힘이 증가되려면,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

베푸는 일은 사랑을 증명한다. 그러나 받는 일은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자신이 동인 되어, 위로부터 온, 다시 위를 향해 인도하는 영적인 선물을 받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선물은 단지 세상적인 효과를 준다. (1947년 9월 29일) 다시 말해 주는 사람은 자신의 선물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만 하고,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여김으로, 적게 또는 전혀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못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영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음을 예상해야만 한다. 그러면 단지 주는 사람의 의지에 의미가 있고, 행동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

사랑의 정도가 항상 사람이 베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베푸는 일을 일반화할 수 없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정도가 항상 똑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더 나아가 엄격하게 자기 비판을 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동인이 되지 않은 단지 교육이나 또는 습관에 의해 나타난 행동을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행동은 인정할 만한 일이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동인이 된 모든 행동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왜냐면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혼의 성장정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는 일이 이 땅의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높인다. 공의로운 행동은 실제 사랑과 연합될 수 있다. 그럴지라도 대부분 공식적으로 정상을 참작하려는 감정에 인도된다. 이런 행동은 심장이 동참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은 사랑을 행한 것으로 영원에까지 사람들 뒤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생각하고, 공의롭게 행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면 이와 반대는 이웃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는 사랑이 없는 일이고,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일

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은 사랑의 계명의 성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의를 항상 똑 같은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절대적 똑같은 을 항상 모든 사람들이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실제 자기 자신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거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가 베풀기 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럴지라도 이런 의지가 자유로워야만 하고, 그의 의지가 강제적으로 한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 베푸는 이유가 습득한 형식이고, 이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1947년 9월 29일) 그러므로 너희의 베풀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때, 진지하게 어떠한 느낌이 너희를 인도하는지 자신을 점검하라. 전혀 온기가 없는, 올바른 행동으로 만족하지 말라. 대신에 너희 심장의 재촉을 따르라. 그러면 사랑이 너희를 정할 것이다. 모든 생각과 원하는 일과, 행동이 선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한 사람만이 너희의 도움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도움이 모든 곳에서 필요할 경우에 공의롭게 행하라.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베풀어 주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나눠주려고 노력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기쁨을 전파하라. 두려워하며 제한을 두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일은 사랑을 사라지게 만들고,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너희가 어느 정도 세상 질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첫번째로 성취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면, 사랑이 가장 먼저이다. 하나님의 질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서 공의가 포함된, 다른 모든 선한 성품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

B.D. No. 7545

1960년 3월 11일

너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너희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항상 그가 너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나라의 문을 열어준 영의 나라에 죄가 없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당한 그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상상해보려고 해야 한다.

자신에게 죄가 없는 그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갔다. 너희의 가장 큰 영적인 위험을 알던 그가 너희를 이미 영원에 영원의 기간 동안 가두고 있는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원했던 그가 너희 사람들을 향한 아주 큰 사랑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 이 일은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원했던 큰 사랑을 자신의 심장 안에 담고 있던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된 사랑과 긍휼의 역사이다.

이런 사랑이 그의 구속사역을 위한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 이런 사랑이 그의 의지를 움직이게 했고 그가 측량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끝까지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기까지 고통이 충만한 자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이었다.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인류를 위해 고통당하고 죽은 분은 영원한 사랑이었다.

이 사랑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인류가 전에 체험해보지 못한 가장 큰 긍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의 곁형체를 필요로 했다. 이런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아무리 묵상해도 충분할 수 없다. 왜냐면 이는 일회적인 역사이지만 그러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항상 또 다시 그들 모두를 위해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항상 또 다시 그들 스스로 만약에 그들의 의지가 구속사역의 은혜를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으면, 구속받은 사람들에 속함을 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의 구세주를 생각해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분에게 향해야만 한다. 그들 자신의 죄악성을 생각해 봐야만 하고 만약에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아래로 들고 가면, 이런 죄를 위해 하나님의 구세주가 죽으셨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멸망을 받았을 것임을 생각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깊은 위험으로부터 구할 구세주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죄를 용서한다.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빛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삶도 비록 그가 아직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넘치게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사해 주었다. 너희는 이 한 분을 인정해야 한다.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어야 한다. 너희는 예수가 사랑이 충만한 빛의 혼을 자신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 너희는 영원한 사랑이 이 혼 안에 거할 수 있었음을 알고 믿어야 한다. 너희는 이 영원한 사랑이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간 인간이었음을 알고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안의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인정하면,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

B.D. No. 6352

1955년 9월 11일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체험한다. 왜냐면 내 사랑은 끝이 없고 위험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향하고 아직 나에게 저항하고 있는 그러므로 실제 사랑을 받을 권한이 없는 모든 자신의 피조물에게도 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위험에 빠진 피조물들을 도와준다. 하나님은 분노할 수 없고 단지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고 돕기를 원한다. 어떤 죄도 그의 사랑이 용서하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큰 죄가 없다. 단지 그의 공의가 또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그에게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동안에는 그의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저항을 꺾기 위해 그러나 충만하게 자신을 선물해줄 수 있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는다. 비록 죄의 크기가 아주 클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긍휼로 죄인을 바라보고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부여하여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용서를 받기 위해 자신을 돌이켜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분노할 수 없고 사랑은 항상 단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은 모든 혼들에게 긍휼을 가진 재판장이다. 다시 말해 그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항상 용서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지 혼이 스스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면, 이런 저항이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가 없게 만들고 모든 긍휼의 역사가 헛되게 만든다. 왜냐면 이렇게 되는 일이 영원히 질서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혼이 단지 스스로 거부한다면, 혼은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염려는 항상 단지 사람들의 의지가 변화되는 일로 향한다. 혼이 타락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되면, 의지의 변화가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면 혼은 그가 비록 벌여 드리지 않았지, 그러나 혼이 또한 거부하지 않는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혼은 은혜를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불행한 자에게 낮아져 임하기 때문이다.

깊은 곳에서 끝 없이 비참한 불행을 아는 사람이 단지 긍휼을 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 단지 긍휼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또한 긍

움을 느낄 수 있다. 만약에 그가 타락한 존재들의 운명을 안다면, 비록 그가 느낌으로 이 운명을 측량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의 불행을 아는 지식이 또한 그 안에서 깊은 긍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로써 그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이런 하나님을 멀리 떠난 혼들을 위해 자신을 드린다. 그가 이제 이런 불행한 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의 긍휼히 여기는 도움의 요청이 이런 혼들의 저항을 끝낼 수 있다. 왜냐면 혼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사랑을 느끼고 양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높은 평가를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혼이 높은 성장 정도에 있다는 증거이고 사람의 진실 된 사랑의 증거이고 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혼들을 긍휼히 여긴다. 모든 혼들이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영접했다면, 진실로 모두가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혼이 저항하는 가운데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위험한 상태와 모든 불행한 상태는 하나님이 존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로 추구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단지 존재의 의지에 사랑으로 역사하여 그가 자신을 바꾸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게 길을 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 의해 존재가 붙잡힘을 받아 위로 이끌림 받게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시도할 수 없다.

모든 구원하는 역사는 긍휼의 역사이다. 왜냐면 존재가 자유롭게 돼야 할 위험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긍휼이 이 전에 나타나 저항을 끝내려는 마지막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공의가 벌을 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항한다면, 긍휼도 전혀 역사할 수 없고 공의가 이제 저항에 알맞게 응답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모든 불행한 존재들을 구하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또 다시 이 땅에 낮아져 임하여 긍휼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모은다. 그의 아주 큰 사랑에 어떤 존재도 지속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의 힘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의 힘으로 언젠가 가장 강박한 심장도 녹게 될 것이고 존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그의 진노보다 더 크다.

B.D. No. 4100

1947년 8월 9일

하나님의 긍휼은 분노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마지막 심판이 형벌을 주는 심판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심판이 비록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은 새로운 구원 시대의 전주곡이고, 형체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는 최종 목표를 위한 새로운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분노하지 않고, 분노의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타락한 존재가 다시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비록 하나님의 공의가 묶임을 받게 하는 고통을 통해 만족을 얻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크다. 하나님은 영원히 분노하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자신의 힘에 의해 생성된 존재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산물이고, 이로써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 존재는 실제 하나님의 진노로 오랫동안

그의 면전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또 다시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향하게 한다. 왜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때문이다.

(1947년 8월 9일)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연약하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긴다. 왜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가장 깊은 사랑이고, 사랑은 절대로 전혀 떠날 수 없고, 불씨로써 사랑 자체이고 영원한 불인 하나님을 한때 떠난 존재와 연합하는 일에서 단지 행복을 찾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화염은 그에게 다가 가는 모든 존재에게 증가되고, 그들을 사로잡고, 존재들을 가장 축복받은 존재로 만든다. 한때 그에 의해 생성된 존재가 불행한 가운데 고통 당하는 곳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모든 긍휼로 이런 불행한 존재들에게 다가 간다. 사랑은 영원한 정죄를 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가 이에 저항하는 한 연합된 상태가 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는 불행한 상태에 머물고, 이런 상태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간격을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간격은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고, 묶임을 받은 상태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존재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발산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영구적인 상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새로운 창조물이 항상 또 다시 생성되는 일에서, 이런 창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에게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창조물 안에 거하게 했고,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다시 받고, 영적인 존재에게 끝없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자유의지로 원초적 힘에게 전적으로 속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기회가, 원래의 힘과 항상 긴밀한 연결을 이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존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면 존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구할 수 있고, 이로써 존재는 축복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붙잡힘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존재에게 사랑의 불이 붙었고, 존재 자신이 화염이 되고, 영원한 사랑과의 연합을 돌이킬 수 없게 이루고, 또한 존재는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사랑으로 바꾼다.

아멘

조기 사망. 하나님의 긍휼. 높은 나이.

B.D. No. 3260

1944년 9월 18일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해진 상태에서 이 땅의 삶에서 영의 나라로 부름 받을 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이런 일이 또한 겉으로 보기에 불의한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 택한 반면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고통 당해야만 한다는 사람들의 관점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

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항상 알고, 이로써 이 땅에서 더 높게 성장하는 일이 의문시 될 때, 비로소 생명을 끝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의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존재가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는 일을 허용 받는 성장 정도에 도달하기 까지 항상 단지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그의 성장 과정을 계속 갈지, 정지시킬지 또는 퇴보하게 할지를 정한다. 이런 일은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써 초기에 가졌던 자신의 성장 상태를 증가시켰는 지, 그런 후 자신의 성장이 정체되는 위험에 빠졌는지 또는 그가 그의 육신을 입기 시작할 때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그런 후 퇴보할 위험에 빠졌는지에 달려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높게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들이는 일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계속 퇴보하거나, 계속되는 삶을 자신의 혼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이다. 왜냐면 그가 육신을 입는 은혜의 기간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더 오래 살게 되면, 그의 죄짐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젊은 나이에 높은 곳을 추구했고, 그의 추구를 중단한다면, 그의 지금까지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드리고, 그에게 저세상에 계속 성장할 기회들을 준다.

그러나 또한 사람이 노년에 자신의 의지를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에게 아직 부족한 성장이 갑자기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의 오랜 동안 자신의 혼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는 더 높은 성장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장수하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그의 삶을 정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의해 정해지고, 절대로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이 맘대로 정한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이 땅에서 성장할 기회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 이 땅에서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적게 주의를 받고, 사람들은 이에 합당한 가르침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자신을 거부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언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에 도달 했는 지 알기 때문에, 그의 이 땅의 수명도 영원으로부터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목적에 아주 합당하고 성공적으로 깨달은 대로 수명은 아주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더 높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 땅의 삶을 절대로 조기에 끝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계속하여 인간이 이 땅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성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돌보고, 성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빼앗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의지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자주 혼이 완전한 배도하는 일로부터 보호한다. 즉 하나님의 그의 이 땅의 삶을 끝내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퇴보로부터 혼을 구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높은 나이에 도달한다. 반대로 높은 나이는 주변 세계가 볼 수 없을지라도 서서히 성장하는 일을 증명한다. 장수하는 일은 항상 은혜이다. 그러나 단명한 삶도, 비록 사람이 항상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항상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

아멘

사람들이 신성의 본질을 더 적게 이해할수록, 그들이 경험하고 견뎌야 하는 큰 고통이 형별이 아니고, 가장 큰 긍휼의 역사로 여겨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보인다. 이를 단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고려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끌어드리고, 인도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다.

사랑은 존재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람들이 눈이 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일을 막는다. 사랑은 존재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가득한 운명을 피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실제 무자비하게 보이는 수단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가장 빠르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도록 인도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기쁨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낙원의 기쁨을 준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멀리하는 존재들에게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굶주려야 하는 일을, 그들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인도하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심장 안으로 들어기를 갈망하면서, 그들에게 다가 간다.

그들이 이제 얼마나 오래 동안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지가, 그들이 겪는 고통의 정도를 결정한다. 현재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 저조하다. 그러므로 영원한 신성이 내리는 아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육체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에 의해 초래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의 혼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왜냐면 육체는 쇠하지만, 혼은 영의 나라로 가기 때문이다.

육신의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난다. 그러나 혼의 고난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잔인하게 보이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허용이다. 왜냐면 사람은 고난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거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 가장 절실한 상황에서 하늘의 아버지께 영으로, 진리로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또한 기도에 응답할 수 있고, 자신의 도움을 줄 수 있다. 혼은 언젠가 고난으로 인해 저세상의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해답을 구하기 전까지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영원히 자신의 피조물에게 향할 것이다.

B.D. No. 2906

1943년 10월 2일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심하게 대항했을 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어떤 존재도 버리지 않는다. 왜냐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파괴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멸망할 수 없다. 그러나

존재의 의지가 자신의 성품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의지는 원래부터 가졌던 자유를 통해 위를 향해 또는 아래를 향해 발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성품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반대로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때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모든 온전함을 박탈당한 자의 성품을 받아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는 여전히 같은 존재이지만, 이 전에 소유했던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하다. 존재는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대적자를 닮게 되었다. 그렇지라도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쫓아낸 적이 없고, 존재가 이를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머문다. 하나님의 목표는 항상 영원히, 비록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온전한 존재로 다시 되돌아 가게 하는 일이고,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는 절대로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존재에게 항상 지속적으로 이런 변화할 기회가 주어진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존재를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즉 빈곤과 부족의 상태에, 이로써 절대로 존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상태에 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존재를 축복되게 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로써 존재가 온전하게 되면, 존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를 통해 존재가 축복된 상태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존재는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

존재는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자주 영원에 영원한 기간 동안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머문다. 그러나 존재는 완전한 자유의지로 자신의 저항을 포기해야만 하고, 스스로 변화시켜야만 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변화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강제의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긍휼로 존재에게 역사하여, 존재가 부드러워지고 순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을 약속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한 수단을 사용한다. 즉 인간을 서서히 변화시키게 한다. 만약 존재가 특별한 끈기를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도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존재의 구원을 돌보고, 하나님의 지혜는 존재를 변화시킬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하나님은 어려운 생활 조건을 가진 새로운 땅이 생성되게 하고, 자신을 거부하기 원하는 존재들의 사랑을 끊임없이 구한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정화시키는 일을 행하고, 존재가 위로 성장하는 일을 달성하고, 자신과 자신의 피조물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일에 단지 관심을 갖는다. 왜냐면 자신의 사랑이 항상 영원히 자신의 피조물에게 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겉으로 보기에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물러난다면, 이런 일은 단지 자신을 위해 피조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이 무력함을 깨닫게 하여, 이로써 무력한 존재로써 피조물이 힘의 원래의 원천과 연결을 구하게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연결을 구하는 일이 이미 저항을 포기하는 일이고, 의식적으로 이미 위를 추구하는 일이고, 의지가 행동을 취하는 일이고, 위를 향한 성장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지를 바꾸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해 자신을 떠난 의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자

신의 피조물들의 사랑을 구할 것이고, 이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수단은 하나님께 더 대항할수록, 더 효과가 나타나는 수단이다. 따라서 존재가 자신의 저항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존재의 저항을 꺾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정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 단지 한때 자신을 떠난 존재를 최종적으로 다시 얻는 일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존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도움.

B.D. No. 7041

1958년 2월 12일

내가 사람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주는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이다. 내 의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작은 성공이라도 거두기 원하고 그들의 죽음이나 또는 사람이 나에게 전적으로 모두 속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이 땅의 종말을 통해 전적으로 어두운 영이 되지 않게 만들기를 원하면, 나는 그들이 어려운 학교를 가게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의 종말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아직 마지막으로 작은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이 은혜는 새 땅에서 살기 위해 정해진 성장 정도를 갖추어야 하지만 이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그들이 비록 새 땅에서 살 수 없을지라도 새로운 파문을 피하는 내 영접받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전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깊은 곳으로 타락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에 영의 나라의 영접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작은 빛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주려고 시도하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큰 고난과 위험을 통과하게 한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이를 통해 눈길을 나에게 향하고 이런 마지막 은혜를 활용하면, 그들은 새로운 파문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아직 나를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고 그들이 단지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그들을 영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어두움에 빠지고 그들에게 비추이는 빛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어두워진 혼들은 마지막에 가서 더 이상 저세상의 영접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세상의 문이 닫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탄적인 것들이 영의 나라에서 쫓겨나기 때문이고 모든 사탄적인 것들이 새로운 파면을 받기 위해 분해되고 새롭게 이 땅의 성장 과정을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빛이라도 소유한 혼들은 이제 높은 곳을 추구할 것이고 계속되는 성장을 위해 빛의 존재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빛의 존재는 그들을 돌보는 일을 자원해 영접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땅의 빛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어두워진 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있다. 사람들이 위로부터 온 내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일을 통해 이를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랑과 지혜로 그들에게 말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어느 정도

빛이 있는 사람들이 내 신적인 사랑의 빛이 비추는 힘을 깨닫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깊은 어둠에 처한 사람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종말 전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 단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런 수단은 고통스럽다.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내 구원계획을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끔찍한 운명을 알지 못하면, 그는 이런 수단을 하나님의 도움의 수단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눈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으면, 그들 스스로 빛이 비추이는 곳에서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성공한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비참한 고난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향하는 길을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불행과 고난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 후의 삶은 끝이 없다. 죽음 후의 삶이 흔들에게 축복된 삶이면, 혼이 새로운 파문을 피하고 그의 물질적인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혼은 언젠가 넘치게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은혜의 선물을 영접하고 내 말씀을 듣고 이를 따르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은혜를 활용하는 사람은 빛으로 다가오고 나 자신을 깨닫는 깨달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는 내가 그를 이전에 불러드리던지 또는 낙원인 새 땅의 축복된 거주자로 부르던지 상관 없이 종말뿐만 아니라 어둠을 더 이상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은 단지 짧게 될 것이고 단지 짧은 시간 동안에 너희에게 큰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은 말할 수 없이 큰 고난을 견뎌야만 할 것이다. 내 말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내 대화 요청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모든 사람을 얻기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사람도 어둠에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게 머문다.

아멘

긍휼.

B.D. No. 5943

1954년 4월 28일

내 긍휼이 없었다면, 너희가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가운데 너희는 긍휼을 행해야 한다. 그러나 긍휼은 고통당하는 일을 볼 수 없고 돕기 원하는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신 안에서 이웃에 대한 긍휼을 느끼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웃의 운명이 그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였을 것이다. 긍휼은 다른 형태의 사랑이다. 왜냐면 사랑은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긍휼은 먼저 고통을 제거해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느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이웃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고 그는 동시에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도움 자세를 갖는다.

사랑은 들어 나는 위험이 없이도 행할 수 있고 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람도 이웃의 고난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러면 긍휼히 일어나고 사람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비참함이 사랑을 행하게 만든다. 긍휼의 역사는 또한 그가 위험 가운데 있게 되면, 그에게 내 긍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본다. 비록 너희 자신에게 너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나는 너희의 상태를 긍휼히 여긴다. 너희의 긍휼도 자신의 죄로 비참함에 처한 사람들에게 향해야 하고 긍휼을 심판하는 것처럼 베풀어서는 안 된다. 긍휼은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해당돼야 한다. 이웃의 비참함이 진실로 그들의 죄를 상쇄하는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고통이 아주 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하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 자신이 너희의 큰 죄를 내 사랑을 통해 사하여 주지 않았다면, 너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너희 스스로 자유의지로 택하였기 때문에 실제 너희 운명은 공의로운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단지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낮은 영적인 상태와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채운 너희의 사슬을 보았고 보고 있다. 나는 절대로 스스로 너희 자신을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너희의 무기력함을 보았고 내 긍휼이 이제 공의의 자리에 들어섰다. 나는 너희가 최종적으로는 너희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도왔고 구세주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었고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자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러므로 내 긍휼은 너희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 죄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도록 도왔다. 그러므로 너희도 긍휼을 행해야 한다. (1954년 4월 8일) 너희는 사랑의 인도를 받아 이웃의 고난이 끝나도록 도와야 하고 죄를 지었고 이로써 너희의 도움을 받을 권한을 실제 잃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너희는 그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의 비참함을 생각해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너희의 심장이 아직 강박하게 되지 않았고 동시에 같이 고통을 느끼고 비참한 사람들과 형제와 같이 연합된 것으로 느낀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큰 위험이 보게 되면, 너희의 눈이 이를 피하지 말라.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 사

랑으로 도우라. 모든 죄인에게 해당되는 내 긍휼을, 나로 하여금 구속 사역을 완성하게 만든 내 긍휼을 모범으로 삼으라. 왜냐면 너희 모두가 죄가 있었고 그러나 나는 이 죄를 나 자신이 짊어지고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아멘

긍휼. 질병과 연약함.

B.D. No. 1032

1939년 7월 31일

병 든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긍휼을 베풀고, 항상 그들의 육체의 고통이 이 땅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이런 고난을 줄이려고 시도해야 하고, 언제든지 그들을 돕기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한 사람이 이웃 사람을 돌보아야 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대해, 너희 안에서 사랑 없음이나 무관심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느냐!

얼마나 어렵게 이런 질병과 연약함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짓누르느냐! 그들은 이런 상태에서 무기력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해주는 모든 말에 감사한다. 그들의 귀에 사랑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자주 피폐해야만 하느냐! 그들은 외롭고, 그들의 혼은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갈망하지만, 단지 아주 적게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주님은 긍휼을 가르치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한다. 긍휼은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지 사랑으로 행하는 일만이 혼에게 구원을 준다. 긍휼은 가장 순수한 이웃사랑이다. 왜냐하면 긍휼은 돕기를 원하고, 댓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육신이나 혼이 병들 수 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혼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에게 올바른 치료의 수단을 긍휼히 여기는 이웃사랑으로 제공하는 일은, 항상 말할 수 없이 큰 가치가 있다.

육체의 고통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지만,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는 혼에게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혼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연약하고 쇠약한 사람들은 두 배의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체가 자주 혼을 연약함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혼들이 게으름에서 깨어나, 이제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도록 자극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런 혼들을 도울 수 있다.

혼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인내하며 견딘다.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는 혼을 이웃사랑으로 도움으로써 혼이 이 깨달음에 도달한다.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심는 것이다. 이 땅의 자녀가 이 긍휼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을 받는 사람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아야만 하게 되고, 그 자신에게 행해지는 모든 사랑의 역사를 통해, 비추는 영의 능력을 통해, 그의 관점은 위로 향하게 돼야 만한다. 이처럼 병

든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긍휼은 두 배의 축복된 역사를 가져오고, 병든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혼의 상태를 아주 건널만 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너희의 도움과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잊지 말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일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의 고난의 기간이 영적인 성장의 기간이 되게 하라. 주님은 모든 긍휼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이웃사람을 향해 마음을 쓰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오류에 빠진 혼을 돕는 일은 가장 큰 긍휼과 사랑의 역사이다.

B.D. No. 4697

1949년 7월 25일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오류에 빠진 혼들을 위해 너희가 애를 쓰면, 너희에게 여러가지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주고, 그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긍휼의 역사이고, 이웃 사랑의 역사이다. 이 역사는 영원을 위해 큰 의미를 가진 역사이다. 그러므로 나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나는 나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주기 원한다.

육체적으로 이웃 사람을 돕는 일도 너희가 상급을 받는 하나의 사랑의 역사이다. 그럴지라도 혼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는 상태에 도달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변화되게 해주는 일은, 다시 말해 유일하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해주는 일은 훨씬 더 상급이 큰 일이다. 왜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얻은 단지 영적인 깨달음을, 즉 증명할 수 없는 깨달음을 전하는 일은 동시에 깊은 믿음을 증명하고 게다가 이 일은 모든 영원까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너희의 노력들이 혼이 영원히 잃지 않게 될 빛이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게 도움주는 일을 생각하면, 너희가 이런 혼들이 어두운 상태로 저 세상으로 가면, 이런 혼들의 운명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었다는 의식이 이미 너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사람에게 빛을 주는 일은 가장 큰 사랑의 역사이다. 왜냐면 이 역사는 올바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오류에 빠진 혼들을 돕는 일이 겉으로 보기에 자주 효과가 없게 보인다. 그러나 혼이 한번 받은 것이 이 땅에 큰 위험이 닥치는 경우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이 자신이 받은 것을 고백하는 일이 항상 가능하고 이런 일은 항상 너희의 상급이 될 것이고 너희의 상급으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구원을 받은 혼이 언젠가 빛 안에 서게 되고 자신의 구원자의 도움으로 자신이 어떤 운명을 피하게 되었는지 깨달으면, 그는 자신의 구원자에게 영원히 감사하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에게 해를 입힌 이웃에게 공홀을 거절하는 너희는 나에게 같은 공홀을 요구하지 말라. 왜냐면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푸는 내 공홀에 의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야만 한다. 그들의 혼이 건강하게 되려면, 엄격한 판결보다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똑같이 행해야 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 모든 사람이 내 대적자의 공격을 받음을 너희에게 강조해줘야만 한다.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실제 나를 부름으로 내 대적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 나는 실제 내 대적자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사람이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보호와 도움을 청하면,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한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자주 그를 깨달을 수 없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의 그물에 걸린다.

이는 실제 그 사람 자신의 잘못이다. 왜냐면 그들이 어두운 영으로 있고 자신 안에 작은 빛을 밝히기 위해 아무 일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실패로 인해 한때 쓰라리게 후회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어두움을 저세상으로까지 가지고 가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빛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항상 단지 그들의 비참하게 여길 만한 상태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시도할 것이다.

너희 모두는 이런 혼들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마찬가지로 행해야 한다. 너희 이웃의 연약함이 너희 안에서 뜨거운 공홀을 일으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의 혼을 그들을 돕기 위해 어쩔 줄 몰라야 한다. 이 일은 중보하는 생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런 혼들을 행복하게 느끼게 하는 사랑의 힘을 전하는 일을 통해 가능하다. 너희는 이런 혼들을 얻기 위해 내 대적자와 싸워야만 한다. 사랑이 이런 혼들을 돕기 원하게 너희에게 역사하면, 너희는 내 대적자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너희 안의 사랑이 내 대적자의 포로가 된 이런 불행한 혼들을 돕기 위해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 너희는 혼들이 언젠가 비로소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혼들이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혼에게 저항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두운 저세상으로 가게 되면, 내 대적자가 혼들을 오랫동안 자유롭게 해주지 않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면 한 사람의 사랑이 이런 혼들이 내 대적자를 떠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아직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아직 그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아직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 이미 그가 저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운명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 길을 잃은 모든 자들을 공홀히 여기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라.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너희의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해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혼들을 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원수에게 넘기지 말라. 나는 모든 공홀히 여기는 부름을 듣는다. 너희의 사랑 때문에 나는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혼이 혼자 있게 하면, 혼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서 항상 사탄의 그물에 깊게 걸려들게 될 것이다. 왜냐면 혼이 전적으로 영의 눈이 멀었고 이 땅의 길에서 혼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바로 의지의 연약함을 유지 시키려고 하고 이런 의지의 연약함이 단지 사랑의 중보 기도가 혼에게 항상 줄 능력의 제공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지 말라. 좋은 설교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중보 기도가 성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혼들을 너희 모두의 심장에 맡겨서 너희가 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혼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한다.

왜냐면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단지 사랑하는 생각을 통해 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적자를 항상 가장 큰 원수로 보아라.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혼들을 도우라.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이 혼들이 영원히 너희에게 감사하게 될 사랑의 역사를 완성한 것이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일. 심장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B.D. No. 6025

1954년 8월 16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 원하는 일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행하라.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입장에 서라. 너희가 이런 고난 가운데 도움을 받았다면 너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 생각하고 너희의 힘이 닿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런 일이 내 눈 앞에 올바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차갑게 대하면 너희 심장이 이미 강박해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그러면 너희가 내 계명을 성취시키지 못하기 때문이고 너희의 혼이 성숙할 수 없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이다.

이웃의 고난이 실제 이웃 자신의 잘못 때문 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웃을 도와야 한다. 왜냐면 너희 자신도 죄에 빠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고난에 빠질 수 있고 너희가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너희가 또한 내 사랑과 긍휼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심장이 강박해지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나치면 너희는 생각으로 너희 자신을 같은 고통의 상태에 두라. 그러면 얼음이 녹을 것이고 너희가 아직 변화될 수 있다면 긍휼의 물결이 너희를 덮치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 너희 자신이 너희의 운명을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양육을 위해 너희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일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 오늘 너희의 이웃에게 일어난 일이 내일은 이미 너희 자신의 운명이 될 수 있고 너희가 도움을 기대한다면 너희 이웃에게 도움을 주라. 그러면 너희는 실제 잘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우월하다고 느끼지 말고 너희가 세상적으로 형편이 더 낮거나 너희 자신의 운명을 더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웃을 무시하지 말라.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을 느끼도록 내가 너희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장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도움을 주려고 시도하라.

왜냐면 너희가 주고 너희가 나눠준 것을 풍성하게 돌려받기 때문이다. 너희는 받는 사람의 심장을 얻고 좋은 생각이 너희를 뒤따르고 사랑으로 너희를 기억하는 일이 너희가 너희 혼의 성숙을 위한 힘으로 느끼게 되는 일이 너희의 가장 큰 이득이다. 항상 내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가 가장 작은 형제들에게 행한 일은 나에게 행한 일이다." 그러면 너희가 고난을 줄이는 일이 쉽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는 또한 이웃 사랑을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계명을 성취시키고 너희의 혼을 성숙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조건.

B.D. No. 8523

1963년 6월 9일

너희의 혼이 이 땅에서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 연약하다는 것과 너희는 너희의 목적인 온전함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면, 언제고 나로부터 힘을 요청해야만 함을 명심하라. 왜냐면 너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자가 너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약해진 의지를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꼭 너희의 의지를 항상 약화시킬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나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주어진 은혜인 능력과 너희 의지의 강화를 요청해야 한다.

너희의 의지가 연약하다는 것은 너희를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남김 없이 끊을 수 없다는 데서 볼 수 있다. 너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너희가 단순히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혹은 여전히 세상 즐거움을 즐기기를 원하는지 혹은 너희의 마음이 완전히 세상적인 소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지 여전히 세상에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는 차이가 있다. 영적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너희의 의지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나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나와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이 분산되어 있다. 너희는 여전히 타협을 하므로 이제는 애를 더 써야 한다. 이제 진지하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고 항상 받게 될 힘을 필요로 한다.

너희가 내 나라 혹은 내 대적자의 나라로 인도받을지에 결정적인 것은 너희의 진지한 의지이다. 너희의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는 가는 너희의 사랑의 깊이가 결정적이다. 왜냐면 사랑이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는 나와 내 나라가 세속적인 세상보다 더 갈망할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얼마나 자기 사랑을 이미 극복했는가를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유익과 관계없는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왜냐면 이 사랑이 곧 나를 향한 사랑이며 이 사랑만이 나와 연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나와 복된 교제를 통해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은 어느 정도 자기 사랑이 들어 있는 것으로서 나를 향한 순수한 갈망은 아니다. 나에게 대한 바른 사랑은 비로소 자기 유익과 관계없는 이웃사랑을 통해 들어 난다. 이것만이 사랑의 깊이를 증가시킨다. 너희가 너 자신을 위해 조그만 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안도 너희는 이웃에게 작은 즐거움을 주고자 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세속적인 혹은 영적인 성공을 계산해서가 아니고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내적인 열망에 의해 행해야 한다.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증거는 너희의 존재를 고귀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는 기쁨을 나누어 주는데서 행복을 찾을 것이며 이 사랑이 너희 안에서 점점 강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세상에 대한 사랑은 줄어 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너희의 온전함은 단지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는 사랑의 정도에 달려 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

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고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향해 느끼는 사랑이 즉 너희가 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는 사랑을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어 질 수 있다.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점검을 받으려고 하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라. 나로부터 힘을 요청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목적에 이르리라. 그러나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의지가 진지하면 모든 수단을 다해 너희를 도우리라. 이 세상이 너희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동안 너희는 더욱 강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이 목적에 이르는 것이 점점 쉬워질 것이고 또 내 멍에는 온유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하면 너희는 더 이상 애쓸 필요 없다. 왜냐면 너희는 스스로 능력으로 충만하고 너희의 의지는 단지 나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이 능력인데 이는 모든 것을 이룬다. 너희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겸손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겸손은 너희가 사랑을 베푸는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들어 난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정도를 재는 것이며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자기이익과 관계없는 이웃사랑을 통해 드러내야 함을 잊지 말라. 너희가 눈으로 보는 너희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너희의 의지가 나를 향할 수 있고 또 이런 의지가 내가 너희를 간섭하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함을 보증한다. 그렇지만 너희의 완전한 정도는 이웃사랑의 정도를 통해 너희 스스로 결정한다. 너희가 진심으로 너희의 의지를 내 의지 아래 둘 때 너희는 완전한 정도에 이를 수 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나 자신처럼 항상 생각하고 행하고 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축복되기 위해 나와 연합하는 이 땅에서의 너희의 존재목적은 이룬 것이다.

아멘

성품의 변화는 단지 내면으로부터.

B.D. No. 6158

1955년 1월 8일

어떤 외적인 것도 너희의 내면의 삶을 지원하지 않는다. 어떤 형식적인 것도 너희 혼이 성장하도록 돕지 않고 완성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단지 내면으로부터 너희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보기 위해 너희를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너희 안에 아직 부족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자주 침묵에 들어가야만 한다. 너희는 실제 외부로부터 이런 혼에 대한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너희는 어떻게 혼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 해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온전하게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은 너희 자신이 해야만 한다.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주어진 의무를 하도록 강요받을 지라도 단지 모든 외적인 것을 끊는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혼에 대한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작업은 이 땅에서 하는 일과 전혀 독립적인 일이고 이 일은 너희의 성품과 너희의 실수와 덕스럽지 못한 점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사람의 내면의 삶과 그의 생각과 의지와 행함에 관한 일이다. 행하는 일이 세상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발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품변화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 혼에 대한 작업은 너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고귀하게 만들고 신적인 목표로 향하게 하는 일이다. 너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과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삶과 온유와 인내와 화평 가운데 살도록 항상 노력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서 모든 좋은 성품을 발전시켜야만 하고 나쁜 생각과 성품들을 너희로부터 몰아내야만 한다. 이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는 진지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 작업은 밖으로 알려질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밖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항상 이웃에게 발산되어 그들도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게 만든다. 이런 삶이 내면이 변했고 생각이 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많은 말이나 형식적인 행동보다 더 낮게 역사한다.

그가 자신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연약한 점과 실수에 대해 묵상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면, 그가 단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가 온전하게 되는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면, 그는 스스로 이런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만 한다. 의지를 정한 뒤에 또한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진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교파가 축복에 도달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항상 단지 자신 안에 사랑의 불을 지피려고 하고 자신 전적을 변화시키고 모든 나쁜 성품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고 이로써 온전하게 되는 단 한가지의 수단인 사람의 의지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가 어떤 교파에 속했든지 이런 의지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교파는 사랑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모든 교파는 온전함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교파도 완성을 보장 해주지는 못하고 단지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작업을 통해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

아멘

자기 내면의 성찰.

B.D. No. 8064

1961년 12월 16일

나는 나에게 충성스러운 너희에게도 혼의 성장을 위해 열심을 내라고 권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싸워야 할 타고난 기질과 여러 종류의 정욕과 연약함이 있다. 너희는 이 땅에 살 동안 이모든 요소들을 영화시켜야 함을 항상 염두 해야 한다.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고 너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 영적이지 못한 것들을 모든 사랑으로 대처해 이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게 하고 이들이 너의 안의 영의 소원을 따르게 하고 네 혼을 더 이상 강제케 하거나 방해하지 않게 해서 높은 곳으로 더 쉽게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는 너희 구원의 길이 순조롭게 되길 원하다. 그러나 너희들 스스로 너희 안에서 이 작업을 해야만 한다. 스스로 너희 안에 어떤 연약함과 실수가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너희의 혼이 어떠한 정욕에 묶여 있는지도 질문해 보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안의 모든 깨끗하지 못한 충동과 싸워야 한다. 모든 분노하는 격동을 잠재워야 한다. 너희는 천박한 생각을 전파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든지 너의 사랑을 베푸는데 예외를 뒤희는 안 된다. 너희가 이웃에게 행한 어떠한 불의라도 이를 인정하고 다시 보상하려고 해야 한다. 너희의 생각은 항상

고귀하고 순수해져서 모든 미움이나 복수하고자 생각이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어 한다. 사랑이 없는 모든 말을 피하고 너희가 나로부터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기대하듯이 동일하게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라. 너희가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내가 너희의 생각과 말을 안다는 것을 명심하고 너희가 내 면전에서 올바르게 행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 나는 너희가 아직 연약하다는 것과 너희 자신과 싸우는 이 싸움이 가장 힘들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항상 내 힘이 제공되고 있다. 단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생각만 해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며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안의 영적이지 못한 요소들을 잠잠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악한 영의 너희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잠잠해 질 것이며 너희 혼의 소원을 따르게 되어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자신의 성숙을 위해 스스로 힘을 요청할 것이다. 악한 영들이 한 몸 안에서 스스로 성장해 혼에 순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 왜냐면 육신을 떠날 때 온전히 성장한 영들만 영계의 나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은 육신을 입기 전 죄악 된 여러 가지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향들을 반대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육체가 혼을 압박하는데 그 이유는 육체는 악한 영의 속성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악한 영들의 구원을 도울 기회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모든 너희 안의 잘못 된 성향 자체들을 반대 것으로 변화시켜 즉 겸손과 온유와 평온과 긍휼과 공의로 변화시켜서 자신 스스로 모든 덕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이 될 때 너희는 성숙해서 영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어떤 덕이 너희에게 부족한지 진지하게 살펴보라. 너희가 전적으로 이미 너희 존재의 변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점검해보고 진심으로 이 부족한 점을 채우게 힘쓰라. 너희 혼자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단지 진심으로 원하면서 내가 힘을 제공해주기를 구하면, 아주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나에게 다음과 같이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게 그래서 의지의 약함을 벗어 날 수 있게 또 내가 너희의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있게 그러면 너희는 내 함께함을 확신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 혼이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을 사랑의 존재로 진지하게 변화시키려는 사람을 진정으로 기뻐한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너희 안의 모든 악한 영의 속성들이 영화될 것이고 이런 악한 속성들이 사랑의 힘 앞에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악한 영이 아직도 역사하면, 너희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이 그 안에 전적으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너희 자신 안에서 구원사역에 동참한 것이다.

아멘

덕성을 갖추는 일.

B.D. No. 8608

1963년 9월 6일

너희는 인내해야 하고 너희의 삶을 긍휼과 의로움과 겸손한 가운데 평화롭게 온유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사랑 안에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만이 너희를 이런 모든 덕성을 갖추게 해줄 것이고 너희는 내 의지에 따라 살게 된다. 내 대적자가 너희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내가 바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진지하게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면,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덕성들은 너희가 아직 나에게 속했고 축복되었던 온전한 상태였을 때 소유했던 것들이다.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대로 변화 되었다. 모든 나쁜 성품들이 너희 안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너희는 어떤 사랑도 없는 내 대적자의 성품을 영접하게 되었다. 너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다시 온전함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나쁜 성품을 버려야 하고 너희의 원래의 성품을 영접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다시 신적인 피조물이 될 수 있게 너희 안의 모든 덕성을 깨어나게 할 사랑의 사람을 살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 일은 항상 너희가 너희의 초기의 성품을 버릴 때까지 싸움을 요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항상 내 대적자에 의해 인내하지 못하게 싸움을 시작하게 격동되기 쉬운 성품이 되게 자극할 것이다. 그는 항상 너희 심장을 강박하게 너희의 의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하고 너희가 교만하게 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왜냐면 그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너희 자신을 자기와 같은 그리고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싸움을 너희는 싸워야만 한다. 왜냐면 모든 성장은 너희를 묶고 있는 자를 물리쳐 공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예수 안의 나에게 드리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도와 너희가 원초에 원래의 존재가 다시 되게 해주기를 나에게 구하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의식적으로 저희 자신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 너희가 부족한 것이 너희의 옛 부족함으로 다시 후퇴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깨달아야만 한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나에게 너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게 능력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의지가 진지한 것을 깨닫고 나는 진실로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게 너희를 도울 것이다. 무엇보다 너희는 모든 교만을 버려야 한다. 왜냐면 이는 내 대적자를 타락하게 한 것이고 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깊은 겸손 가운데 나에게 의지할 때 너희는 진실로 전적으로 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다른 모든 덕성들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모든 실수를 극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교만이 너희를 떠나면, 너희는 실수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거하면, 이 사랑이 너희의 존재를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러면 의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긍휼이 역사하게 하고 평화롭게 인내하며 연약한 자들을 견디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온유함으로 너희 이웃에게 역사하려고 할 것이다. 너희가 그를 도우려고 하면, 동시에 너희의 성품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사랑을 통해 모든 신적인 성품이 너희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너희는 확실하게 너희의 목표인 단지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된 존재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나와 하나가 되는 것에 도달할 것이다. 항상 또 다시 너희는 너희가 어느 정도 아직 대적자가 너희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비판해 봐야 한다. 만약에 그가 너희가 버리려고 노력하는 실수를 다시 하게 하려고 너희를 유혹

하면, 너희는 그에게 항상 저항을 해야 한다. 나를 향한 생각만으로도 그는 너희를 떠나야만 하고 너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

너희는 단지 너희 혼의 변화를 이루려는 진지한 의지만을 드리면 된다. 왜냐면 유혹은 날마다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종종 대적자가 인도하는 너희의 이웃들을 통해 너희를 흥분하게 해서 너희가 이제 다시 옛 실수를 다시 범하게 한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너희 자신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견디면, 너희가 의도적으로 너희 자신에 작업을 하면,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너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그러나 영의 나라는 너희에게 축복된 삶을 줄 것이고 너희는 다시 빛과 능력과 자유함 가운데 나와 역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성품이 내 것과 같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영원한 연결을 의미한다. 왜냐면 너희는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남김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귀환하는 것이다.

B.D. No. 7851

1961년 3월 15일

너희가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내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을 어떤 것도 나에게 숨길 수 없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속일 수 없다. 너희가 이런 깨달음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영으로 진리로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입은 더 이상 빈 소리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생각을 열고 나를 향할 것이고 나에게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아를 것이다. 너희는 어떤 것도 아름답게 가장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어떤 것도 감추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나에게 헌신하고 내 지혜와 내 사랑에 따라 내가 역사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올바른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온전한 존재이고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인간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린다. 너희는 나를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나를 인정한다.

너희가 나를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에는 서로 간에 비밀이 없다. 너희는 나에게 너희 심장을 전적으로 열고 드린다. 너희는 어떤 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 안의 사랑이 너희를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너희에게 전적인 신뢰를 갖게 한다.

사랑은 이제 나와 올바른 관계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만들어 준다. 사랑은 자녀와 아버지를 떨어질 수 없게 하나가 되게 한다. 자녀는 한때 자기를 피조물로 생성되게 한 아버지인 나에게 귀환하는 목표에 도달했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실제 너희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원함을 너희가 너희의 모든 심장을 소유하기 원하는 그와 긴밀하게 연결되길 구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얻어야 한다.

왜냐면 그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그의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최고로 온전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온전함은 사랑, 지혜, 권능, 공의, 긍

흙, 오래 참음, 인내를 포함한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이런 모든 성품들을 너희 안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사랑을 갈망함을 그가 너희와 연합이 되길 갈망함을 그러므로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자신을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계시함을 너희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단지 너희 자신을 열고 즉 내적인 저항이 없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게 맡겨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왜냐면 단지 내 사랑이 너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너희가 나를 깨달아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겸손함 가운데 내 앞에 나오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의탁한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최고로 온전할 수밖에 없는 내 성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드리는 헌신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나에게 남김 없이 헌신하는 일이 나에게 귀환하는 일이다. 그러면 사람 스스로 그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했다. 그는 내 소유가 되었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내 소유로 남을 것이다.

아멘

연합.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축복.

B.D. No. 7627

1960년 6월 20일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오면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을 이뤘어야만 한다. 너희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없이 저세상으로 가야 한다. 너희의 거주지를 바꾸어 너희가 영원 전에 떠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 고향을 찾아야 하고 다시 맨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축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다. 너희가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의 지속적인 추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너희는 나로부터 나왔고 너희의 모든 자연적인 추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를 이끌기 때문이다. 너희는 맨 처음에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성품은 나와 멀어진 것보다 나와 하나가 되기에 더 합당해야 한다. 너희는 이 큰 나와 격리가운데 전혀 행복하지 못했고 단지 다시 나와 하나가 된 후에 다시 복되다고 할 수 있다.

나와 하나가 된것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의미하는 내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이다. 너희는 내 피조물로서 거절할 수 없이 나에게 속해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난 타락은 잘못 된 의지와 잘못 된 생각에서 일어났다. 너희의 의지와 생각이 다시 올바른 질서 안에 움직일 때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길 구하고 너희는 전에 생긴 나와 격리를 줄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는 이를 이룰 수 있다.

왜냐면 나도 이런 연합을 간절히 원하고 너희를 돕기 때문이다. 내 사랑이 너희를 이끄는 데 너희가 이에 거역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올바른 질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이는 진실로 너희가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운명이다.

빛의 나라가 너희를 위해 다시 문을 열고 너희 뜻대로 너희는 능력과 빛과 자유함 가운데 역사한다. 이것이 내 뜻이다. 너희가 꿈을 꾸지 않는 행복함을 누릴 것이다. 너희의 눈과 귀가 이전에 이 땅에서 본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것을 보고 들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모든 측량할 수 없는 복된 것들을 나에게 속한 자를 나를 사랑함으로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된 너희를 위해 준비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이 아버지와 자녀 간에 깊이 연합하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너희 안에 불지펴야 할 사랑이 사람의 심장을 비추어 영원한 사랑이 나와 연결되게 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첫 성품을 다시 갖게 되고 영원토록 나와 같은 사랑이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의 변화시키는 사람은 떨어질 수 없게 나와 연결 된다. 그는 다시 원래 초기처럼 내 사랑으로 전체가 비추임을 받는다. 그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우리가 사랑으로 깊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인 나에게 귀환이 이미 이뤄졌어야만 한다. 이런 연합 가운데 다시 타락이 있을 수 없다. 이 존재는 그의 의지의 시험에 합격했고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는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는 그가 한때 그의 나를 떠난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다시 모든 성품과 능력을 다시 얻은 것이다. 나는 내 목표를 이룬 것이다. 영원한 내 구원계획은 그에게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창조할 수 없는 것을 이 구원계획으로 도달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내 전능함으로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온전한 존재가 된 내 자녀이다. 이제 나는 비로소 모든 면에서 내 형상인 올바른 내 자녀를 얻는다. 그는 내 옆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의 의지는 내 의지와 같다 왜냐면 온전함이 이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와 연합을 간절히 바리기 때문이다. 만약에 단지 너희의 의지가 자원해 내 인도를 따를 때 나는 진실로 너희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자원해 내 인도를 따를 때 너희가 전적인 의식으로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쓸 때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 때 너희는 모든 사랑의 행위를 통해 나와 점점 가까워 지고 너희는 너희 안의 내 임재를 허용한다. 그러면 너희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이제 영원히 풀 수 없게 묶는 끈이다.

아멘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

B.D. No. 8953

1965년 3월 13일

나는 너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다.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란을 통과해야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원초의 상태로 다시 변화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온전한 존재로서 이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축복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종료가 될 수 없는 상태에 관한 것이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이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과 모든 환란은 제한이 되어 있다. 너희는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런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너희가 영원히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스스로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빛을 전달해줄 수 있다. 너희는 온전하게 되기 위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의 과정 중에 있는 수 많은 혼들의 구속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혼들은 모두 큰 고난과 환란을 느낀다. 그들은 아직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는 중에 있다. 그들은 스스로 아직 나를 위해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위험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종말 직전에 있는 인류를 공활히 여겨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이 나를 위한 결정을 쉽게 만들어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는 단지 적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내가 어떤 혼도 영원히 어두움 가운데 놔두지 않고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다. 혼 자신들의 귀환에 걸리는 시간은 혼 스스로 결정을 한다. 혼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게 될 때까지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그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동 떨어진 개념이 아니게 될 때까지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법칙 아래 놓여 있다.

그들은 과거를 단지 눈깜짝할 사이로 보게 된다. 그들은 과거에 거해 볼 수 있지만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에게는 모든 일어난 일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내 사랑에서 나온 돕기 위한 수단으로 깨닫고 나에게 내가 그들의 완성을 도운 것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과 비교해 볼 때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진실로 단지 눈깜짝할 사이이다. 그럴지라도 인간으로서 너희는 아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은 너희가 온전하게 될 때 비로소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것도 너희가 깊은 곳으로 타락한 결과 있기 때문이다. 타락한 결과로서 너희의 모든 느낌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항상 단지 너희 자신의 고통을 위해 마찬가지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쉽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너희가 견딜 수 있는 것만을 단지 짚어지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죄짐을 너희와 너희의 죄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어깨 위에 내려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에게 너희를 드릴 때 너희는 모든 것이 견딜 수 있게 보일 것이다. 남김 없이 나와 하나가 되는 목표에 쉽게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전과 같이 나에게 모든 인정해주는 것을 거절하면서 나를 방해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무능력한다. 내 사랑을 너희에게 비추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모든 고난을 더욱 강하게 느낄 것이다. 너희는 고통과 환란 가운데 삶을 살거나 또는 도움의 대가로 너희의 혼을 요구하는 내 대적자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고난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표시이고 내가 너희 혼을 위해 싸운다는 표시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사랑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영접했으면 고난이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고난을 인내로 받아들여라. 너희의 관점을 나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을 알아라. 이 땅의 삶을 단지 지나가는 너희가 합격해야만 하는 시험으로

여겨라. 너희가 이 시험을 통해 정화가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가 끝 없이 긴 이 땅의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다시 가야만 하는 결과를 주는 깊은 곳으로 추락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 것에 대해 나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아멘

신적인 능력이 깨어나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

B.D. No. 7759

1960년 11월 29일

너희 모두에게 너희 안에서 잠자고 있고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힘이 있다. 왜냐면 너희는 모든 신적인 특성들이 너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모든 신적인 특성들이 실제 너희 안에 있지만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난 타락으로 인해 묻혀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런 특성들이 다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나타나게 해야만 한다. 너희에게 진실로 불가능한 일이 없을 정도의 권세와 힘이 있었다. 왜냐면 내 힘이 항상 너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었고 이런 일은 너희가 나처럼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모든 능력들을 잃었고 내 사랑의 비추임에 자신을 닫았고 이로써 너희는 힘이 없고 권세가 없게 되었고 또한 빛을 잃게 되었다. 이로써 너희는 이전에 너희의 온전한 상태에 대해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언제든지 너희 안에 잠들어 있는 힘들을 깨울 수 있고 너희는 언제든지 내 사랑의 비추임에 너희 자신을 열 수 있고 이를 통해 너희의 잘못된 성품을 원래의 성품으로 바꿀 수 있다. 너희가 모든 신적인 성품들과 능력들을 최고의 수준으로 다시 얻으려는 확고한 의지로 이를 위해 추구하고 이를 위한 조건을 성취시키고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의 성품을 다시 사랑으로 바꾸고 온전하게 되면, 너희가 다시 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내 형상이고 너희가 사랑을 통해 너희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변화시킨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취시키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 왜냐면 사랑은 불가능한 일이 없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인간으로서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너희 안에 숨겨진 능력을 알지 못한다. 모든 온전하지 못한 존재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사에 한계가 있다. 왜냐면 그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형성되었고 신적인 은사가 없고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그의 사랑도 부족하다. 왜냐면 온전하지 못함은 사랑의 부족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을 갖게 되면, 그의 상태는 변한다. 그는 알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자신과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사랑이 없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지 않는 능력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는 사랑을 통해 영원한 사랑인 나와 연결을 이루었고 그는 이제 다시 나에게 의해 내 사랑의 힘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그의 모든 성품이 신적인 성품이 되고 내 원래의 성품을 닮아가고 어떤 일이든 그에게 가능하게 된다.

존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그는 진실로 그의 이웃에게 축복이 되도록 일할 수 있고 그에게 모든 원소들이 순종할 것이고 그는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 있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웃의 가장 은밀한 생각을 드

러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단지 자신 이웃에게 축복이 되도록 역사할 것이고 그는 자신 안에 깨어난 힘을 절대로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역사하는 힘은 내 힘이고 그가 그의 의지를 전적으로 내 의지에 종속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단지 사랑이 이루고 사랑은 인간을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신적인 존재로 만든다. 너희 모두가 너희 안에서 이런 사랑이 최고의 화염으로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돼야 한다.

아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

B.D. No. 5501

1952년 10월 6일

너희가 특별하게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해주는, 단지 밖으로 들어나게 하기만 하면 되는 능력들이 너희 안에 잠재해 있다. 너희는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있고, 너희가 원래 초기에 나를 떠나 타락하였을 때, 너희의 모든 신적인 성품을 잃었다. 그러나 너희의 원래의 성품은 신적인 성품이었고, 너희에게 주어진 권세와 너희의 의지를 단지 밖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었고, 너희의 의지는 자유했다. 너희의 의지는 너희에게 충만한 능력을 의미하거나, 무능력을 의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의지가 나에게 대한 너희의 자세를 정하기 때문이고, 또한 너희 안의 나에게 대한 사랑을 정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너희 안에 모든 묶여 있는 능력들을 자유롭게 하고, 사랑은 너희 안의 모든 신적인 성품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고, 사랑은 자체가 능력이고 빛이다. 그러므로 모든 무능력과 모든 어두움은 너희 사람들로부터 사라질 것이고, 너희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육신을 입은 초기에, 물질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아직 전적으로 영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그의 능력에 단지 제한이 가해져 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사람이 분명하게 사탄의 영향에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는 지하의 세력과 연결이 된 가운데 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선한 영의 세계와 연결을 통해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능력들이 드러나게 발전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상태는 단지 자연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한때 가졌던 신적인 출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원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고,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는 잘못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영들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들과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영들과 연결을 이룰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거할 수 있고,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 단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모든 일을 그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 안에 모든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신적인 피조물이다. 이런 모든 신적인 성품들이 사람 안에 놓여져 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을 고통스러워 하고, 투쟁을 하고, 그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나에게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사는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인간 예수가 실제 인류에게 자신 안의 사랑을 최고로 확산되게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를 모범으로 삼고,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를 단지 따르느냐?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연의 경계선을 넘어서, 최고로 축복된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가? 너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모든 능력들은 깨어나기를 원한다. 너희 모두는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보물을 캐낼 수 있다. 너희 모두는 너희의 불쌍한 인간의 상태를 넘치게 축복된 상태로 바꿀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너희 심장을 사랑으로 바꾸는 한 가지를 행하기 원하면, 너희 모두가 신들처럼 역사하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증거이고, 사랑이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기 때문이고, 사랑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고,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는, 너희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너희는 묶임을 받은 것이고, 사랑이 없이는 너희의 영의 눈이 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능력과 빛이 없고, 이로써 신적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너희의 상태를 정하고, 너희가 누구에게 향할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두움의 권세자에게 향할지 또는 빛과 능력으로 너희를 생성되어 나오게 한 분에게 향할지를 정한다.

아멘

모든 신적인 성품들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

B.D. No. 7077

1958년 3월 29일

너희는 최고로 높으신 분의 능력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런 능력이 존재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는 근본적으로 너희를 창조한 분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써 너희는 능력이 충만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너희는 연약하고 자립적이지 않은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너희 스스로 자연의 법칙을 어길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너희는 신적인 근원으로부터 나왔다. 너희는 이를 단지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믿음으로 너희의 연약하고 무능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비로소 너희에게 이를 증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성품이 계속해 변화되는 일을 스스로 알 수 있기 위해 이런 노력만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다시 너희 안에서 신적인 근원의 모든 증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런 신적인 근원을 증명하는 능력들을 발전시킬 것이다. 초기에 온전하지 못한 너희 성품이 아직 이 땅에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온전함은 너희가 한때 가장 온전한 존재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는 선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이 너희 안에 이런 모든 신적인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성품들을 물리쳤다. 이 성품들은 더 이상 자신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너희는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신적인 능력을 잃었다. 너희는 능력이 없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마찬가지로 다시 너희를 최고로 온전한 상태로 바꿀 수 있다.

너희가 단지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연결을 이루려는 추구를 하면, 너희는 제한이 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능력이 충만하고 빛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없이는 너희는 연약하고 어두움에 둘러싸인다. 너희는 한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에 빠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구해야만 한다.

너희의 창조주는 능력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일은 모든 것을 꿰뚫는 어떤 연약함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해주는 능력의 흐름 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제 너희의 연약한 상태를 의식하면, 너희는 이런 상태를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제압당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너희를 생성되게 한 분에게 향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능력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해 너희가 그와 연결을 이루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너희의 연약한 상태는 절대로 그의 역사가 아니고 너희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너희 자신이 동인이 되어 능력을 갈망해야만 하고 너희를 생성되어 나오게 한 너희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를 갈망해야만 한다.

너희는 한 순간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신적인 성품이 나타나는 일이 너희를 측량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아주 오랜 동안 의식적으로 나와의 연결을 이루지 않고 미룬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아주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곳에서 너희의 연약함에 순응해 버린다. 너희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연의 권세 앞에 너희는 복종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만족해버린다. 그러나 너희는 한때 가졌던 신적인 능력을 다시 얻기 위해 단지 너희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일을 위해 애쓰지 않는다. 원래 초기에 신적인 피조물로서 너희는 빛이나 능력에 부족함을 알지 못했다. 너희는 넘치게 축복 되었다. 그러나 인간으로써 너희는 축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능력과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자유의지로 너희의 출처인 하나님께 다시 향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너희 자신을 다시 축복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는 일은 거부할 수 없이 원래 초기에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신적인 피조물로 너희를 다시 만드는 능력의 제공한다. 그러나 다시 변화되는 일은 자유의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단지 너희가 믿거나 또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거부할 수 있는 지식을 깨달음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너희 스스로 얻을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영원한 힘의 원천과 연결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모든 신적인 성품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연약함은 사람들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그는 초자연적인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단지 그의 원래의 성품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면 그가 한때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고 그러므로 그 자신 안에 능력이 있어야만 하고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 자신과 자기 자신을 다시 연결시켰다면, 이제 이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나처럼 온유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나의 대적자의 성품에 맞춘 모든 성품들을 버리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는 덕성을 쉬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아버지는 자체가 순수한 사랑이고, 단지 그와 같이 사랑이 된 피조물과 연합할 수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너희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왜냐면 내가 인간으로써 너희와 똑같은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혼의 완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모든 정욕에 대항하여, 모든 신적이지 못한 존재가 가진 성품들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인간적인 실수가 없이 태어나, 나의 의지에 시험을 피할 수 있었다면, 나의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모범이 될 수 없었다. 나는 이 땅의 삶의 깊이를 통과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육체가 똑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자유의지로 행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죄의 유혹을 피해야만 했다.

나는 육신의 정욕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했다. 이 싸움을 통해 내 안의 혼을 강하게 하고, 영과 하나가 되기를 자원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악한 환경이 나의 사랑과 인내에 심한 시험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온유하고, 모든 심장으로 겸손하게 남기 원하였고, 거만해지지 말아야 했다.

유혹에 저항을 하지 못하는 이웃사람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겼고, 나의 사랑은 증가하였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돕기 원하였다.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이러한 깨달음이 나의 온유와 인내를 강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비록 죄가 없지만, 비록 내가 나의 의지의 능력으로 육체와 혼의 모든 유혹에 승리자가 되었지만,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은 사람의 혼에 처해볼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으로부터 얻었다. 사랑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울 힘과 의지를 가질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덕성을 행하는 것이다. 그는 온유하고,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평화를 심으며, 겸손하고, 공의롭게 될 것이다. 그가 이웃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생각은 전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는 쉽게 모든 연약함과 실수에 대항하여 싸운다.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사랑의 삶을 살라. 그러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모든 죄악된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 자신은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성품을 영원한 사랑과 같게 만들 것이고, 이 땅에서 이미 나와 연합을 이룰 것이다.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는 일은 너희에게 확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든지 나처럼 너희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인내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지하게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나는 너희가 십자가를 지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혼이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여한 십자가를 더욱 자원하여 진다면, 너희 혼은 더 빠르게 세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고, 나의 이 땅의 삶을 이 땅에서 너희의 모범으로 삼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의지와 사랑의 능력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자유롭게 되고, 모든 신적인 성품을 가진, 끝없이 축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영의 나라에서 빛과 능력이 충만할 것이고, 영원이 복되게 살 것이다.

아멘